



■ 정책자료 2013-0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삼식·조성호·변수정·차우규·김태현·이지혜
박지연·배혜원·이선희·임지영·최인선·송리라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지연 (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송리라 (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인턴

정책자료 2013-0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발 행 일 2013년

저 자 이삼식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한디자인

가 격 비매품

목 차

제1편 결혼식 비용 실태	1
Ⅰ. 개요	3
Ⅱ. 결혼식 기본항목	6
Ⅲ. 결혼식 항목 제공 실태	10
Ⅳ. 결혼식 비용 추정	24
Ⅴ. 함의	27
 제2편 결혼·출산 행태 및 가치관에 관한 한일간 비교	37
Ⅰ. 개요	39
Ⅱ. 미혼인구의 결혼 관련 행태와 가치관	46
Ⅲ.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치관	88
Ⅳ. 함의	108
 제3편 영아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	137
Ⅰ. 개요	139
Ⅱ. 영아자녀의 수유실태	142
Ⅲ. 영아 자녀의 기저귀 이용 실태	153
Ⅳ. 함의	162
 제4편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중요도 평가	173
Ⅰ. 개요	175
Ⅱ. 영역 내 현재상태와 실천행위간 중요도 비교	177
Ⅲ. 영역간 노후준비 중요도 비교	181
Ⅳ. 함의	185

제5편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201
Ⅰ. 개요	203
Ⅱ. 인구교육의 목표와 동향	208
Ⅲ. 인구교육전문가양성 표준교육과정구상 및 표준강의안 개발	225
Ⅳ. 요약 및 건의	238

표 목차

〈표 1- 1〉 지역별 조사대상 예식장 수	5
〈표 1- 2〉 결혼식 기본항목 선정	9
〈표 1- 3〉 하객 수	12
〈표 1- 4〉 대관료	13
〈표 1- 5〉 꽃장식 비용	13
〈표 1- 6〉 폐백실 사용료	14
〈표 1- 7〉 혼구용품 비용	14
〈표 1- 8〉 웨딩 연출 비용	15
〈표 1- 9〉 식사 및 피로연 비용	15
〈표 1-10〉 웨딩드레스 및 택시도 비용	16
〈표 1-11〉 결혼식 사진 비용	16
〈표 1-12〉 신부 메이크업과 헤어 비용	17
〈표 1-13〉 부케 비용	17
〈표 1-14〉 폐백 음식 비용	18
〈표 1-15〉 실내악 비용	18
〈표 1-16〉 폐백 도우미 비용	18
〈표 1-17〉 결혼식 도우미 비용	19
〈표 1-18〉 스튜디오 촬영 비용	19
〈표 1-19〉 가족 미용 비용	20
〈표 1-20〉 주례 비용	20
〈표 1-21〉 동영상 제작 비용	20
〈표 1-22〉 케이크 커팅 비용	21
〈표 1-23〉 예도 이벤트 비용	21
〈표 1-24〉 전체 패키지 상품 비용	22
〈표 1-25〉 수요자 관점의 결혼식 필수항목에 소요되는 총비용	25

〈표 1-26〉 공급자 관점의 결혼식 필수항목에 소요되는 총비용	26
〈표 1-27〉 결혼식 기본항목 소요비용	27
〈표 2- 1〉 성별 연령별 결혼의 이점 유무별 미혼남녀	50
〈표 2- 2〉 성별 연령별 결혼의 이점별 미혼남녀(한국)	51
〈표 2- 3〉 성별 연령별 결혼의 이점별 미혼남녀(일본)	53
〈표 2- 4〉 성별 학력별 결혼의 이점 유무 및 내용별 미혼남녀(한국)	55
〈표 2- 5〉 성별 학력별 결혼의 이점 유무 및 내용별 미혼남녀(일본)	56
〈표 2- 6〉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57
〈표 2- 7〉 성별 학력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한국)	60
〈표 2- 8〉 성별 학력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일본)	61
〈표 2- 9〉 성별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희망유무별 미혼남녀(한국)	62
〈표 2-10〉 성별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희망유무별 미혼남녀(일본)	63
〈표 2-11〉 성별 학력별 교제상대와 알게 된 계기별 미혼남녀(한국)	64
〈표 2-12〉 성별 학력별 교제상대와 알게 된 계기별 미혼남녀(일본)	66
〈표 2-13〉 성별 연령별 교제상대 연령별 미혼남녀(한국)	67
〈표 2-14〉 성별 연령별 교제상대 연령별 미혼남녀(일본)	68
〈표 2-15〉 성별 연령별 결혼의 장애 유무별 미혼남녀(한국)	69
〈표 2-16〉 성별 연령별 결혼의 장애 유무별 미혼남녀(일본)	70
〈표 2-17〉 성별 연령별 결혼의 최대 장애별 미혼남녀(한국)	71
〈표 2-18〉 성별 연령별 결혼의 최대 장애별 미혼남녀(일본)	72
〈표 2-19〉 성별 연령별 부모님과의 동거유무별 미혼남녀	74
〈표 2-20〉 성별 학력별 부모님과의 동거유무별 미혼남녀(한국)	75
〈표 2-21〉 성별 학력별 부모님과의 동거유무별 미혼남녀(일본)	76
〈표 2-22〉 성별 연령별 어린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78
〈표 2-23〉 성별 학력별 어린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79
〈표 2-24〉 성별 지난해 소득별 어린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80
〈표 2-25〉 성별 연령별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82
〈표 2-26〉 성별 학력별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84

〈표 2-27〉 성별 종사상 지위별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85
〈표 2-28〉 학력별 남편과 알게 된 계기별 기혼여성	89
〈표 2-29〉 결혼연도, 결혼형태별 기혼여성	91
〈표 2-30〉 혼인 연령별 결혼요인(한국)	92
〈표 2-31〉 혼인 연령별 결혼요인(일본)	93
〈표 2-32〉 부부의 학력별 구성비율	95
〈표 2-33〉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별 기혼여성	97
〈표 2-34〉 연령별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별 기혼여성	98
〈표 2-35〉 학력별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99
〈표 2-36〉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여성(한국)	101
〈표 2-37〉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여성(일본)	102
〈표 2-38〉 학력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남녀(한국)	103
〈표 2-39〉 학력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남녀(일본)	103
〈표 2-40〉 결혼연령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한국)	104
〈표 2-41〉 결혼연령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일본)	105
〈표 2-42〉 학력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한국)	106
〈표 2-43〉 학력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일본)	106
〈표 3- 1〉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140
〈표 3-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1
〈표 3- 3〉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수유방식	143
〈표 3- 4〉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시작 월령 및 이용기간, 향후 이용예측기간	144
〈표 3- 5〉 15개월 이하 자녀의 이용 분유	145
〈표 3- 6〉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분유제품 선택 시 고려사항	146
〈표 3- 7〉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분유 구입경로	147
〈표 3- 8〉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 이용 시 월평균 분유값	147
〈표 3- 9〉 15개월 이하 자녀의 양육비 대비 분유값 비율	149
〈표 3-10〉 15개월 이하 자녀에 분유를 먹이는 이유	150
〈표 3-11〉 15개월 이하 자녀의 현재 수유방식 및 모유수유 시 분유수유 계획	151

〈표 3-12〉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수유 계획 시 시작월령	152
〈표 3-13〉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수유 시작 및 계획 월령	153
〈표 3-14〉 15개월 이하 자녀의 기저귀 이용 방식	154
〈표 3-15〉 15개월 이하 자녀의 이용 종이기저귀 제품	155
〈표 3-16〉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종이기저귀 선택시 고려사항	156
〈표 3-17〉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종이기저귀 구입경로	157
〈표 3-18〉 15개월 이하 자녀의 종이기저귀 1일평균 사용개수	157
〈표 3-19〉 15개월 이하 자녀의 월평균 종이기저귀 사용비용	159
〈표 3-20〉 15개월 이하 자녀의 양육비 대비 최근 한달 종이기저귀 값 비율	160
〈표 3-21〉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 및 기저귀 값의 가계 부담 정도	161
〈표 4- 1〉 전체 및 성·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	176
〈표 4- 2〉 전체, 성 및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세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176
〈표 4- 3〉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의 중요도	177
〈표 4- 4〉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중요도	179
〈표 4- 5〉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의 중요도	180
〈표 4- 6〉 노후 여가 실천행위의 중요도	181
〈표 4- 7〉 3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182
〈표 4- 8〉 4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183
〈표 4- 9〉 5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184
〈표 4-10〉 6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184
〈표 5-1〉 학교급별 인구교육 교재 내용체계의 비교	221
〈표 5-2〉 교사대상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 직무연수 프로그램, 2010	222
〈표 5-3〉 사회인구교육담당 전문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2011)	223
〈표 5-4〉 과정별 교과학점 기본이수내역	232

그림 목차

[그림 1-1] 일반인(176명)이 생각하는 결혼식 필수항목	7
[그림 1-2] 예식업 종사자(148명)가 생각하는 결혼식 필수 항목	8
[그림 1-3] 예식장 제공 결혼식 필수항목	11
[그림 1-4] 패키지 상품 항목 구성	11
[그림 1-5] 선호하는 예식 시간	12
[그림 1-6] 전체 패키지 가격 구성(필수 항목 & 패키지)	23
[그림 1-7] 필수항목 패키지 & 일반 패키지 가격 구성 비교	23
[그림 2-1]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남성)	48
[그림 2-2]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여성)	48
[그림 2-3]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한국남성)	58
[그림 2-4]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일본남성)	59
[그림 2-5]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한국여성)	59
[그림 2-6]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일본여성)	60
[그림 2-7] 국가별 결혼결정 이유	94
[그림 3-1] 15개월 이하 자녀의 천기저귀 이용 이유	162
[그림 5-1] 인구교육의 필요성	205



제1편

결혼식 비용 실태

이삼식 박지연 송리라 임지영

I. 개요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 서양식 결혼 문화가 유입된 것은 개화기 후, 서양 문물과 개신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서울의 경우 1930년대 전문 예식장이 생겼고 196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서양식 결혼식이 보편화되었다(홍나영·이은진·박선희, 2002). 1969년에는 국가 시책으로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73년 가정의례준칙이 확정되면서 간소하고 검소한 예식을 장려하였지만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해외 신혼여행, 야외 사진촬영, 호텔 결혼식 등 과시적이고 호화로운 결혼식 문화들이 점차 증가하였다(혼례종합정보센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현재의 결혼식은 대부분 상업화 되었고, 복잡해진 결혼식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들까지 생겨났다.

기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서 4,492만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서 5,691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사에서는 결혼비용으로 결혼식 비용, 배우자 예물, 배우자측 예단, 신혼살림, 신혼여행비, 함값, 신혼주택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2년 내에 결혼식을 치른 당사자 및 혼주를 대상으로 약혼식부터 이바지음식까지의 결혼관련 비용을 조사(주택비용 제외)한 결과 1인당 결혼비용이 최소 334만원부터 최고 3억 3,650만원으로 개인별 차이가 컸으며, 평균적으로는 5,198만원으로 나타났다. 결혼식 비용은 최소 120만원부터 최고 1억 1,900만원까지로 조사되었고 일반 예식장의 결혼비용은 평균 1,529만원으로 나타났다. 결혼

식 비용에는 결혼식장 대관료와 꽃, 케이크, 축포 등의 물품비, 주례, 축가, 피로연 식대, 폐백 비용, 사진, 비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결혼비용이 증가하면서 젊은층의 부담이 증가하여 결혼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에 들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부의 공공건물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작은 혼인식 릴레이 약속”,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등의 캠페인을 통해 검소하고 간소한 결혼식을 독려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 계획”을 통해 예식 비용 절감 방안으로 호화로운 꽃길장식 등의 지양, 하객은 양가 200명 이내 초청, 주례 없는 결혼식, 폐백 제외, 작은 예단·예물 주고받기 등을 제시하며 검소한 혼례예식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검소한 결혼식 유도 및 결혼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요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결혼식 기본항목 소요비용을 산정·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우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결혼식 비용 실태와 기본항목 소요비용 산출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서울의 예식장 5곳을 방문하여 서비스 및 항목의 구성과 가격 등을 알아보고 예식장 종사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결혼식 기본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구성된 총 27개의 결혼식 항목에 대해 수요자인 일반인과 공급자인 웨딩업체 종사자(웨딩 플래너, 예식장 운영자, 예식장 근로자 등)를 대상

으로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반인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웨딩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이들 조사에는 일반인 176명과 예식업종사자 148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결혼식장에서 제공하는 결혼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7월 29일~8월 15일까지 예식장들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예식장 951개(2011년 기준) 중 200개를 지역별로 표본 추출하였다. 예식장은 일반 예식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급호텔 및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은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 및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예식장 83개, 중소도시 90개, 군지역의 예식장 27개를 조사하였다.

〈표 1-1〉 지역별 조사대상 예식장 수

지역	조사대상(개)	지역	조사대상(개)
서울특별시	37	강원도	9
부산광역시	15	충청북도	10
대구광역시	7	충청남도	15
인천광역시	8	전라북도	9
광주광역시	5	전라남도	10
대전광역시	8	경상북도	13
울산광역시	3	경상남도	13
경기도	36	제주특별자치도	2
계			200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총 27가지 항목의 제공 여부와 항목별 가격 조사이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항목에는 0원을, 제공하지 않은 항목에는 “x”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필수항목에 대한 것으로 각 예식장에서 필수항목으로 제공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이 항목 전체에 대한 가격을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요일, 시간대 및 가장 보편적인 하객 수를 질문하고 이 때 드는 비용을 원단위로 질문하였다.

세 번째는 패키지 항목 및 가격 조사이다. 각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거래되는 패키지 순으로 세 개까지 기입하게 하였으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체크하고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함께 질문하였다. 또한 앞서 조사한 예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시기와 요일, 시간대 및 하객 수)에 해당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한계점은 예식장마다 제공하는 항목 및 서비스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가격 구성과 할인 정도가 매우 이질적어서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예식장들은 견적서에 제시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결혼식 항목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예: 패키지 구매시) 조사된 항목별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II. 결혼식 기본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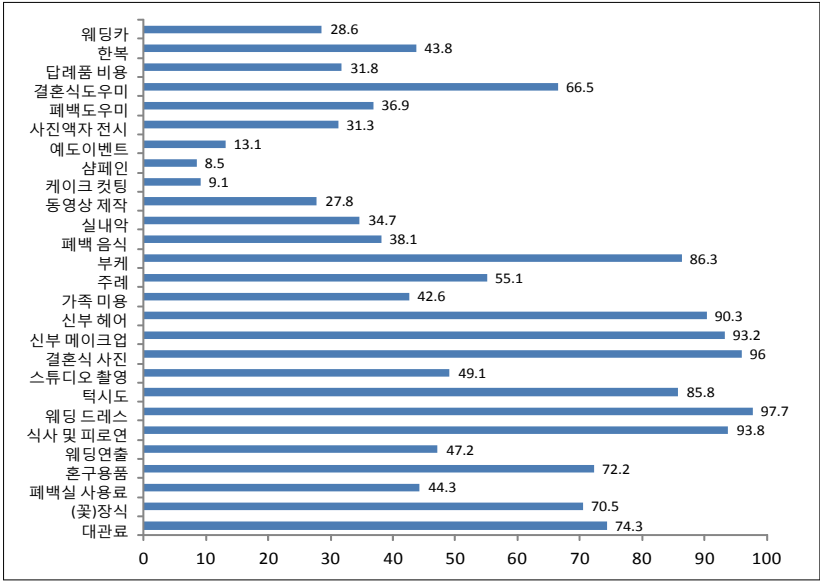
결혼식 기본항목은 결혼식에 꼭 필요한 지출항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항목은 결혼식의 원활한 진행을 용이케 하는 기능적인 의의와 결혼 의식의 참 뜻을 헤아리는 상징적(정서적)인 의의를 가져야 한다. 결혼식 기본항목은 수요자 및 공급자가 공감하는 결혼식 필수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기본항목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결혼식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결혼식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전체 응답자(176명) 중 70% 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위 10개 결혼식 항목을 수요자 관점의 기본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웨딩드레스(97.7%), 결혼식 사진(96.0%), 식사 및 피로연(93.8%), 신부메이크업(93.2%), 신부헤어(90.3%), 부케(86.3%), 턱시도(85.8%), 대관료(74.3%), 혼구용품(72.2%), 꽃장식(70.5%)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 일반인(176명)이 생각하는 결혼식 기본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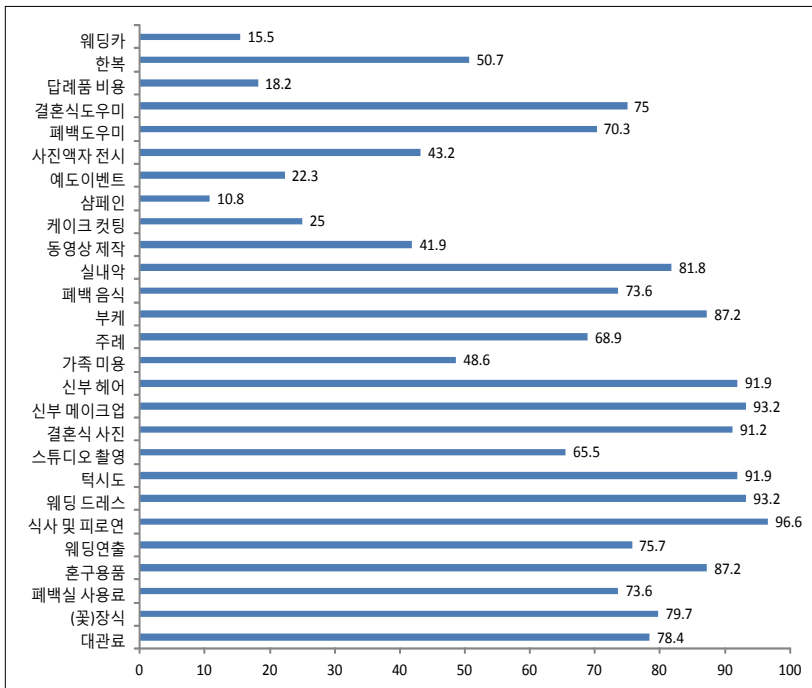
(단위: %)



공급자 관점의 결혼식 기본항목은 예식업 대상 설문조사(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식업 종사자 148명 중 결혼식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결혼식 항목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기에는 식사 및 피로연(96.6%), 웨딩드레스(93.2%), 신부메이크업(93.2%), 신부헤어(91.9%), 턱시도(91.9%), 결혼식 사진(91.2%), 부케(87.2%), 혼구용품(87.2%), 실내악(81.8%), 꽃장식(79.7%), 대관료(78.4%), 웨딩연출(75.7%), 결혼식도우미(75.0%), 폐백음식(73.6%), 폐백실사용료(73.6%), 폐백도우미(70.3%) 등 1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2] 예식업 종사자(148명)가 생각하는 결혼식 기본항목

(단위: %)



수요자 관점과 공급자 관점 간 결혼식 기본항목(응답 비율 70% 이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폐백관련 항목들이다. 공급자 관점에서 모두 70% 이상인 반면,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모두 70% 미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폐백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중 어느 한 집단이라도 70% 이상 필요하다고 인식한 항목들을 기본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즉, 식사 및 피로연, 웨딩드레스, 신부메이크업, 신부헤어, 텍시도, 결혼식 사진, 부케, 혼구용품, 실내악, 꽃장식, 대관료, 웨딩연출, 결혼식도우미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본항목들은 결혼식에 관련된 항목만이 해당되며, 기존 결혼비용 조사에서 포함되었던 주택 마련·신혼여행·예물 및 예단 비용 등은 제외하였다.

〈표 1-2〉 결혼식 기본항목 선정

구분	항목	수요자 관점 필수항목	공급자 관점 필수항목	기본항목
1	대관료	√	√	√
2	꽃장식	√	√	√
3	혼구용품	√	√	√
4	식사 및 피로연	√	√	√
5	웨딩드레스	√	√	√
6	텍시도	√	√	√
7	결혼식 사진	√	√	√
8	신부 메이크업	√	√	√
9	신부 헤어	√	√	√
10	부케	√	√	√
11	웨딩연출		√	√
12	실내악		√	√
13	결혼식 도우미		√	√
14	폐백실 사용료		√	
15	폐백음식		√	
16	폐백 도우미		√	

Ⅲ. 결혼식 항목 제공 실태

여기에서는 예식업(결혼식장) 대상 결혼식 항목 제공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결혼식장의 제공 항목 및 서비스, 예식 시간 및 하객 수, 결혼식 항목별 비용의 기술통계를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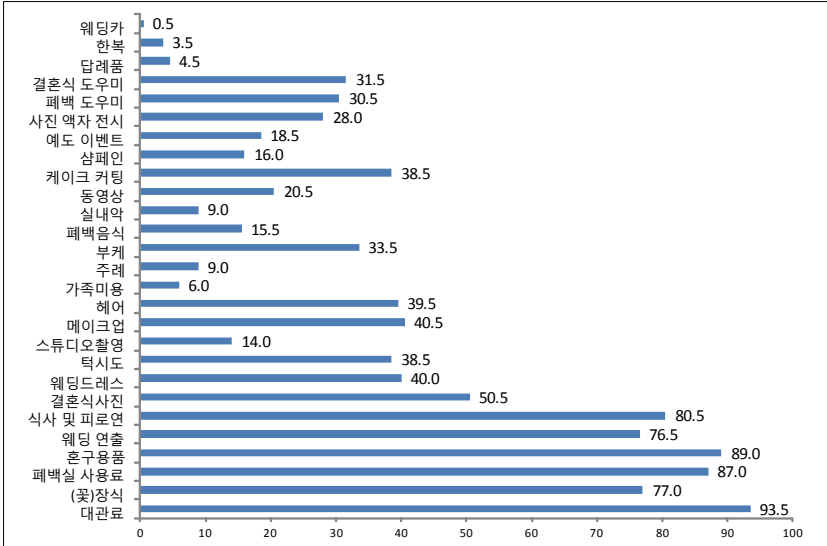
1. 결혼식장 제공 항목 및 서비스

전체 200개 조사대상 결혼예식장 중 대부분이 소비자가 꼭 이용해야 하는 필수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13곳만이 필수항목 없이 식사 및 대관료 등만 받고 나머지 항목들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항목은 대관료, 꽃장식, 폐백실 사용료, 혼구용품, 웨딩 연출, 식사 및 피로연 등 5~6개이며, 이 외에도 예식장마다 다양한 항목들을 필수항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식장에서는 필수항목 외에도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여 단일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묶음으로 제공하고 있다. 패키지 상품은 주로 용도가 비슷한 항목들을 묶어 판매하였으며, 단일 항목을 선택할 때보다 할인된 가격이라는 점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굳이 필요하지 않는 항목까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패키지 안에 포함된 항목 당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할인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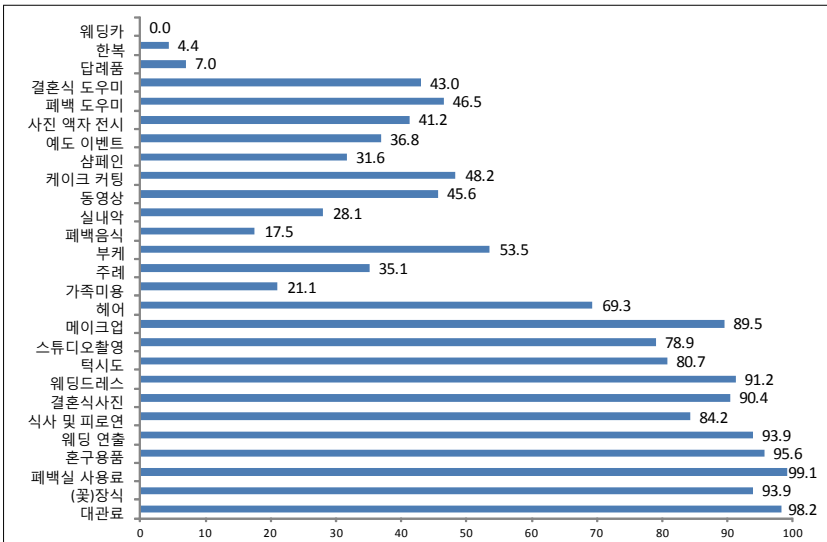
[그림 1-3] 예식장 제공 결혼식 필수항목

(단위: %)



[그림 1-4] 패키지 상품 항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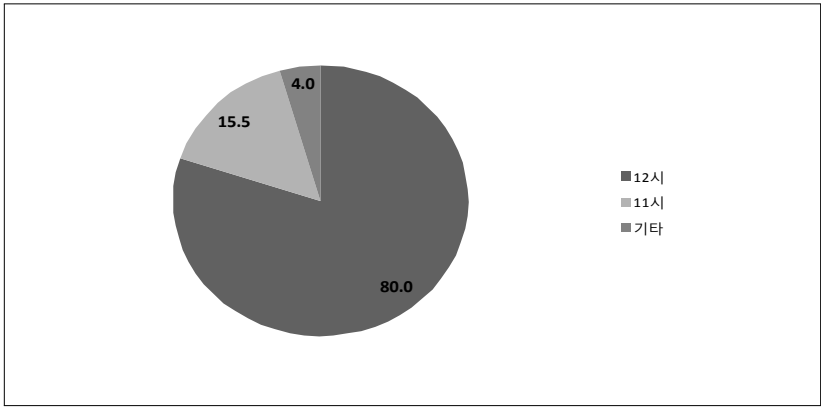
(단위: %)



2. 예식시간 및 하객 수

가장 많은 예식이 이루어지는 예식시간은 조사대상 예식장의 80%가 12시를 꼽았으며 11시가 그 뒤를 이었다(그림 1-5 참조).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심시간이 포함된 예식시간을 선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예식 요일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평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평일을 선택한 경우는 없었으며 토요일이 141곳(70.5%), 일요일이 56곳(28.0%)으로 나타났다(무응답 1.5%).

[그림 1-5] 선호하는 예식 시간 (단위: %)



조사대상 예식장의 가장 보편적인 하객수의 평균 244명으로 나타났으며, 최빈 하객수는 300명(35%), 중위 하객수는 250명이었다.

<표 1-3> 하객 수 (단위: 명)

구분(사례수)	평균 하객수	최빈 하객수	중위 하객수	최소~최대 하객수
전체(200)	244	300	250	80 ~ 600

3. 결혼식 항목별 가격

대관료는 결혼식 장소(홀) 대여 금액으로 크기, 하객 수용 인원이나 장식 등에 따라 다르다. 혼구용품이나 웨딩 연출, 꽃장식 등의 금액이 대관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대관료가 무료이고 식비나 다른 항목들의 비용만 받는 경우도 있다. 대관료가 0원인 32곳을 제외한 168곳의 평균비용은 약 80만원, 최빈과 중위비용은 5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4〉 대관료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68)	799,300	500,000	500,000	50,000~4,400,000
대도시(75)	1,067,100	500,000	700,000	100,000~4,400,000
중소도시(72)	640,300	500,000	500,000	100,000~3,000,000
군지역(21)	388,100	300,000	300,000	50,000~1,2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꽃장식 비용이 대관료에 포함된다는 응답이 45곳, 0원이라고 응답한 곳이 94곳이었다. 꽃장식 비용이 조사된 54곳의 평균비용은 72만원, 최빈비용은 50만원, 중위비용은 6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5〉 꽃장식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54)	721,100	500,000	600,000	100,000~5,000,000
대도시(24)	893,300	500,000	600,000	300,000~5,000,000
중소도시(29)	600,000	500,000	500,000	100,000~1,500,000
군지역(1)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폐백실 사용료는 대관료에 포함된다는 응답이 35곳, 0원이 63곳으로 나타났다. 폐백실 사용료가 조사된 98곳의 평균비용은 12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6〉 폐백실 사용료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98)	120,200	100,000	100,000	50,000~600,000
대도시(26)	128,800	100,000	100,000	50,000~300,000
중소도시(58)	123,400	100,000	100,000	50,000~600,000
군지역(14)	90,700	100,000	100,000	50,000~15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혼구용품은 방명록,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장갑, 필기도구, 축의금 봉투 등 결혼식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을 일컫는다. 0원이 66곳, 대관료나 꽃장식, 폐백실 사용료 등에 포함된다는 응답이 38곳이었다. 혼구용품 비용이 조사된 94곳의 평균비용, 최빈비용 및 중위비용이 약 10만원으로 폐백실 사용료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7〉 혼구용품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94)	99,500	100,000	100,000	2,500~300,000
대도시(25)	100,300	100,000	100,000	50,000~300,000
중소도시(50)	101,300	100,000	100,000	2,500~300,000
군지역(19)	93,900	100,000	100,000	26,000~2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웨딩연출은 결혼식이 진행될 때 특수 조명이나 음향, 빔 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0원이 81곳, 대관료 및 꽃장식에 포함된다는 응답이 34곳으로 나타났다. 웨딩연출 비용이 조사된 77곳의 평균비용은 19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8〉 웨딩 연출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77)	191,000	100,000	150,000	50,000~1,300,000
대도시(21)	132,600	100,000	100,000	50,000~ 300,000
중소도시(47)	227,000	200,000	200,000	100,000~1,300,000
군지역(9)	138,900	100,000	100,000	100,000~ 25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예식장에서는 식사 및 피로연 비용을 하객 1명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피로연에 사용되는 음료 및 주류도 포함된 가격으로, 결혼식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다. 전체 평균 1인 당 29,930원으로 최빈비용은 25천원으로 나타났지만 10.5%를 차지하고 있어 15천원에서 100천원 사이의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식사 및 피로연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99)	29,930	25,000	29,000	15,000~100,000
대도시(82)	32,500	25,000	30,800	20,000~100,000
중소도시(90)	28,500	25,000	28,000	15,000~ 50,000
군지역(27)	27,100	27,000	25,000	17,000~ 7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보통 택시도를 대여하는 비용이 웨딩드레스를 대여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웨딩 플래너를 고용하여 웨딩드레스 및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등을 예식장과 연계하지 않고 직접 선택하기도 한다. 웨딩드레스와 택시도를 합산한 평균비용은 약 80만원, 최빈비용은 80만원, 중위비용은 70만원이었다.

〈표 1-10〉 웨딩드레스 및 택시도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38)	797,100	800,000	700,000	150,000~2,800,000
대도시(49)	1,033,300	800,000	800,000	300,000~2,800,000
중소도시(66)	710,200	700,000	700,000	150,000~1,600,000
군지역(23)	543,500	400,000	400,000	300,000~ 9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결혼식 당일 찍는 사진으로 신랑, 신부의 사진이나 가족사진 등이 포함된다. 스튜디오 촬영 및 웨딩드레스 등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2곳이었으며 제공이 안 되는 예식장이 21곳이었다. 사진 비용이 조사된 131곳의 평균비용은 60만원, 최빈비용은 50만원, 중위비용은 5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 결혼식 사진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수 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31)	601,100	500,000	550,000	100,000~1,200,000
대도시(39)	660,300	500,000	700,000	100,000~1,200,000
중소도시(68)	599,900	500,000	580,000	200,000~ 900,000
군지역(24)	508,300	500,000	500,000	300,000~ 8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신부 메이크업과 헤어는 함께 구성하여 제공하는 곳이 많아 합산하여 비용을 계산하였다. 가격이 조사된 116곳의 평균비용은 19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12〉 신부 메이크업과 헤어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수 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16)	261,600	300,000	280,000	100,000~600,000
대도시(37)	283,000	300,000	300,000	100,000~600,000
중소도시(60)	257,300	300,000	290,000	100,000~400,000
군지역(19)	233,200	300,000	250,000	100,000~3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부케 비용은 131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12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13〉 부케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수 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31)	121,400	100,000	100,000	50,000~300,000
대도시(39)	128,200	100,000	100,000	50,000~300,000
중소도시(70)	124,500	100,000	100,000	100,000~250,000
군지역(22)	99,500	100,000	100,000	70,000~15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폐백음식의 평균비용은 가격이 조사된 144곳을 기준으로 19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14〉 폐백 음식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수 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44)	290,800	200,000	200,000	90,000~1,100,000
대도시(54)	284,300	190,000	190,000	100,000~1,100,000
중소도시(70)	305,600	200,000	214,500	90,000~1,000,000
군지역(20)	256,500	200,000	250,000	100,000~ 45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결혼식이 진행될 때 쓰이는 실내악의 경우 85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 비용은 19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5만원이었다.

〈표 1-15〉 실내악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85)	263,300	300,000	300,000	10,000~600,000
대도시(44)	250,200	300,000	300,000	40,000~400,000
중소도시(33)	303,000	300,000	300,000	10,000~500,000
군지역(8)	171,300	50,000	100,000	20,000~6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폐백도우미의 가격은 119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5만 5천원, 최빈비용은 5만원, 중위비용은 5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16〉 폐백 도우미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19)	55,100	50,000	50,000	20,000~100,000
대도시(46)	56,000	50,000	50,000	30,000~100,000
중소도시(51)	54,100	50,000	50,000	20,000~100,000
군지역(22)	55,500	50,000	50,000	30,000~1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결혼식 도우미 비용은 64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75천원, 최빈 비용은 50천원, 중위비용은 5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7〉 결혼식 도우미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64)	74,800	50,000	55,000	20,000~250,000
대도시(16)	79,300	50,000	70,000	50,000~200,000
중소도시(33)	70,600	50,000	50,000	20,000~200,000
군지역(15)	79,300	50,000	50,000	50,000~25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스튜디오 촬영 비용은 130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107만원, 최빈비용은 100만원, 중위비용은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18〉 스튜디오 촬영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30)	1,074,620	1,000,000	1,000,000	200,000~2,850,000
대도시(44)	1,071,590	1,000,000	1,000,000	200,000~2,850,000
중소도시(67)	1,029,100	800,000	1,000,000	200,000~2,500,000
군지역(19)	1,242,100	1,200,000	1,200,000	800,000~1,8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가족 미용은 신랑과 신부 뿐 아니라, 가족들 특히 양가 어머니들의 미용 금액까지 포함된다. 가족 미용 비용은 102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 최빈비용 및 중위비용 모두 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19〉 가족 미용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02)	100,690	100,000	100,000	50,000~200,000
대도시(47)	105,740	100,000	100,000	50,000~200,000
중소도시(44)	97,500	100,000	100,000	50,000~150,000
군지역(11)	91,820	100,000	100,000	50,000~1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주례는 예식장에서 주선해주는 전문 주례로 비용은 174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모두 10만원 수준이었다.

〈표 1-20〉 주례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174)	101,610	100,000	100,000	50,000~200,000
대도시(68)	105,740	100,000	100,000	100,000~200,000
중소도시(81)	100,000	100,000	100,000	50,000~150,000
군지역(25)	95,600	100,000	100,000	50,000~15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동영상 제작은 결혼식 전에 상영하는 동영상이나, 결혼식을 찍는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격은 99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23만원, 최빈비용은 20만원, 중위비용은 2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21〉 동영상 제작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99)	230,810	200,000	200,000	50,000~700,000
대도시(29)	244,830	300,000	250,000	100,000~400,000
중소도시(53)	233,580	200,000	200,000	50,000~700,000
군지역(17)	198,240	200,000	200,000	150,000~3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케이크 커팅 비용은 38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11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22〉 케이크 커팅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38)	111,470	100,000	100,000	20,000~350,000
대도시(13)	151,220	100,000	130,000	55,000~350,000
중소도시(15)	89,330	100,000	100,000	20,000~200,000
군지역(10)	93,000	100,000	100,000	30,000~10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예도 이벤트는 결혼식에 사용되는 화려한 축포나 이벤트 등을 의미하는데, 가격은 85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18만원, 최빈비용은 20만원, 중위비용은 2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23〉 예도 이벤트 비용

(단위: 원)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85)	179,760	200,000	200,000	50,000~300,000
대도시(36)	193,610	200,000	200,000	50,000~300,000
중소도시(39)	175,900	200,000	200,000	70,000~300,000
군지역(10)	145,000	100,000	100,000	50,000~250,000

주: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이 외에도 샴페인·사진 액자 전시·한복대여 및 웨딩카 비용이 있었다. 샴페인 비용은 5곳에서 조사되었고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모두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 액자 전시 비용은 5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13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복 대여 비용은 12곳에서 조사되었다. 평균비용은 12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 중위비용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웨딩카 비용은 9곳에서 조사되었으며, 평균비용은 14만 5천원, 최빈비용은 30만원, 중위비용은 5만원으로 나타났다.

4. 결혼식 패키지 상품 가격

200곳에서 필수항목 패키지(필수항목 묶음도 필수항목 패키지라고 표현)를 포함하여 총 314개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항목 구성은 매우 다양하였고 대관료, 꽃장식, 폐백실 사용료, 혼구용품, 웨딩연출, 식사 및 피로연의 필수항목에 웨딩드레스, 턱시도, 스튜디오 촬영 등이 추가되어 있다. 패키지 상품 내의 항목별 가격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어느 항목에서 어느 정도 할인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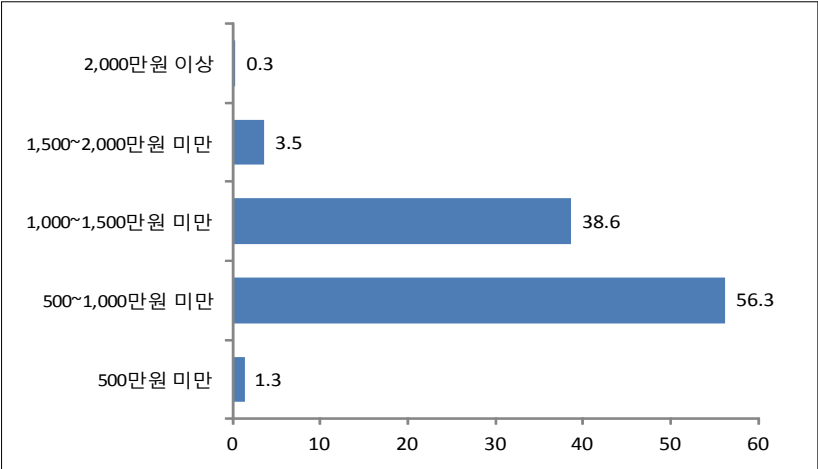
〈표 1-24〉 전체 패키지 상품 비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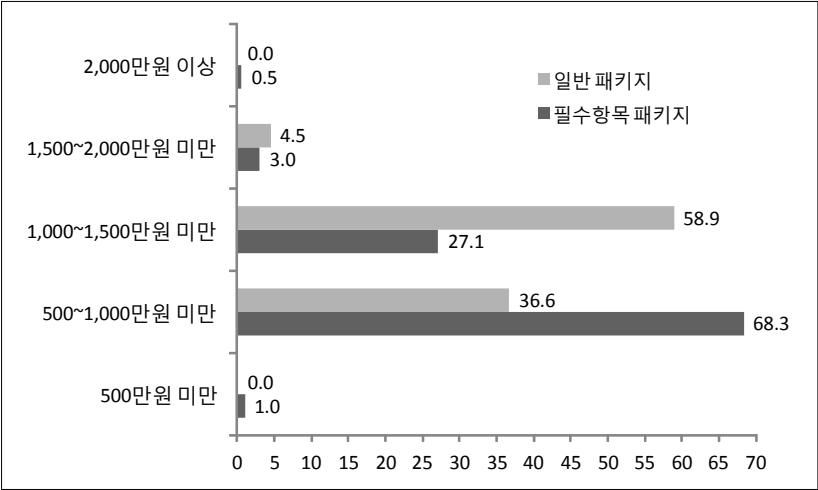
구분(사례수)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최저~최고비용
전체(313)	9,790,260	8,300,000	9,500,000	3,750,000~31,500,000

필수항목 패키지와 필수항목 외에 다른 항목들이 추가되어 구성된 일반 패키지 상품의 가격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필수항목 패키지는 500만원 미만이 1%, 500~1000만원 미만 68.3%, 1,000~1,500만원 미만 27.1% 등이었다. 일반패키지는 500만원 미만이 없었으며, 1,000~1,500만원 미만이 58.9%, 500~1,000만원 미만 36.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전체 패키지 가격 구성(필수 항목 & 패키지)



[그림 1-7] 필수항목 패키지 & 일반 패키지 가격 구성 비교



IV. 결혼식 비용 추정

결혼식 비용의 기본항목을 통해 소요비용을 산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가격을 항목의 대푯값으로 결정하는가이다. 항목의 가격 분포가 이질적이지 않다면, 평균비용이나 중위수 비용을 대푯값으로 정하여 기본항목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항목별로 가격차가 매우 크고 분포도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비용이나 중위비용만으로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필도 외(2007)가 장의비 표준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가중치(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에 부여)를 적용하였다. 가중치에 따라 2개의 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text{산식1: 평균비용} \times 33.3\% + \text{최빈비용} \times 33.3\% + \text{중위비용} \times 33.3\%$$

$$\text{산식2: 평균비용} \times 40.0\% + \text{최빈비용} \times \text{실제비율} + \text{중위비용} \times \text{나머지 비율}^1)$$

이들 2개 산식과 더불어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을 수요자 관점의 결혼식 필수항목들에 적용한 결과는 <표 1-25>와 같다. 즉, 수요자 관점에서의 결혼식 필수항목의 총비용은 평균비용 적용 시 1,088만원, 최빈비용 적용 시 905만원, 중위비용 적용 시 1,008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산식1 적용 시 1,000만원 그리고 산식2 적용 시 1,029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요컨대 수요자 관점에서 결혼식 비용은 약 1,000만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최빈비용의 실제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중위비용의 가중치가 (-) 값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해당 항목은 산식2의 가중치(33.3%)를 준용하여 계산함.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혼구용품비용, 폐백실 사용료, 폐백 도우미 비용으로 총 3개임.

〈표 1-25〉 수요자 관점의 결혼식 필수항목에 소요되는 총비용

(단위: 원)

구분	평균비용 적용시	최빈비용 적용시	중위비용 적용시	산식1 적용시	산식2 적용시
대관료	799,300	500,000	500,000	599,767	619,720
꽃장식	721,100	500,000	600,000	607,033	624,340
혼구용품	99,500	100,000	100,000	99,833	99,833
식사(250명 기준)	7,482,500	6,250,000	7,250,000	6,994,167	7,237,000
드레스와 텍시도	797,100	800,000	700,000	765,700	754,740
결혼식 사진	601,100	500,000	550,000	550,367	560,440
메이크업과 헤어	261,600	300,000	280,000	280,533	280,920
부케	121,400	100,000	100,000	107,133	108,560
총합	10,883,600	9,050,000	10,080,000	10,004,533	10,285,553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및 2개 산식을 공급자 관점의 결혼식 필수항목들에 적용한 결과는 〈표 1-26〉과 같다. 즉, 공급자 관점에서의 결혼식 필수항목의 총비용은 평균비용 적용 시 1,188만원, 최빈비용 적용 시 985만원, 중위비용 적용 시 1,094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산식1 적용 시 1,089만원 그리고 산식2 적용 시 1,117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급자 관점에서의 결혼식 비용은 약 1,100만원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결혼식 비용에 비해 약 1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1-26〉 공급자 관점의 결혼식 필수항목에 소요되는 총비용

(단위: 원)

구분	평균비용 적용시	최빈비용 적용시	중위비용 적용시	산식1 적용시	산식2 적용시
대관료	799,300	500,000	500,000	599,767	619,720
꽃장식	721,100	500,000	600,000	607,033	624,340
혼구용품	99,500	100,000	100,000	99,833	99,833
식사(250명 기준)	7,482,500	6,250,000	7,250,000	6,994,167	7,237,000
드레스와 텍시도	797,100	800,000	700,000	765,700	754,740
결혼식 사진	601,100	500,000	550,000	550,367	560,440
메이크업과 헤어	261,600	300,000	280,000	280,533	280,920
부케	121,400	100,000	100,000	107,133	108,560
웨딩연출	191,000	100,000	150,000	147,000	146,900
실내악	263,300	300,000	300,000	287,767	285,320
결혼식 도우미	74,800	50,000	55,000	59,933	60,730
폐백실 사용료	120,200	100,000	100,000	106,733	106,733
폐백 음식	290,800	200,000	200,000	230,267	236,320
폐백 도우미	55,100	50,000	50,000	51,700	51,700
총합	11,878,800	9,850,000	10,935,000	10,887,933	11,173,257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기본항목들에 대해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비용 및 2개의 산식을 적용한 결과는 〈표 1-27〉과 같다. 이 경우 결혼식 비용은 평균비용 적용 시 1,141만원, 최빈비용 적용 시 950만원, 중위비용 적용 시 1,059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결혼식 기본항목 소요비용은 산식1 적용 시 1,050만원 그리고 산식2 적용 시 1,07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요컨대 결혼식 기본항목 소요비용은 약 1,070만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표 1-27〉 결혼식 기본항목 소요비용

(단위: 원)

구분	평균비용 적용시	최빈비용 적용시	중위비용 적용시	기본항목 소요비용 (산식1)	기본항목 소요비용 (산식2)
대관료	799,300	500,000	500,000	599,767	619,720
꽃장식	721,100	500,000	600,000	607,033	624,340
혼구용품	99,500	100,000	100,000	99,833	99,833
식사(250명 기준)	7,482,500	6,250,000	7,250,000	6,994,167	7,237,000
드레스와 텍시도	797,100	800,000	700,000	765,700	754,740
결혼식 사진	601,100	500,000	550,000	550,367	560,440
메이크업과 헤어	261,600	300,000	280,000	280,533	280,920
부케	121,400	100,000	100,000	107,133	108,560
웨딩연출	191,000	100,000	150,000	147,000	146,900
실내악	263,300	300,000	300,000	287,767	285,320
결혼식 도우미	74,800	50,000	55,000	59,933	60,730
총합	11,412,700	9,500,000	10,585,000	10,499,233	10,778,503

V. 합의

이상에서 설정한 결혼식 기본항목 및 기본항목 소요비용은 절대적이라기보다 수요자들과 예식업자 등의 인식 및 실제 공급가격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한 결혼식 기본항목과 그 소요비용을 수요자인 일반국민은 물론 공급자에게 강제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실제 적용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항목과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결혼식을 거행할 시 본인이 구입하고 지급하여야 할 항목과 비용의 과다 여부 혹은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준은 수요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결혼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결혼식 항목들과 소요 비용은 공급자로 하여금 결혼식 관련 재화(물품)와 용역(서비스)의 공급 여부와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베이비뉴스, 2013년 9월 26일자. “청년여성문화원, 공공기관 활용 작은 혼례 시
연”
- 이필도·박복순·김수봉·김미혜(2007). 장의소요비용실태조사연구, 고용노동부.
- 조선일보, 2013년 1월 30일자 “예식비용 500만원 안팎...지방에도 ‘작은 결혼
식’장소 많아”
- 한국소비자원, 2013년 10월 21일자 보도자료. 체면 중시해 남만큼 써야 하는 결
혼문화, 비용 부담 여전 - 작은 결혼식 등 검소한 결혼 모형 보급 및 활성화
필요-
- 혼례종합정보센터 <http://www.weddinginc.org/>
- 홍나영·이은진·박선희(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40(11): 141~156.

부록: 조사표 <<

LIST NO- 【 】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한국조사협회(KORA)의 조사윤리강령 등 국제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hrj 현대리서치연구소	결혼식장의 결혼용품 및 서비스 제공가격 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결혼식 비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예식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전산처리 되어 통계 수치로만 이용되며, 이후 개인적인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조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 연구원 : 이 혜 선 (02-3218-9636)

실사 감독원 : 최 영 희 (02-3218-9658)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 코드	()시(도) ()구(군)	1) 동 2) 읍 3) 면	
-------	--	----------------------	----------------------

☞ 설문종료후 기입할 것

면접 상황	면접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분간)
	응답자 협조정도	1) 매우 협조적 2) 협조적인 편 3) 보통 4) 비협조적
	면접원 성명	

수퍼바이저		검증		메디팅		코딩	
-------	--	----	--	-----	--	----	--

I. 다음은 귀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항목 및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등급에 따른 가격을 기재해 주십시오.

※ 조사원 유의사항

-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실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응답을 받아 주십시오.
- 현재 예식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목 및 서비스의 가격을 **바침없이 원단위(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항목 및 서비스의 수준(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격별로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4개 이상의 항목이 있을 경우 **거의량이 많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에 제시된 항목 및 서비스 중 귀 예식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A수준(등급)란에 "X"를 표기**하시고, **무료로 제공되는 항목 및 서비스에는 "0"원**이라고 기입해 주십시오.
- 제시된 조사표에 **해당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항목 및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설문 시 응답 외에 **해당 예식장의 특이사항 또는 조사항목과 업체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그 내용을 설문지 여백(해당 문항 옆)에 메모**해 주십시오. (**반드시 !!!**)
- 설문 완료 시 **예식장에 비치하고 있는 견적서를 받아 설문지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연번	항목 및 서비스	제공 가격			
		A 수준(등급)	B 수준(등급)	C 수준(등급)	D 수준(등급)
1	대관료	원	원	원	원
2	(꽃)장식	원	원	원	원
※ 단상 장식, 꽃길 연출, 테이블 장식, 신부 대기실 등					
3	폐백실 사용료	원	원	원	원
※ 폐백의상, 활옷, 시모판대 등 포함					
4	혼구용품	원	원	원	원
※ 방영록,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장갑, 팔기도구, 축의금 봉투 등					
5	웨딩 연출	원	원	원	원
※ 특수 음향, 조명, 빔 프로젝터					
6	식사 및 피로연	원	원	원	원
※ 뷔페, 한정식, 양식, 술, 음료 등 포함 (인당 단가로 기재)					
7	웨딩 드레스	원	원	원	원
※ 대여					
8	턱시도	원	원	원	원
※ 대여					
9	스튜디오 촬영	원	원	원	원
※ 촬영 도우미 등 스튜디오 촬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포함					
10	결혼식 사진	원	원	원	원
※ 결혼식 당일 찍는 사진					

결혼식장 결혼용품(서비스) 제공가격 조사

연번	항목 및 서비스	제공 가격			
		A	B	C	D
11	메이크업	원	원	원	원
※ 신랑, 신부 메이크업					
12	헤어	원	원	원	원
※ 신랑, 신부 헤어					
13	가족미용 (메이크업&헤어)	원	원	원	원
※ 메이크업과 헤어 (인당 단가로 기재)					
14	주례	원	원	원	원
※ 예식장에서 추천해주는 전문 주례					
15	부케	원	원	원	원
※ 부토니아 및 코사지 포함					
16	폐백 음식	원	원	원	원
17	실내악	원	원	원	원
※ 현악, 피아노, 삼중주 등					
18	동영상 제작	원	원	원	원
19	케이크 커팅	원	원	원	원
20	삼패인	원	원	원	원
21	예도 이벤트	원	원	원	원
※ 화려한 축포 등					
22	사진 액자 전시	원	원	원	원
23	폐백 도우미	원	원	원	원
24	결혼식 도우미	원	원	원	원
25	답례품	원	원	원	원
※ 식권 대응 (신랑, 신부 측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답례품이 아님)					
26	한복	원	원	원	원
※ 예식 후 신랑, 신부가 인사 할 때 입는 한복을 대여하는 경우					
27	웨딩카	원	원	원	원
28	기타1()	원	원	원	원
29	기타2()	원	원	원	원
30	기타3()	원	원	원	원

3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결혼식장 결혼용품(서비스) 제공가격 조사

II. 다음은 귀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필수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AI. 귀 예식장에서 필수/기부로 지정된 항목 및 서비스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식장 제공 항목 및 서비스 예시>

☐ ① 대관료	☐ ② 꽃 장식	☐ ③ 폐백실 사용료
☐ ④ 혼구용품	☐ ⑤ 웨딩 연출	☐ ⑥ 식사 및 피로연
☐ ⑦ 결혼식 사진	☐ ⑧ 웨딩 드레스	☐ ⑨ 턱시도
☐ ⑩ 스튜디오 촬영	☐ ⑪ 메이크업	☐ ⑫ 헤어
☐ ⑬ 가족미용	☐ ⑭ 주례	☐ ⑮ 부케
☐ ⑯ 폐백 음식	☐ ⑰ 실내악	☐ ⑱ 동영상 제작
☐ ⑲ 케이크 커팅	☐ ⑳ 상패인	☐ ㉑ 예도 이벤트
☐ ㉒ 사진액자 전시	☐ ㉓ 폐백 도우미	☐ ㉔ 결혼식 도우미
☐ ㉕ 달례품	☐ ㉖ 헌복	☐ ㉗ 웨딩카
☐ ㉘ 기타1()		
☐ ㉙ 기타2()		

AI-1. 귀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필수 항목 전체의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은 각각 얼마입니까?
(※조사원: 가격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면 “최저 가격”에 기입해 주십시오)

최저 가격 원 최고 가격 원

AI-2. 귀 예식장에서 예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이며, 가장 보편적인 하객 수는 몇 명입니까?
그에 따른 필수 항목의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예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기입해 주십시오)

조건	성수기 여부 (성수기: 3~6월, 9~12월)	2) 요일	3) 시간대	4) 하객 수 (보증 인원)	금액
보기	1) 성수기 2) 비성수기	1) 토요일 2) 일요일 3) 월~금요일	-	-	원단위로 기재
예시	1	2	(12)시 ~ (1)시	300 명	1,500,000 원
①			()시 ~ ()시	명	원
②			()시 ~ ()시	명	원

결혼식장 결혼용품(서비스) 제공가격 조사

III. 다음은 귀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안내해 드리는 내용에 따라 각각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 유의사항

-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에 대해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만약 3개 이상의 패키지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면, 가장 많이 거래되는 3가지 패키지에 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필수 항목이 포함된 패키지는 그대로 조사하고, 필수 항목이 제외된 패키지의 경우에도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 패키지의 가격 또한 필수 항목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패키지 상품에 대한 조사 후 문5로 이동)

구분	패키지 1	패키지 2	패키지 3
----	-------	-------	-------

B1. 귀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명은 각각 무엇입니까?

패키지 명			
-------	--	--	--

B2. 위 보기 중 해당 패키지에 포함되는 항목 및 서비스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필수항목도 함께 표시)

※ 3page 문A1의 해당항목 참조 (예식장 제공항목 및 서비스 예시)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④	☐ ⑤	☐ ⑥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⑦	☐ ⑧	☐ ⑨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⑩	☐ ⑪	☐ ⑫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⑬	☐ ⑭	☐ ⑮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⑯	☐ ⑰	☐ ⑱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⑲	☐ ⑳	☐ ㉑	☐ ⑲	☐ ⑳	☐ ㉑
	☐ ㉒	☐ ㉓	☐ ㉔	☐ ㉒	☐ ㉓	☐ ㉔	☐ ㉒	☐ ㉓	☐ ㉔
	☐ ㉕	☐ ㉖	☐ ㉗	☐ ㉕	☐ ㉖	☐ ㉗	☐ ㉕	☐ ㉖	☐ ㉗
	☐ ㉘()			☐ ㉘()			☐ ㉘()		
	☐ ㉙()			☐ ㉙()			☐ ㉙()		

B3. 위 패키지의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은 각각 얼마입니까? (※ 필수 항목 포함 가격 기입)

최저 가격	원	원	원
최고 가격	원	원	원

B4. 앞서 말씀하신 '예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문A1-2)'에서 해당 패키지의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필수 항목 포함 가격 기입)

상황1	원	원	원
상황2	원	원	원

B5. 위에서 응답한 필수 항목과 패키지 상품들의 고객 이용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백분율(%)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각각의 패키지 상품의 이용 정도에는 필수 항목과 기타 단일 항목을 함께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

유형	필수 항목만 이용	패키지 1	패키지 2	패키지 3	기타 구성	계
이용정도	%	%	%	%	%	100%

♣ 질문에 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2편

결혼·출산 행태 및 가치관에 관한 한·일간 비교

조성호 변수정 임지영 최인선

I. 개요

1.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은 경제 발전을 이룬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아시아에서 매우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고, 유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부계사회(patrilineal society)라 할 수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변동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경험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계 출산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약 10년 정도 먼저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정도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의 고령화율도 급속히 증가하리라 생각된다.³⁾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국가에서는⁴⁾, 결혼도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 일례로 결혼시장의 미스매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생애 미혼율⁵⁾을 살펴보

2)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하회하게 된 시기는 일본이 1970년대 초반, 한국이 1980년대 초반이고, 일본의 65세 이상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23.3%(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3),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11.3%이다(2010 인구주택 총조사).

3)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3)에 따르면, 일본이 고령화 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에 진입한 연도는 1970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한 연도는 1994년,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한 연도는 2005년이고, 한국은 각각 2000년, 2018년, 2026년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2011).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계산하면 일본의 24년에 비하여 한국은 18년,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는 일본이 11년, 한국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고령화의 진행이 일본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2.1%(통계청 2013), 일본은 2.2%이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3)).

면,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3)의 통계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이 20.1%, 일본 여성이 10.6%이고, 한국 남성은 曹(2013)에 의하면 동년 기준으로 5.8%, 여성은 2.8%이다. 아직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한국 남녀의 생애 미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약 20년간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던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결혼 적령기를 맞이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생애 미혼율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인구변동 및 경제 발전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보다 한 템포 늦게 경험을 하면서도 최근에는 인구변동관련 수치가 일본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 두 나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산과 출산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결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여러 요인에 대해 비교분석을 한다. 분석법은 주로 교차 분석에 의한 비교를 행하는데, 한국의 데이터는 전화조사를 통하여 입수하였고, 일본은 2010년 이루어진 「제14회 출생동향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第14回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이하, 「출생동향기본조사」)를 기본으로 발간된 보고서의 교차 분석표를 참조 및 인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가공을 더하여 비교분석을 한다.

5) 생애 미혼율은 50세가 되었을 때의 미혼율을 나타내는데, 45~49세의 미혼율과 50~54세의 미혼율을 평균한 수치이다.

2. 조사자료

가. 일본

본고의 비교대상이 되는 일본의 조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출생동향 기본조사」이다. 이 조사는 1940년 부부의 출생력 실태를 알기 위해 처음으로 「출산력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그 후 세계대전 발발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52년 제2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2회 조사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1950년대 부부 출생아수의 급감과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출생율 저하에 대한 실태와 요인 분석에 유용한 데이터로 자리매김 해 왔다(제10회 조사부터 「출생동향 기본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1982년에 실시된 제 8회 조사부터는 소자녀화의 진전과 함께 결혼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부부조사에 추가하여 미혼자의 결혼관과 가족관등을 조사하는 미혼자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온 결과, 일본의 출생동향의 실태와 요인, 그리고 그 배경이 밝혀져 왔고, 그런 사회적, 학술적 의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소자녀화와 관련해서는 만혼화 및 최근에 더욱 두드러진 부부의 자녀 출산행태의 변화 등, 출생력 저하의 요인변화를 소기에 파악하고, 그런 변화의 배경으로 조사 객체의 생활상황이나 의식변화의 모습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부부의 아내와 18~49세의 미혼 남녀이다. 조사 대상은 2010년 국민생활기초 조사의 조사지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840조사지구 내에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부부(약

9,000쌍, 응답자는 아내)와 18~49세의 미혼 남녀(약 15,000명)이다.

조사 시기는 2010년 6월 25일이지만 응답자의 속성은 201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조사표를 배포하고, 조사 대상자 자신이 기입한 후 소정의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면 조사원이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기혼여성 9,050명 중 8,252명의 응답을 받아 내어 91.2%의 응답율을 보였고, 유효한 샘플수는 7,847명으로 유효 회수율은 86.7%였다.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14,248명 중 11,487명의 응답을 받아 80.6%의 응답율을 보였고, 유효한 샘플수는 10,581명으로 유효 회수율은 74.3%였다.

그리고 이 조사는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가 후생 노동성 장관 관방통계정보부, 도도부현⁶⁾(또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⁷⁾·중핵도시<中核都市>⁸⁾·보건소 설치시·특별구) 및 보건소의 협력을 얻어 실시되었다.

나. 한국

본고를 위해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는 일본의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일본과의 비교를

6)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都道府県이라 하며,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한다.

7) 정령으로 지정된 도시로서 정령이란 일본국 헌법 제73조 6호에 근거하여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가리키며,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 중에 가장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법정인구(法定人口)가 50만명 이상인 시를 말하고,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삿포로시(札幌市), 요코하마시(横浜市), 나고야시(名古屋市), 교토시(京都市), 오사카시(大阪市), 히로시마시(広島市)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지방중핵도시라고도 하며 대도시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 현청 소재지 및 법정인구 30만 이상의 시를 말한다.

위해 가능한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 조사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전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만18~49세의 미혼남녀와 기혼(유배우)여성인데, 조사 대상의 표집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대도시와 기타 도시), 연령별, 경제활동 유무별 분포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에는 미혼남녀의 경우 이성교제 유무 및 이성교제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기혼여성에게는 남편사향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추가 출산 계획 등을 물어보았다. 공통적으로는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부모님에 대한 문항 및 경제활동 사항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미혼남성 882명, 미혼여성 618명으로 미혼남녀 1,500명과 기혼여성 1,50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3. 한·일 간 비교의 한계점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한일 간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일본의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기초하여 한국의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의 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었고, 한국의 조사는 2013년에 실시되어 약 3년간의 시간적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사대상들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과 행태로 이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다는 점에서 약 3년간의 조사시점 차이로 인한 편의(bias)가 통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혼남녀의 조사에 있어서 일본의 「출생동향 기본조사」의 보고서에서는 사별, 이혼 등으로 미혼자가 된 법적 미혼자를 제외하고 집계

를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집계는 상기 사유로 인한 법적 미혼자도 포함하고 있다.⁹⁾ 그리고 기혼여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본의 경우, 초혼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재혼을 포함하고 있다.¹⁰⁾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일본의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게재되어 있는 교차 분석표를 기초로 하여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방향에 대한 유연성 관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행태와 가치관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4.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부계사회라는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현재 낮은 출산율과 높은 미혼율 및 만혼화 현상을 비슷한 수준으로 겪고 있다. 양국을 같은 아시아 국가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양국에서 일어나는 양상과 그 이유들을 동일하게 바라 볼 수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국가로서 분명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양상이나 원인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미혼남녀와 기혼여성들과 관련하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연구주제들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미혼남녀에 대한 주제들을 우선 살펴 본 후 기혼여성에 관계된 주제로 이어진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미혼남녀의 결혼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의향,

9) 전화 조사의 특성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미혼자의 분류를 할 수 없었다.

10) 이는 주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화 조사로 인한 한계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의 이점, 이성교제 (교제상황, 이성을 알게 된 계기 및 연령, 결혼의 장애), 부모와의 동거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가치관을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여성의 이상적 삶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 알아본다. 우선,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미혼남성, 미혼여성 이 결혼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알아본다. 그리고 결혼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본 후, 이점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별, 그리고 국적별로 분석한다.

나아가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성교제 상황이 어떠한지 양국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성을 주로 만나게 되는 계기와 연령을 살펴본 후, 이성교제가 결혼으로 이루어 질 때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이성교제 전반에 관한 항목들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지도 결혼의 행태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미혼남녀의 부모와의 동거 상황을 비교한다.

또한, 양국의 미혼남녀가 자녀양육과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결혼을 할 가능성을 가진 미혼남녀의 상황이나 생각에 더하여, 혼인을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접 결혼을 이행하고 자녀를 낳거나 낳으려는 기혼여성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한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으로 이행하게 된 이유와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양국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및 논의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 자녀수와 최종 기대하고 있는 자녀수를 연령별 국

적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을 성별, 연령,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소득별, 국적별 등으로 다양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장 뚜렷한 차이와 그 함의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추할 뿐 아니라 문화·역사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를 포함하고자 한다.

II. 미혼인구의 결혼 관련 행태와 가치관

본 장에서는 결혼 및 이성교제, 그리고 그 외의 요인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미혼남녀의 행태 및 가치관에 대하여 비교를 한다. 기본적으로 18~49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결혼 및 이성 교제 등의 이벤트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만 35세 미만의 경우를 별도로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1. 결혼의향

[그림 2-1]과 [그림 2-2]는 남녀의 연령별 결혼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본래의 설문은 「귀하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귀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어느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언젠가는 결혼하려 생각하고 있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잘모름·무응답」의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¹¹⁾ 그림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언젠가는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

11) 3개의 선택지를 편의상 「있다」, 「없다」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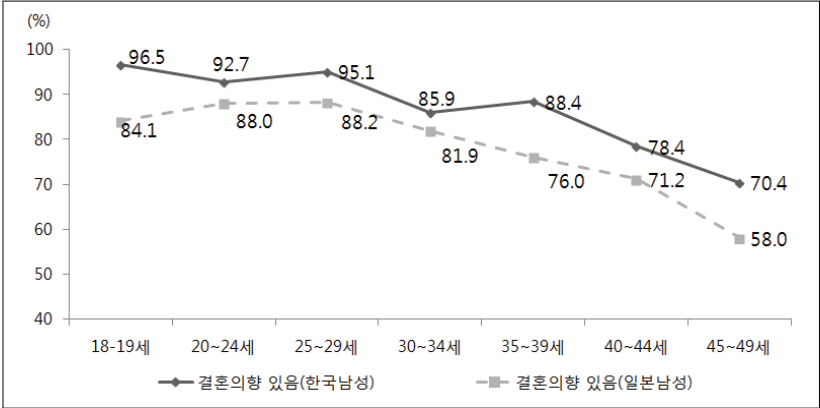
한 한국 남성은 전체의 90.6%였고, 이 결혼 의향을 연령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본 남성은 82.0%로 양국 모두 결혼할 의향은 높은 편이지만 한국 남성의 결혼의향이 일본 남성보다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은 전체의 85.8%였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는, 한국 남성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일본 여성은 각각 84.3%로 나타나 전체로 보면 한국 여성의 결혼 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90%에 가까운 수치로 낮다고는 볼 수 없다.

각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여성을 비교했을 때 볼 수 있는데, 양국 여성 모두 35세 전후를 기점으로 49세까지 결혼의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이다(한국: 81.9%→58.0%, 일본:84.9%→45.1%). 총 감소폭은 한국 여성이 23.9%, 일본 여성이 39.8%로 일본 여성의 감소폭이 한국 여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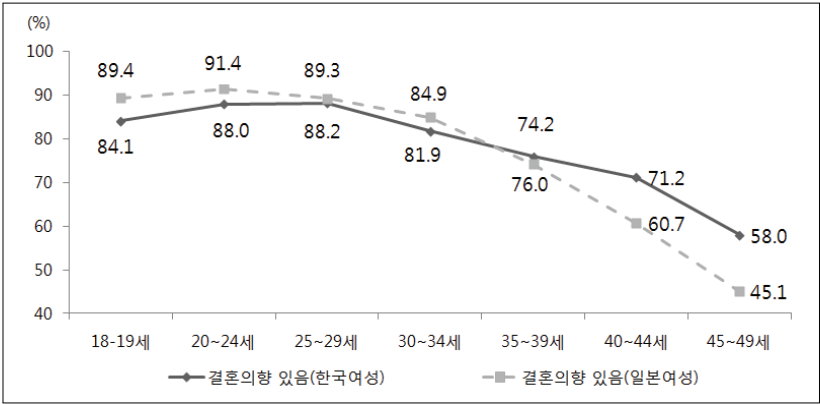
반면, 남성은 여성처럼 변화폭이 크지는 않지만, 한국 남성은 30세를 전후하여 어느 정도 큰 감소폭을 보인다. 하지만, 35~39세에 약간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 남성은 30세 전후를 기점으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45~49세의 결혼의향을 비교하면 한국 남성이 70.4%, 일본 남성이 58.0%로 동 연령에 있어서는 한국 남성의 결혼의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12) 단, 이것은 샘플 사이즈에 따른 변동 폭이 큰 것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45~49세의 샘플 사이즈는 27명으로서 1명이 변동될 때마다 3.7%가 변동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부터 이보다 샘플수의 확보가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또한, 일본 남성의 경우, 45~49세의 연령계급에서 결혼의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센서링 효과(censoring effect)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결혼 의향이 없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의 통계량이 과대평가(over-estimated)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림 2-1]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남성)



[그림 2-2]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여성)



2. 결혼 이점

가. 결혼 이점 유무

양국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분석에 이어서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점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 이는 결혼의향과 큰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Becker(1973)는 미혼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결혼했을 경우의 효용이 클 경우 결혼으로 이행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만일 결혼의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개인의 효용 증가로 이어질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ceteris paribus*), 결혼으로 이행하는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고, 결혼의향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표 2-1〉은 미혼남녀가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을 살펴보면,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총 응답자는 한국 남성 전체가 81.7%, 일본 남성이 61.7%로,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전체의 비율이 35세 미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35세 미만이 결혼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 큰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여성이 71.7%, 일본 여성이 73.1%로 일본 여성이 약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비율보다 35세 미만의 비율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은 연령에 따른 변화폭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특히 일본 여성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남녀 관계없이 1절의 결혼의향의 경향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의향에서 보이는 양국의 차이는 결혼의 이점에서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Becker(1973)의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의향과 이점은 실제 결혼 이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결혼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는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2011년 5.2%, 한국은 동년 6.6%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OECD, 2012).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은 양국 간에 약 20%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남성의 결혼의향이 한국 남성에 비해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만일 일본 남성의 결혼에 대한 의향과 이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일본 남성의 결혼 이행은 한국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표 2-1〉 성별 연령별 결혼의 이점 유무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있음	없음	기타	χ^2	전체	있음	없음	기타	χ^2
한국										
계	100.0(882)	81.7	13.8	4.4		100.0(618)	71.7	22.7	5.7	
소계(35세미만)	100.0(709)	82.9	13.5	3.5		100.0(540)	73.7	20.9	5.4	
18~19세	100.0(86)	84.9	14.0	1.2		100.0(77)	74.0	18.2	7.8	
20~24세	100.0(192)	83.3	13.5	3.1		100.0(162)	78.4	20.4	1.2	
25~29세	100.0(268)	83.6	13.4	3.0	13.7***	100.0(209)	72.7	20.1	7.2	20.1
30~34세	100.0(163)	80.4	13.5	6.1		100.0(92)	67.4	26.1	6.5	
35~39세	100.0(95)	74.7	16.8	8.4		100.0(44)	61.4	31.8	6.8	
40~44세	100.0(51)	78.4	11.8	9.8		100.0(23)	47.8	43.5	8.7	
45~49세	100.0(27)	81.5	14.8	3.7		100.0(11)	63.6	27.3	9.1	
일본										
계	100.0(5,040)	61.7	34.5	3.8		100.0(4,276)	73.1	23.8	3.1	
소계(35세미만)	100.0(3,667)	62.4	34.3	3.3		100.0(3,406)	75.1	22.0	2.8	
18~19세	100.0(435)	54.3	41.1	4.6		100.0(530)	68.7	28.3	3.0	
20~24세	100.0(1,359)	60.0	37.5	2.5		100.0(1,371)	75.1	22.5	2.3	
25~29세	100.0(1,076)	67.8	29.0	3.3	-	100.0(895)	79.7	17.4	2.9	-
30~34세	100.0(797)	63.7	32.2	4.0		100.0(610)	74.1	22.1	3.8	
35~39세	100.0(613)	59.2	36.5	4.2		100.0(427)	71.2	25.3	3.5	
40~44세	100.0(479)	62.8	32.4	4.8		100.0(270)	62.2	33.0	4.8	
45~49세	100.0(281)	56.6	35.9	7.5		100.0(173)	54.9	40.5	4.6	

*** p<.001, ** p<.01, * p<.05.

나. 결혼 이점

〈표 2-2〉와 〈표 2-3〉은 앞서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연령별로 분석한 것이다.¹³⁾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의 이점으로 한국 남녀는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과(남성: 52.3%, 여성: 47.6%)¹⁴⁾ 현재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한 반면(남성: 27.0%, 여성: 23.3%), 일본 남녀는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는 것(남성: 31.6%, 여성: 43.5%)과,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남성: 31.0%, 여성: 29.7%)을 꼽았다.

〈표 2-2〉 성별 연령별 결혼의 이점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정신적 의지처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자녀출산	성적 만족	생활의 편리	부모로부의 독립	부모안심 및 주위 기대부응	기타	무응답	비해당	χ^2
남성														
계	100.0(882)	10.9	9.3	52.3	27.0	21.1	4.9	9.9	5.2	16.3	-	0.5	18.3	
소계(35세미만)	100.0(709)	11.0	7.8	55.4	28.9	22.6	4.4	9.2	5.5	14.5	-	0.4	17.1	
18~19세	100.0(86)	8.1	8.1	55.8	33.7	25.6	3.5	15.1	5.8	8.1	-	1.2	15.1	
20~24세	100.0(192)	9.4	8.3	59.4	29.7	25.5	2.1	7.3	5.7	14.6	-	-	16.7	
25~29세	100.0(268)	11.2	6.3	55.2	30.2	23.9	4.5	10.1	5.2	13.4	-	0.4	16.4	84.3**
30~34세	100.0(163)	14.1	9.2	50.9	23.3	15.3	7.4	6.7	5.5	19.6	-	0.6	19.6	
35~39세	100.0(95)	10.5	16.8	37.9	16.8	11.6	5.3	11.6	5.3	24.2	-	-	25.3	
40~44세	100.0(51)	11.8	11.8	47.1	23.5	15.7	3.9	15.7	2.0	21.6	-	2.0	21.6	
45~49세	100.0(27)	7.4	18.5	29.6	18.5	25.9	18.5	11.1	3.7	25.9	-	-	18.5	

13) 중복응답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14) 카이제곱 통계량이 남성의 경우에는 1%에서 유의하지만, 여성은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연령 계급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경향성 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표 2-2〉 계속

구분	전체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정신적 의지 처	사랑 하는 사람 과의 생활	자녀 출산	성적 만족	생활 의 편리	부모 로부 터의 독립	부모 안심 및 주위 기대 부응	기타	무 응답	비 해당	χ^2
여성														
계	100.0(618)	13.1	5.8	47.6	23.3	17.6	1.1	7.0	7.6	14.6	0.2	0.2	28.3	
소계(35세미만)	100.0(540)	13.1	6.1	48.7	24.6	18.5	1.3	7.2	7.4	14.4	0.2	0.2	26.3	
18~19세	100.0(77)	16.9	3.9	51.9	18.2	27.3	1.3	11.7	9.1	5.2	-	-	26.0	
20~24세	100.0(162)	11.1	6.2	54.9	25.9	21.0	1.9	8.0	8.0	12.3	0.6	0.6	21.6	
25~29세	100.0(209)	13.9	7.2	45.5	24.4	16.3	1.0	6.7	8.1	16.7	-	-	27.3	50.9
30~34세	100.0(92)	12.0	5.4	42.4	28.3	12.0	1.1	3.3	3.3	20.7	-	-	32.6	
35~39세	100.0(44)	13.6	4.5	45.5	15.9	6.8	-	2.3	13.6	18.2	-	-	38.6	
40~44세	100.0(23)	13.0	-	30.4	8.7	21.7	-	4.3	4.3	8.7	-	-	52.2	
45~49세	100.0(11)	9.1	9.1	36.4	18.2	9.1	-	18.2	-	18.2	-	-	36.4	

*** p<.001, ** p<.01, * p<.05.

주: 중복응답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이 결과에서 일본 남녀는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결혼의 큰 이점이라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남녀는 자신의 아이보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상대가 생긴다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남녀보다 한국 남녀들이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曁(2013)는 양국의 사교육비에 대해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만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간 소득에 접하는 사교육비 비율을 보면, 한국이 13.1%, 일본은 공립과 사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공립일 경우, 8.2%, 사립일 경우는 14.0%라고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보내는 일본의 부모는 평균적인 부모의 소득보다 큰 경향이 있고, 재학생수에 있어서도 공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¹⁵⁾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으로 재가정을 하면, 한국이 13.5%임에 반해, 일본은 공립이

7.3%, 사립이 8.4%로 한국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¹⁶⁾ 따라서 한국 남녀들이 인식하는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감은 일본 남녀들보다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이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녀 보다는 결혼 상대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일본 여성은 정신적 의지가 되는 상대가 생기는 것보다 자신의 아이가 생기는 것을 결혼의 이점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 여성에게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표 2-3〉 성별 연령별 결혼의 이점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정신적 의지 처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자녀 출산	성적 인 만족	생활 의 편리	부모 로부터 독립	부모 안심 및 주위 기대 부응	기타	무 응답	비 해당
남성													
계	100.0(5,040)	4.1	12.7	31.0	12.1	31.6	1.4	4.7	3.6	16.5	0.6	4.2	34.5
소계(35세미만)	100.0(3,667)	4.1	1.2	32.3	13.7	33.6	1.6	4.0	4.3	14.6	0.4	3.7	34.3
18~19세	100.0(435)	2.8	6.4	32.0	13.8	30.1	1.8	3.2	5.1	7.6	0.7	5.1	41.1
20~24세	100.0(1,359)	4.5	10.0	31.1	14.6	33.2	1.5	4.5	5.4	10.2	0.4	2.9	37.5
25~29세	100.0(1,076)	4.5	13.0	35.1	15.4	36.4	1.8	4.1	3.3	17.4	0.3	3.5	29.0
30~34세	100.0(797)	3.8	16.1	30.7	9.5	32.2	1.3	3.5	3.3	22.3	0.4	4.5	32.2
35~39세	100.0(613)	4.7	16.5	25.9	8.6	26.9	0.5	4.7	2.0	21.4	0.3	4.9	36.5
40~44세	100.0(479)	4.2	16.7	28.2	8.4	24.8	1.5	8.1	1.7	23.2	1.0	5.0	32.4
45~49세	100.0(281)	2.1	10.3	29.9	5.7	28.1	1.1	7.5	1.1	19.2	2.8	7.5	35.9

15) 일본의 공립학교 및 학교급별의 재학생수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수의 비율은 98.8%, 중학교는 92.9%, 고등학교는 69.2%이다(文部科学省 2013).

16) 참고로, 일본의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간의 연간 소득에 접하는 사교육비 비율 차이는 1.4%이다(曹 2013).

17) 2008년 일본 내각부 주도로 실시된 「제8회 세계청년의식조사」에서도 본고와 같은 내용의 설문을 묻고 있는데, 그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内閣府 2010).

〈표 2-3〉 계속

구분	전체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정신적 의지 처	사랑 하는 사람 과의 생활	자녀 출산	성적 인 만족	생활 의 편리	부모 로부터 의 독립	부모 안심 및 주위 기대 부응	기타	무 응답	비 해당
여성													
계	100.0(4,276)	15.2	7.1	29.7	15.7	43.5	0.3	2.3	5.9	19.7	0.7	3.6	23.8
소계(35세미만)	100.0(3,406)	15.1	6.1	29.7	17.6	47.7	0.3	2.2	6.3	19.1	0.6	3.3	22.0
18~19세	100.0(530)	15.3	3.6	25.3	19.6	44.3	0.2	2.1	7.2	12.6	0.9	3.6	28.3
20~24세	100.0(1,371)	15.5	4.8	30.9	20.7	49.5	0.3	2.4	6.8	14.2	0.4	2.8	22.5
25~29세	100.0(895)	15.4	6.1	31.1	17.0	51.1	0.3	2.1	5.3	24.5	0.7	3.2	17.4
30~34세	100.0(610)	13.4	11.0	28.9	9.8	41.6	0.3	2.0	6.2	28.0	1.0	4.3	22.1
35~39세	100.0(427)	14.5	10.3	30.7	9.1	36.5	0.0	1.6	4.7	23.4	1.2	4.4	25.3
40~44세	100.0(270)	15.2	13.3	30.0	5.9	21.1	0.4	3.7	5.2	23.7	1.1	5.6	33.0
45~49세	100.0(173)	20.2	10.4	27.7	8.7	12.7	0.6	4.6	2.3	15.0	1.2	4.6	40.5

주: 중복응답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표 2-4〉, 〈표 2-5〉는 결혼의 이점 유무 및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가 그 이점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학력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결혼의 이점 유무를 살펴보면, 한국 남성은 학력과 결혼의 이점 간에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일본 남성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그 이하의 남성보다 결혼에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여성도 일본 남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점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고졸 남녀는 그 외의 남녀보다 자녀의 출산이 결혼의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본 남녀는 뚜렷한 학력별 차이가 보이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표 2-4〉 성별 학력별 결혼의 이점 유무 및 내용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유무			내용												
		있음	없음	기타	경제적 여유	사회적 적응	정신적 안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자녀 출산	성적 만족	생활 편리	부모 로부의 독립	부모 안심 및 주위 기대 부응	기타	무 응답	비 해당	
남성																	
35세 미만 소계	100.0(709)	82.9	13.5	3.5	11.0	7.8	55.4	28.9	22.6	4.4	9.2	5.5	14.5	-	0.4	17.1	
중학교	100.0(6)	50.0	33.3	16.7	-	16.7	50.0	33.3	-	-	-	-	-	-	-	50.0	
고교(공학)	100.0(99)	84.8	12.1	3.0	16.2	6.1	57.6	21.2	31.3	5.1	13.1	4.0	10.1	-	1.0	15.2	
남고/여고	100.0(32)	81.3	15.6	3.1	9.4	9.4	46.9	40.6	15.6	3.1	3.1	9.4	12.5	-	3.1	18.8	
2~3년제 대학	100.0(123)	82.1	16.3	1.6	13.8	5.7	56.9	26.0	19.5	2.4	12.2	6.5	17.9	-	-	17.9	
여대	-	-	-	-	-	-	-	-	-	-	-	-	-	-	-	16.9	
대학(공학)/대학원	100.0(445)	83.1	12.8	4.0	9.2	8.3	55.5	30.3	22.2	4.7	8.1	5.4	15.1	-	0.2	16.5	
기타	-	-	-	-	-	-	-	-	-	-	-	-	-	-	-	21.1	
잘모름	100.0(4)	100.0	-	-	25.0	25.0	25.0	50.0	25.0	25.0	-	-	-	-	-	-	
여성																	
35세 미만 소계	100.0(540)	73.7	20.9	5.4	13.1	6.1	48.7	24.6	18.5	1.3	7.2	7.4	14.4	0.2	0.2	26.3	
중학교	100.0(2)	50.0	50.0	-	-	-	50.0	-	50.0	-	-	-	-	-	-	50.0	
고교(공학)	100.0(38)	81.6	15.8	2.6	13.2	10.5	57.9	18.4	36.8	-	10.5	7.9	-	-	-	18.4	
남고/여고	100.0(41)	63.4	24.4	12.2	14.6	2.4	36.6	22.0	14.6	-	4.9	7.3	17.1	-	-	36.6	
2~3년제 대학	100.0(86)	76.7	20.9	2.3	14.0	4.7	45.3	22.1	17.4	-	3.5	9.3	20.9	-	-	23.3	
여대	100.0(36)	77.8	19.4	2.8	13.9	8.3	38.9	27.8	25.0	2.8	5.6	22.2	5.6	-	-	22.2	
대학(공학)/대학원	100.0(332)	72.6	21.4	6.0	12.7	6.3	50.6	25.9	16.3	1.8	8.1	5.4	15.1	0.3	0.3	27.4	
기타	-	-	-	-	-	-	-	-	-	-	-	-	-	-	-	-	
잘모름	100.0(5)	100.0	-	-	20.0	-	80.0	40.0	20.0	-	20.0	-	20.0	-	-	-	

*** p<.001, ** p<.01, * p<.05.

주: 결혼의 이점에 대한 내용은 중복응답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표 2-5〉 성별 학력별 결혼의 이점 유무 및 내용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유무			내용												
		있음	없음	기타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정신적 안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자녀 출산	성적 만족	생활 편리	부모 로부의 독립	부모 안심 및 주위 기대 부응	기타	무응 답	이점 없음	
남성																	
35세 미만 소계	100.0(3,667)	62.4	34.3	3.3	4.1	11.8	32.3	13.7	33.6	1.6	4.0	4.3	14.6	0.4	3.7	34.3	
중학교	100.0(178)	52.2	38.8	9.0	2.8	10.1	24.2	12.9	28.7	1.1	2.8	3.9	11.8	-	9.6	38.8	
고교(공학)	100.0(1,116)	58.4	37.9	3.7	3.8	9.9	27.2	11.6	32.9	0.8	3.6	5.1	15.7	0.5	4.5	37.9	
남고/여고	100.0(140)	59.3	35.7	5.0	4.3	15.7	29.3	6.4	24.3	2.1	4.3	11.4	14.3	-	5.7	35.7	
2~3년제 대학	100.0(579)	59.4	37.0	3.6	5.2	11.7	28.2	12.3	32.3	1.0	4.0	4.1	15.2	0.5	3.8	37.0	
여대	-	-	-	-	-	-	-	-	-	-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1,597)	68.1	29.9	2.0	4.1	13.1	38.9	16.3	36.0	2.2	4.6	3.0	14.1	0.3	2.2	29.9	
기타	100.0(14)	57.1	28.6	14.3	-	7.1	42.9	7.1	50.0	-	-	7.1	-	-	14.3	28.6	
잘모름	100.0(43)	48.8	46.5	4.7	4.7	9.3	16.3	14.0	23.3	4.7	-	7.0	16.3	-	4.7	46.5	
여성																	
35세 미만 소계	100.0(3,406)	75.1	22.0	2.8	15.1	6.1	29.7	17.6	47.7	0.3	2.2	6.3	19.1	0.6	3.3	22.0	
중학교	100.0(94)	54.3	39.4	6.4	18.1	6.4	18.1	8.5	27.7	-	1.1	3.2	18.1	-	6.4	39.4	
고교(공학)	100.0(774)	69.5	26.9	3.6	14.2	4.3	25.7	17.6	44.8	0.1	2.1	6.7	18.3	0.6	4.0	26.9	
남고/여고	100.0(129)	79.1	18.6	2.3	20.2	7.0	28.7	14.7	42.6	-	1.6	9.3	24.8	0.8	3.1	18.6	
2~3년제 대학	100.0(1,152)	77.4	19.9	2.7	12.6	6.6	30.0	18.5	49.9	0.3	2.6	6.4	21.2	0.4	3.4	19.9	
여대	100.0(248)	76.2	21.8	2.0	18.5	7.3	33.1	15.7	52.4	0.8	2.0	4.0	14.9	1.2	2.0	21.8	
대학공학/대학원	100.0(956)	79.3	18.9	1.8	16.9	6.4	33.4	18.9	49.8	0.3	2.1	6.3	18.1	0.7	2.2	18.9	
기타	100.0(13)	61.5	38.5	-	23.1	15.4	23.1	-	30.8	-	-	15.4	7.7	-	-	38.5	
잘모름	100.0(40)	52.5	30.0	17.5	12.5	5.0	20.0	10.0	27.5	-	2.5	7.5	15.0	2.5	17.5	30.0	

주: 결혼의 이점에 대한 내용은 중복응답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3. 이성교제

가. 이성교제 실태

결혼은 혼자만이 아닌 상대방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이벤트이다. 또한, 결혼은 대개 상대방과의 교제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성

과의 교제 상황은 앞으로의 결혼 이행 확률을 예측해 보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특히 결혼 적령기의 남녀에게 있어서는 더욱 정확도가 높은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표 2-6〉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교제이성 없음	친구인 이성 있음	교제이성 있음	약혼자 있음	잘 모름/ 무응답
한국						
남성	100.0(882)	49.8	16.4	29.9	3.9	-
여성	100.0(618)	48.4	16.0	30.4	5.2	-
일본						
남성	100.0(5,040)	63.8	10.0	18.9	1.6	5.7
여성	100.0(4,276)	53.1	11.4	27.5	2.8	5.2

〈표 2-6〉은 남녀의 이성교제 상황을 표시한 것이다. 교제이성이 없는 비율은 한국 남성이 66.2%, 여성이 64.4%이고, 일본 남성이 73.8%, 여성이 64.5%이다.¹⁸⁾ 이를 보면 양국 남녀 모두 교제하는 이성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본 남성은 10명중 7명 이상이 현재 교제하는 이성이 없다는 것이고, 한국 남성도 이에 못지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도 마찬가지로 10명 중 6명 이상이 교제하는 이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남성의 63.8%, 한국 남성의 49.8%는 이성인 친구도 없는 상태의 미혼자로 현재로서는 결혼 확률이 매우 낮은 층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결혼 건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 쓰이고 있는 초식남(草食男)¹⁹⁾은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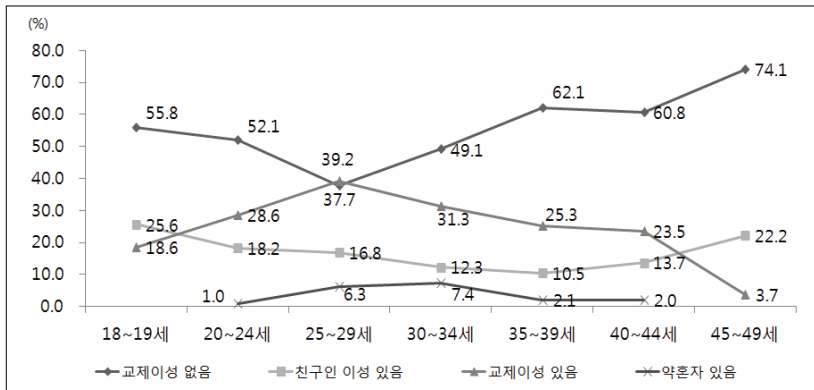
18) 여기에서 교제하는 이성이란 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구인 이성이 있는 경우에도 교제하는 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초식남은 深澤(2006)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로서, 이성간의 연애와 육체적 관계에 집

의 이런 배경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3]에서 [그림 2-6]까지는 남녀의 이성교제 상황을 연령별로 표시한 것이다. 양국 모두 예외 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성교제하는 비율이 작은 것을 알 수 있고²⁰⁾,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양국 모두 25~29세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20~29세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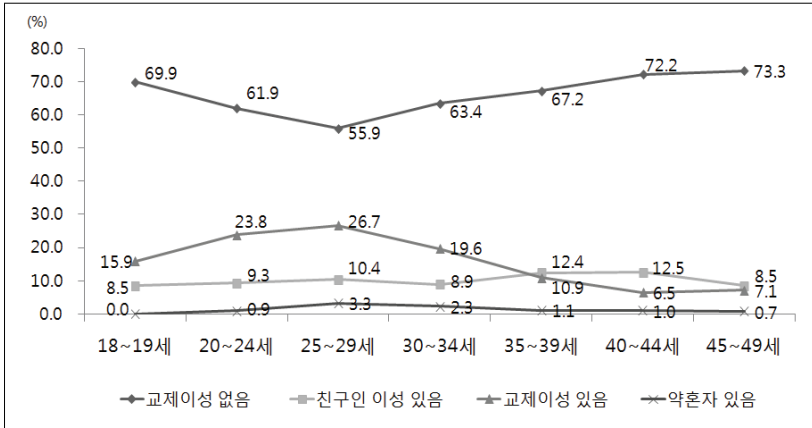
[그림 2-3]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한국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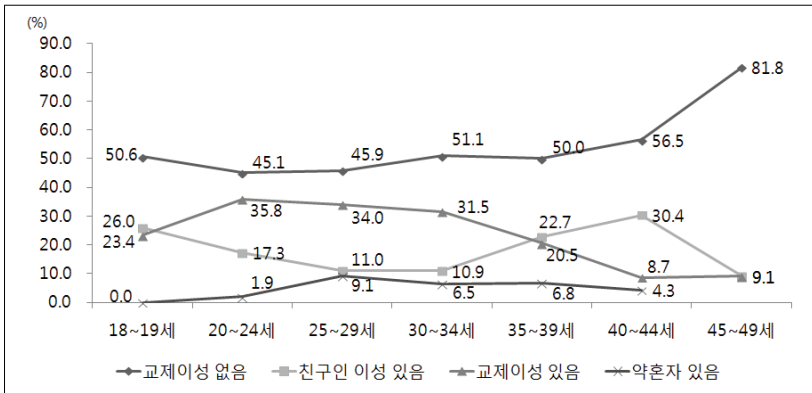
착하지 않는 남성을 말한다. 보통 초식남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교제하던 여성이나 이성의 친구로 충분히 만족을 하며, 따라서 연애와 육체적 관계에 큰 집착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 학자와 매스미디어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활동 반경이 좁은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변형되었다.

20) 이런 경향도 주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서링 효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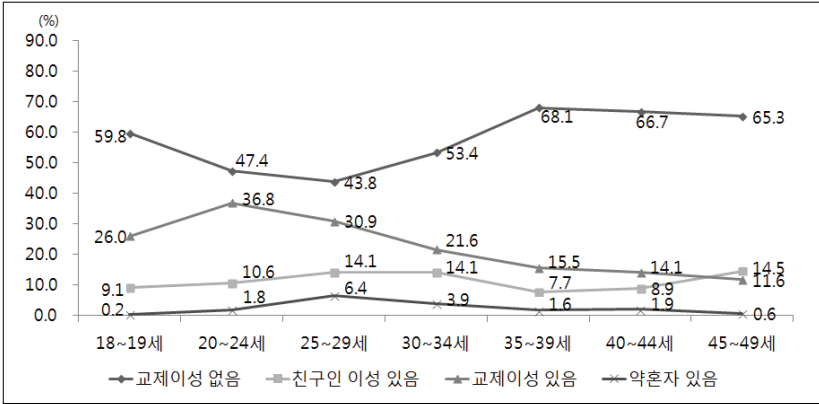
[그림 2-4]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일본남성)



[그림 2-5]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한국여성)



[그림 2-6]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 (일본여성)



<표 2-7> 성별 학력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교제이성 없음	친구인 이성 있음	교제이성 있음	약혼자 있음	χ^2
남성						
35세 미만 소계	100.0(709)	46.4	17.2	32.0	4.4	24.9
중학교	100.0(6)	33.3	50.0	16.7	-	
고교(공학)	100.0(99)	50.5	20.2	25.3	4.0	
남고/여고	100.0(32)	65.6	18.8	12.5	3.1	
2~3년제 대학	100.0(123)	48.8	13.8	31.7	5.7	
여대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445)	44.0	17.1	34.6	4.3	
기타	-	-	-	-	-	
잘모름	100.0(4)	-	-	100.0	-	
여성						
35세 미만 소계	100.0(540)	47.2	15.0	32.6	5.2	22.4
중학교	100.0(2)	-	-	100.0	-	
고교(공학)	100.0(38)	55.3	21.1	18.4	5.3	
남고/여고	100.0(41)	51.2	19.5	22.0	7.3	
2~3년제 대학	100.0(86)	50.0	10.5	31.4	8.1	
여대	100.0(36)	58.3	11.1	25.0	5.6	
대학(공학)/대학원	100.0(332)	44.0	15.1	36.7	4.2	
기타	-	-	-	-	-	
잘모름	100.0(5)	60.0	40.0	-	-	

*** p<.001, ** p<.01, * p<.05.

〈표 2-7〉, 〈표 2-8〉은 학력별 남녀의 이성교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양국 모두 학력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대졸 이상의 경우가 교제하는 이성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작고, 남고/여고 및 여대를 나온 미혼자의 이성 교제 비율이 작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표 2-8〉 성별 학력별 이성과의 교제상황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교제이성 없음	친구인 이성 있음	교제이성 있음	약혼자 있음	잘 모름/ 무응답
남성						
35세 미만 소계	100.0(3,667)	61.4	9.4	22.8	1.8	4.6
중학교	100.0(178)	60.1	7.9	20.8	1.7	9.6
고교(공학)	100.0(1,116)	63.5	10.2	19.9	1.3	5.1
남고/여고	100.0(140)	62.9	10.0	20.7	-	6.4
2~3년제 대학	100.0(579)	61.8	9.3	22.3	2.1	4.5
여대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1,597)	59.5	9.1	25.7	2.3	3.3
기타	100.0(14)	57.1	21.4	-	-	21.4
잘 모름	100.0(43)	72.1	2.3	16.3	-	9.3
여성						
35세 미만 소계	100.0(3,406)	49.5	11.9	30.9	3.1	4.6
중학교	100.0(94)	56.4	7.4	26.6	5.3	4.3
고교(공학)	100.0(774)	50.6	12.7	29.3	2.1	5.3
남고/여고	100.0(129)	55.8	10.1	28.7	1.6	3.9
2~3년제 대학	100.0(1,152)	48.2	11.0	32.8	3.3	4.7
여대	100.0(248)	55.2	9.3	27.8	2.8	4.8
대학(공학)/대학원	100.0(956)	46.8	13.8	31.7	3.9	3.9
기타	100.0(13)	53.8	15.4	23.1	-	7.7
잘 모름	100.0(40)	55.0	10.0	25.0	2.5	7.5

그렇다면 현재 이성과 교제를 하지 않은 미혼자는 이성교제에 대해 어

21) 단, 여기에서의 학력은 최종학력이기 때문에 남고/여고 이후 남녀 공학 대학에 다니는 경우와 남녀 공학 고등학교 이후에 여대에 진학하는 등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가법계 경향성 파악을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표 2-9>, <표 2-10>은 남녀의 연령별 교제희망유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남녀(남성: 64.9%, 여성: 56.5%)가 일본 남녀(남성: 53.5%, 여성: 49.8%)보다 교제를 하고 싶다는 비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성별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희망유무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교제희망	교제비희망	χ^2
남성				
계	100.0(584)	64.9	35.1	1.1
소계(35세미만)	100.0(451)	65.2	34.8	
18~19세	100.0(70)	62.9	37.1	
20~24세	100.0(135)	63.0	37.0	
25~29세	100.0(146)	67.8	32.2	
30~34세	100.0(100)	66.0	34.0	
35~39세	100.0(69)	65.2	34.8	
40~44세	100.0(38)	63.2	36.8	
45~49세	100.0(26)	61.5	38.5	
여성				
계	100.0(398)	56.5	43.5	17.3**
소계(35세미만)	100.0(336)	60.4	39.6	
18~19세	100.0(59)	61.0	39.0	
20~24세	100.0(101)	57.4	42.6	
25~29세	100.0(119)	63.0	37.0	
30~34세	100.0(57)	59.6	40.4	
35~39세	100.0(32)	34.4	65.6	
40~44세	100.0(20)	25.0	75.0	
45~49세	100.0(10)	60.0	40.0	

*** p<.001, ** p<.01, * p<.05.

그리고 양국 모두 남성의 교제의향이 더 크지만, 그 크기는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약 11% 정도 더 크다. 여성은 양국 모두 35세 이후로 교제의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카이 제곱 통계량이 유의수준 1%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의향은 35세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이성과의 교제의향도 35세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때, 이성과의 관계(결혼 및 이성교제)에 있어서 양국의 많은 여성들은 35세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표 2-10〉 성별 연령별 이성과의 교제희망유무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교제희망	교제비희망	잘 모름/ 무응답
남성				
계	100.0(3,216)	53.5	44.3	2.2
소계(35세미만)	100.0(2,252)	53.1	44.9	2.0
18~19세	100.0(304)	45.7	49.7	4.6
20~24세	100.0(841)	52.8	45.4	1.8
25~29세	100.0(602)	54.8	43.7	1.5
30~34세	100.0(505)	55.8	42.6	1.6
35~39세	100.0(412)	52.7	45.9	1.5
40~44세	100.0(346)	55.8	41.0	3.2
45~49세	100.0(206)	55.8	40.8	3.4
여성				
계	100.0(2,269)	49.8	47.7	2.6
소계(35세미만)	100.0(1,685)	51.9	45.8	2.3
18~19세	100.0(317)	42.0	55.2	2.8
20~24세	100.0(650)	49.7	48.0	2.3
25~29세	100.0(392)	58.9	39.3	1.8
30~34세	100.0(326)	57.7	39.9	2.5
35~39세	100.0(291)	51.5	45.7	2.7
40~44세	100.0(180)	42.8	53.3	3.9
45~49세	100.0(113)	23.9	72.6	3.5

나. 교제상대와 알게 된 계기 및 연령

〈표 2-11〉, 〈표 2-12〉는 양국의 3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학력별로 나타낸 것

이다. 전체적으로 교제상대와 알게 된 계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양국 모두 학교와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이하, 소개팅)이고, 한국 남성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5%, 여성은 63.7%이고, 일본 남성은 46.2%, 여성은 44.7%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 및 일관계로 만나게 되는 경우로, 한국 남녀는 약 15~16%, 일본 남녀는 약 21~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11〉 성별 학력별 교제상대와 알게 된 계기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학교	직장 및 일관 계	어린 시절 친구/ 동네 친구	동아 리/ 학원	친구 나 형제 자매 소개	선	결혼 정보 업체	길거 리/ 여행	아르 바이 트	기타	잘모 름/ 무응 답	χ^2
남성													
35세 미만 소개	100.0(258)	23.3	16.3	5.0	8.9	37.2	1.2	-	6.2	1.2	0.4	0.4	37.3
중학교	100.0(1)	-	-	-	-	100.0	-	-	-	-	-	-	
고교(공학)	100.0(29)	20.7	24.1	6.9	-	37.9	-	-	6.9	-	3.4	-	
남고/여고	100.0(5)	-	20.0	-	20.0	60.0	-	-	-	-	-	-	
2~3년제 대학	100.0(46)	17.4	15.2	6.5	8.7	37.0	-	-	10.9	2.2	-	2.2	
여대	-	-	-	-	-	-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173)	26.6	15.6	4.6	9.2	35.8	1.7	-	5.2	1.2	-	-	
기타	-	-	-	-	-	-	-	-	-	-	-	-	
잘모름	100.0(4)	-	-	-	50.0	50.0	-	-	-	-	-	-	
여성													
35세 미만 소개	100.0(204)	24.5	15.2	3.9	9.8	39.2	1.5	-	3.4	2.0	0.5	-	42.7
중학교	100.0(2)	-	50.0	-	-	50.0	-	-	-	-	-	-	
고교(공학)	100.0(9)	11.1	22.2	22.2	11.1	33.3	-	-	-	-	-	-	
남고/여고	100.0(12)	-	41.7	-	-	33.3	8.3	-	8.3	8.3	-	-	
2~3년제 대학	100.0(34)	17.6	20.6	5.9	8.8	38.2	2.9	-	2.9	2.9	-	-	
여대	100.0(11)	18.2	27.3	-	-	45.5	-	-	9.1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136)	30.1	9.6	2.9	11.8	39.7	0.7	-	2.9	1.5	0.7	-	
기타	-	-	-	-	-	-	-	-	-	-	-	-	
잘모름	-	-	-	-	-	-	-	-	-	-	-	-	

*** p<.001, ** p<.01, * p<.05.

교제상대와 알게 된 계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와 소개팅의 경우는 양국의 경향이 약간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양국 모두 소개팅으로 만난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만난 경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한국의 경우가 월등히 크다. 즉, 일본은 학교에서 만난 비율과 소개팅의 경우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개팅으로 교제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의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성교제 같은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소개팅의 권유를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永瀬·守泉, 2005), 한국의 경우는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지인에게 소개팅을 권유하거나, 소개팅을 해주도록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일본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학력별로 봤을 때 특징적인 점은 양국 모두 대졸인 여성의 경우, 다른 층보다 학교에서 만난 비율이 월등하게 높고(한국: 30.1%, 일본: 36.4%), 남성의 경우도 학교에서 만나게 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26.6%, 일본: 28.8%).

〈표 2-12〉 성별 학력별 교제상대와 알게 된 계기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학교	직장 및 일관 계	어린 시절 친구/ 동네 친구	동아 리/학 원	친구 나 형제 자매 소개	선	결혼 정보 업체	길거 리	아르 바이 트	기타	잘모 름/무 응답
남성												
35세 미만 소개	100.0(1,246)	22.3	21.7	2.8	6.8	23.9	0.5	0.3	4.9	4.7	3.3	7.5
중학교	100.0(54)	7.4	14.8	5.6	0.0	31.5	-	-	14.8	1.9	5.6	14.8
고교(공학)	100.0(350)	14.9	25.4	4.3	6.6	28.9	0.9	-	3.7	1.1	5.1	9.1
남고/여고	100.0(43)	7.0	39.5	7.0	4.7	16.3	-	-	4.7	2.3	7.0	7.0
2-3년제 대학	100.0(195)	23.1	23.1	2.1	5.1	25.1	0.5	0.5	6.7	3.1	2.6	6.7
여대	-	-	-	-	-	-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593)	28.8	18.9	1.3	8.3	20.7	0.3	0.5	4.2	7.8	1.7	5.9
기타	100.0(3)	33.3	-	-	33.3	-	-	-	-	-	-	33.3
잘모름	100.0(8)	25.0	-	25.0	-	12.5	-	-	-	12.5	25.0	12.5
여성												
35세 미만 소개	100.0(1,564)	21.4	23.2	1.8	7.5	23.3	0.6	0.4	3.5	5.6	2.4	8.1
중학교	100.0(37)	5.4	37.8	2.7	2.7	27.0	-	-	5.4	5.4	2.7	2.7
고교(공학)	100.0(341)	12.9	29.6	2.9	3.2	23.8	1.2	0.6	4.4	5.0	4.1	10.6
남고/여고	100.0(52)	1.9	28.8	1.9	3.8	26.9	-	1.9	3.8	7.7	1.9	17.3
2-3년제 대학	100.0(543)	18.2	20.6	1.5	6.4	30.9	0.4	0.4	3.5	5.0	1.8	7.4
여대	100.0(99)	14.1	18.2	1.0	12.1	30.3	-	-	3.0	9.1	1.0	8.1
대학(공학)/대학원	100.0(472)	36.4	20.6	1.3	11.7	12.3	0.6	0.4	2.8	5.7	1.9	6.1
기타	100.0(5)	20.0	60.0	-	-	-	-	-	-	-	-	20.0
잘모름	100.0(15)	13.3	20.0	6.7	6.7	20.0	-	-	-	13.3	6.7	20.0

〈표 2-13〉, 〈표 2-14〉는 본인의 연령과 상대방의 연령을 2세 구분으로 매치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양국의 선호 연령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본인과 교제상대의 나이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여 대각선을 그어 보면, 한국 남성의 경우 20세 전후를 제외하고는 오른쪽의 비율이 매우 작다. 반면, 한국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반대로 왼쪽의 비율이 매우 작다. 이는 남성은 연상과 교제하는 비율이 작은 것이고, 여성은 연하와 교제하는 비율이 작은 것을 나타낸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대각선을 긋고 형태를 살펴보면, 동 비율이 한국보다는 약간 크고, 분포도 넓은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월등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연하의 여성, 여성은 연상의 남성과 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분포가 크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13〉 성별 연령별 교제상대 연령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16~17세	18~19세	20~21세	22~23세	24~25세	26~27세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37세	38~39세	40~41세	42~43세	44~45세	46~47세	48~49세	무응답
남성($\chi^2=889.6^{***}$)																			
계	100.0 (298)	0.3	5.7	11.7	14.4	17.8	14.8	14.1	10.4	4.4	2.0	1.7	1.0	0.7	0.3	0.3	0.3	-	-
18~19세	100.0 (16)	6.3	75.0	12.5	-	-	6.3	-	-	-	-	-	-	-	-	-	-	-	-
20~21세	100.0 (17)	-	23.5	52.9	17.6	5.9	-	-	-	-	-	-	-	-	-	-	-	-	-
22~23세	100.0 (28)	-	3.6	42.9	35.7	10.7	3.6	3.6	-	-	-	-	-	-	-	-	-	-	-
24~25세	100.0 (34)	-	-	8.8	35.3	50.0	5.9	-	-	-	-	-	-	-	-	-	-	-	-
26~27세	100.0 (48)	-	-	6.3	22.9	33.3	25.0	8.3	4.2	-	-	-	-	-	-	-	-	-	-
28~29세	100.0 (52)	-	-	5.8	7.7	13.5	30.8	32.7	7.7	1.9	-	-	-	-	-	-	-	-	-
30~31세	100.0 (31)	-	-	-	-	12.9	19.4	22.6	35.5	6.5	3.2	-	-	-	-	-	-	-	-
32~33세	100.0 (25)	-	-	4.0	4.0	12.0	16.0	16.0	32.0	16.0	-	-	-	-	-	-	-	-	-
34~35세	100.0 (19)	-	-	10.5	5.3	-	5.3	26.3	10.5	10.5	21.1	10.5	-	-	-	-	-	-	-
36~37세	100.0 (7)	-	-	-	14.3	-	-	42.9	14.3	28.6	-	-	-	-	-	-	-	-	-
38~39세	100.0 (7)	-	-	-	-	14.3	-	14.3	28.6	14.3	-	28.6	-	-	-	-	-	-	-
40~41세	100.0 (5)	-	-	-	-	20.0	-	-	20.0	-	-	20.0	40.0	-	-	-	-	-	-
42~43세	100.0 (7)	-	-	-	-	-	-	-	14.3	-	-	14.3	28.6	14.3	14.3	14.3	-	-	-
44~45세	100.0 (1)	-	-	-	-	-	100.0	-	-	-	-	-	-	-	-	-	-	-	-
46~47세	-	-	-	-	-	-	-	-	-	-	-	-	-	-	-	-	-	-	-
48~49세	100.0 (1)	-	-	-	-	-	-	-	-	-	100.0	-	-	-	-	-	-	-	-
여성($\chi^2=835.7^{***}$)																			
계	100.0 (220)	0.5	5.0	6.4	7.3	10.5	16.8	15.9	18.2	6.4	4.5	0.9	3.6	1.4	1.4	-	-	0.5	0.9
18~19세	100.0 (18)	5.6	50.0	11.1	5.6	16.7	11.1	-	-	-	-	-	-	-	-	-	-	-	-
20~21세	100.0 (26)	-	7.7	42.3	23.1	15.4	3.8	-	-	-	3.8	-	-	-	-	-	-	-	3.8
22~23세	100.0 (25)	-	-	4.0	32.0	12.0	20.0	24.0	-	-	-	-	-	4.0	-	-	-	-	4.0
24~25세	100.0 (26)	-	-	-	-	23.1	30.8	11.5	30.8	3.8	-	-	-	-	-	-	-	-	-
26~27세	100.0 (46)	-	-	-	2.2	13.0	32.6	23.9	19.6	8.7	-	-	-	-	-	-	-	-	-
28~29세	100.0 (28)	-	-	-	-	17.9	42.9	35.7	3.6	-	-	-	-	-	-	-	-	-	-
30~31세	100.0 (25)	-	-	-	-	4.0	12.0	44.0	8.0	8.0	8.0	8.0	-	8.0	-	-	-	-	-
32~33세	100.0 (9)	-	-	-	-	-	-	-	11.1	55.6	11.1	-	22.2	-	-	-	-	-	-
34~35세	100.0 (7)	-	-	-	-	-	-	-	-	-	71.4	-	28.6	-	-	-	-	-	-
36~37세	100.0 (5)	-	-	-	-	-	-	-	20.0	20.0	20.0	-	40.0	-	-	-	-	-	-
38~39세	100.0 (1)	-	-	-	-	100.0	-	-	-	-	-	-	-	-	-	-	-	-	-
40~41세	-	-	-	-	-	-	-	-	-	-	-	-	-	-	-	-	-	-	-
42~43세	100.0 (3)	-	-	-	-	-	-	-	-	-	-	-	-	66.7	33.3	-	-	-	-
44~45세	-	-	-	-	-	-	-	-	-	-	-	-	-	-	-	-	-	-	-
46~47세	-	-	-	-	-	-	-	-	-	-	-	-	-	-	-	-	-	-	-
48~49세	100.0 (1)	-	-	-	-	-	-	-	-	-	-	-	-	-	-	-	-	100.0	-

*** p<.001, ** p<.01, * p<.05.

6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표 2-14〉 성별 연령별 교제상대 연령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16세 미만	16~17세	18~19세	20~21세	22~23세	24~25세	26~27세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37세	38~39세	40~41세	42~43세	44~45세	46~47세	48~49세	50세 이상	무응답
남성																					
계	100.0(953)	0.2	1.8	9.0	14.7	13.9	15.3	8.3	8.1	6.5	4.1	1.7	2.1	1.7	1.4	1.2	0.4	0.6	0.1	0.2	8.9
18~19세	100.0(69)	1.4	17.4	56.5	14.5	-	-	-	-	-	-	-	-	-	-	-	-	-	-	-	10.1
20~21세	100.0(132)	0.8	1.5	20.5	50.8	14.4	2.3	0.8	-	-	0.8	-	-	-	-	-	-	-	-	-	8.3
22~23세	100.0(133)	-	0.8	6.8	26.3	39.8	12.0	2.3	2.3	-	-	-	-	0.8	-	-	0.8	-	-	-	8.3
24~25세	100.0(126)	-	1.6	5.6	8.7	20.6	42.1	5.6	4.0	2.4	1.6	-	-	-	-	-	-	-	-	-	7.9
26~27세	100.0(118)	-	-	2.5	7.6	10.2	25.4	24.6	8.5	5.9	1.7	-	0.8	-	0.8	1.7	-	-	-	-	10.2
28~29세	100.0(101)	-	-	-	5.0	10.9	22.8	15.8	21.8	8.9	5.0	1.0	1.0	3.0	-	-	-	-	-	-	5.0
30~31세	100.0(74)	-	-	1.4	1.4	8.1	10.8	18.9	21.6	18.9	5.4	2.7	4.1	2.7	1.4	-	-	-	-	-	2.7
32~33세	100.0(61)	-	-	-	1.6	3.3	8.2	8.2	14.8	19.7	18.0	4.9	3.3	1.6	3.3	-	-	-	-	-	13.1
34~35세	100.0(34)	-	-	-	-	2.9	8.8	-	14.7	20.6	14.7	5.9	11.8	-	5.9	-	-	2.9	-	-	11.8
36~37세	100.0(30)	-	-	-	-	3.3	10.0	13.3	10.0	13.3	16.7	6.7	6.7	6.7	3.3	3.3	-	3.3	-	-	3.3
38~39세	100.0(24)	-	-	-	-	-	8.3	-	4.2	12.5	12.5	12.5	8.3	12.5	4.2	-	4.2	4.2	-	-	16.7
40~41세	100.0(15)	-	-	-	-	6.7	-	-	6.7	6.7	-	13.3	20.0	-	13.3	6.7	-	13.3	6.7	-	6.7
42~43세	100.0(12)	-	-	-	-	-	-	-	8.3	16.7	8.3	-	16.7	8.3	-	16.7	-	-	-	8.3	16.7
44~45세	100.0(8)	-	-	-	-	-	-	-	12.5	-	-	-	-	25.0	12.5	25.0	-	-	-	12.5	12.5
46~47세	100.0(10)	-	-	-	10.0	-	-	-	-	-	-	-	-	10.0	20.0	-	-	10.0	-	-	50.0
48~49세	100.0(6)	-	-	-	-	-	-	-	-	-	-	-	-	-	-	50.0	33.3	-	-	-	16.7
여성																					
계	100.0(1,176)	0.4	1.4	6.5	12.8	12.2	13.7	9.2	7.7	6.2	4.8	3.8	3.7	2.6	1.5	0.6	1.1	0.7	0.4	2.4	8.2
18~19세	100.0(138)	0.7	7.2	34.8	28.3	8.0	5.1	2.9	-	1.4	0.7	0.7	-	-	-	-	-	-	-	-	10.1
20~21세	100.0(200)	1.0	1.0	7.5	39.5	20.0	13.5	4.0	2.5	3.5	1.0	0.5	1.0	-	0.5	-	-	-	-	-	4.5
22~23세	100.0(213)	0.5	0.5	2.8	9.9	31.9	23.5	12.2	4.7	3.3	0.9	2.3	0.9	0.9	-	0.5	-	-	-	-	5.2
24~25세	100.0(166)	-	0.6	3.6	3.6	11.4	32.5	13.3	10.2	7.8	2.4	3.6	1.2	1.8	-	0.6	-	-	-	0.6	6.6
26~27세	100.0(124)	0.8	1.6	0.8	3.2	4.0	11.3	29.0	19.4	5.6	5.6	2.4	1.6	0.8	0.8	0.8	0.8	-	-	-	11.3
28~29세	100.0(79)	-	-	1.3	1.3	1.3	7.6	7.6	22.8	16.5	10.1	5.1	10.1	1.3	2.5	-	-	-	-	1.3	11.4
30~31세	100.0(67)	-	-	-	1.5	-	3.0	1.5	10.4	19.4	19.4	11.9	10.4	6.0	3.0	-	1.5	1.5	1.5	1.5	7.5
32~33세	100.0(40)	-	-	-	-	-	2.5	5.0	12.5	12.5	15.0	15.0	5.0	7.5	2.5	-	5.0	5.0	-	2.5	10.0
34~35세	100.0(44)	-	-	-	-	-	-	-	6.8	6.8	13.6	9.1	22.7	9.1	9.1	-	4.5	2.3	2.3	2.3	11.4
36~37세	100.0(26)	-	-	-	-	-	-	7.7	3.8	-	19.2	7.7	15.4	30.8	7.7	-	3.8	-	-	-	3.8
38~39세	100.0(21)	-	-	-	-	-	-	-	9.5	9.5	9.5	4.8	4.8	9.5	4.8	9.5	4.8	4.8	4.8	14.3	14.3
40~41세	100.0(14)	-	-	-	-	-	-	-	-	-	-	-	7.1	21.4	7.1	7.1	7.1	-	7.1	28.6	14.3
42~43세	100.0(18)	-	-	-	-	-	-	5.6	-	5.6	-	11.1	5.6	-	-	11.1	16.7	-	-	33.3	11.1
44~45세	100.0(12)	-	-	-	-	-	-	-	-	-	-	8.3	16.7	-	16.7	-	-	8.3	-	16.7	33.3
46~47세	100.0(5)	-	-	-	-	-	-	-	-	-	-	-	-	-	-	-	-	40.0	-	60.0	-
48~49세	100.0(9)	-	-	-	-	-	-	-	-	-	-	-	-	-	-	-	-	-	11.1	55.6	33.3

다. 결혼의 장애

〈표 2-15〉, 〈표 2-16〉은 1년 이내에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미혼자들의 응답을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²²⁾

〈표 2-15〉 성별 연령별 결혼의 장애 유무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장애있음	장애없음	χ^2
남성				
계	100.0(207)	50.7	49.3	
소계(35세미만)	100.0(176)	55.7	44.3	
18~19세	100.0(5)	100.0	-	
20~24세	100.0(27)	66.7	33.3	
25~29세	100.0(91)	56.0	44.0	20.1**
30~34세	100.0(53)	45.3	54.7	
35~39세	100.0(18)	16.7	83.3	
40~44세	100.0(12)	33.3	66.7	
45~49세	100.0(1)	-	100.0	
여성				
계	100.0(143)	49.0	51.0	
소계(35세미만)	100.0(132)	50.8	49.2	
18~19세	100.0(5)	60.0	40.0	
20~24세	100.0(36)	61.1	38.9	
25~29세	100.0(69)	53.6	46.4	11.2*
30~34세	100.0(22)	22.7	77.3	
35~39세	100.0(8)	25.0	75.0	
40~44세	100.0(3)	33.3	66.7	
45~49세	-	-	-	

*** p<.001, ** p<.01, * p<.05.

22) 단, 한국은 현재 교제상대가 있는 경우의 장애 유무 및 그 내용에 대해 응답을 받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고 응답한 미혼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가 일본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16〉 성별 연령별 결혼의 장애 유무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장애있음	장애없음	기타
남성				
계	100.0(4,134)	65.1	28.3	6.6
소계(35세미만)	100.0(3,164)	68.1	26.4	5.5
18~19세	100.0(366)	79.8	15.0	5.2
20~24세	100.0(1,196)	72.1	22.2	5.7
25~29세	100.0(949)	65.1	29.9	5.0
30~34세	100.0(653)	58.7	35.2	6.1
35~39세	100.0(466)	55.6	35.4	9.0
40~44세	100.0(341)	54.0	34.0	12.0
45~49세	100.0(163)	58.3	33.1	8.6
여성				
계	100.0(3,603)	68.4	26.6	5.1
소계(35세미만)	100.0(3,044)	71.5	23.8	4.8
18~19세	100.0(474)	82.1	11.6	6.3
20~24세	100.0(1,253)	78.1	17.0	4.9
25~29세	100.0(799)	64.5	32.2	3.4
30~34세	100.0(518)	56.4	38.4	5.2
35~39세	100.0(317)	48.9	44.5	6.6
40~44세	100.0(164)	54.9	38.4	6.7
45~49세	100.0(78)	55.1	38.5	6.4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남녀(남성: 50.7%, 여성:49.0%)보다 일본 남녀(남성: 65.1%, 여성: 68.4%)가 결혼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양국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미혼 남녀에게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나타낸 것이 〈표 2-17〉, 〈표 2-18〉로, 장애가 있을 경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연령별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남녀의 경우 결혼자금(남성: 49.5%, 여성: 32.9%)과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 문제(남성: 19.0%, 여성: 15.7%)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 응답하였고, 일본 남녀는 결혼자금(남성: 45.2%, 여성: 37.6%)과 직업 또는 일의 문제(남성: 12.5%, 여성: 12.3%)라는 응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7〉 성별 연령별 결혼의 최대 장애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 생활을 위한 주거	결혼 자금	부모의 승낙	부모 와의 동거 또는 부양	학교 또는 학업 상의 문제	직업 또는 일의 문제	연령 상의 문제	기타	잘 모름 /무 응답	χ^2
남성											
계	100.0(105)	19.0	49.5	5.7	1.9	7.6	9.5	4.8	1.9	-	
소계(35세미만)	100.0(98)	19.4	50.0	5.1	2.0	8.2	10.2	5.1	-	-	
18~19세	100.0(5)	-	40.0	-	-	20.0	-	40.0	-	-	
20~24세	100.0(18)	11.1	50.0	-	-	16.7	22.2	-	-	-	
25~29세	100.0(51)	25.5	56.9	-	-	7.8	5.9	3.9	-	-	105.4***
30~34세	100.0(24)	16.7	37.5	20.8	8.3	-	12.5	4.2	-	-	
35~39세	100.0(3)	33.3	33.3	33.3	-	-	-	-	-	-	
40~44세	100.0(4)	-	50.0	-	-	-	-	-	50.0	-	
45~49세	-	-	-	-	-	-	-	-	-	-	
여성											
계	100.0(70)	15.7	32.9	8.6	4.3	14.3	14.3	5.7	2.9	1.4	
소계(35세미만)	100.0(67)	16.4	34.3	7.5	3.0	14.9	13.4	6.0	3.0	1.5	
18~19세	100.0(3)	-	33.3	-	-	33.3	-	33.3	-	-	
20~24세	100.0(22)	4.5	36.4	-	4.5	13.6	18.2	13.6	4.5	4.5	
25~29세	100.0(37)	21.6	32.4	13.5	2.7	13.5	13.5	-	2.7	-	49.3
30~34세	100.0(5)	40.0	40.0	-	-	20.0	-	-	-	-	
35~39세	100.0(2)	-	-	-	50.0	-	50.0	-	-	-	
40~44세	100.0(1)	-	-	100.0	-	-	-	-	-	-	
45~49세	-	-	-	-	-	-	-	-	-	-	

*** p<.001, ** p<.01, * p<.05.

〈표 2-18〉 성별 연령별 결혼의 최대 장애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결혼 생활 을 위한 주거	결혼 자금	부모 의 승낙	부모 와의 동거 또는 부양	학교 또는 학업 상의 문제	직업 또는 일의 문제	연령 상의 문제	건강 상의 문제	기타	잘 모름/ 무응답
남성											
계	100.0(2,693)	11.3	45.2	6.9	5.9	10.1	12.5	3.7	2.5	1.4	0.7
소계(35세미만)	100.0(2,155)	11.6	48.1	6.8	3.9	12.6	12.2	1.5	1.3	1.3	0.6
18~19세	100.0(292)	11.0	30.8	9.9	1.4	34.6	4.5	5.1	0.7	0.7	1.4
20~24세	100.0(862)	10.6	49.8	5.5	2.3	18.1	11.0	1.0	0.6	0.7	0.5
25~29세	100.0(618)	12.5	53.4	6.5	5.0	1.8	15.7	0.5	1.8	2.1	0.8
30~34세	100.0(383)	13.3	49.1	8.1	7.6	0.8	15.1	1.6	2.6	1.6	0.3
35~39세	100.0(259)	10.8	39.8	8.9	10.0	-	14.7	5.8	7.3	2.3	0.4
40~44세	100.0(184)	8.7	26.1	5.4	17.4	-	15.2	14.1	9.2	2.2	1.6
45~49세	100.0(95)	8.4	31.6	5.3	17.9	-	7.4	26.3	2.1	1.1	-
여성											
계	100.0(2,463)	7.8	37.6	12.1	7.5	12.8	12.3	3.5	3.2	2.9	0.4
소계(35세미만)	100.0(2,175)	7.6	40.5	12.8	5.8	14.4	1.2	1.8	2.0	2.5	0.3
18~19세	100.0(389)	5.9	24.4	16.5	0.8	41.4	4.4	5.9	-	0.5	0.3
20~24세	100.0(979)	8.4	45.3	12.2	3.5	14.8	12.4	0.9	1.1	1.4	0.1
25~29세	100.0(515)	8.2	45.4	12.4	7.6	0.8	16.9	0.2	3.1	4.7	0.8
30~34세	100.0(292)	6.5	37.0	10.6	17.5	1.4	14.4	2.1	5.5	4.8	0.3
35~39세	100.0(155)	10.3	19.4	9.7	15.5	-	17.4	10.3	11.6	4.5	1.3
40~44세	100.0(90)	7.8	14.4	5.6	16.7	-	7.8	24.4	17.8	5.6	-
45~49세	100.0(43)	7.0	4.7	2.3	41.9	2.3	4.7	18.6	7.0	11.6	-

이를 보면 양국 모두 결혼자금, 즉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당장(1년 이내) 결혼을 할 경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주거비용의 증가로 인해 주거 문제가 그 다음 장애 요인인 반면, 일본은 직업 또는 일의 문제가 결혼자금 다음으로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같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고, 자신의 집을 짓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월세로 생활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감이 한국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²³⁾, 결혼 장애요인 중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한국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부모와의 동거

山田(1999)는 학교(최종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본의 미혼자들을 파라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이라 명명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소득의 기준이 자신이 아닌 부모, 즉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지만, 동 연령대의 남성 중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사이트 싱글 여성의 만혼화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립(2013)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고연령대(30대) 남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행 확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있어서 부모와의 동거는 미혼자의 결혼이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양국의 미혼남녀들이 어느 정도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표 2-19>는 35세 미만의 미혼남녀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연령별로 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한국 남녀(남성: 66.3%, 여성: 70.6%)보다 일본 남녀(남성: 69.7%, 여성: 77.2%)의 비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23) 일본의 월세는 물건(物件)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월세의 1개월분을 부동산 소개비로, 또 2개월분을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명목으로 주는 사례금(礼金), 그리고 2개월분을 보증금(敷金)으로 지불하고, 당월 월세까지 합하여 대략 월세의 6개월분을 선 지급하고 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 월세가 7만엔일 경우, 6개월분인 42만엔을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단, 화재보험, 청소비등을 별도로 청구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싸지고, 보증금 2개월분은 퇴거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대개 이렇게 월세를 계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시 주거에 대한 부담은 한국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표 2-19〉 성별 연령별 부모님과 동거유무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동거	비동거	양친 사망	잘모름/ 무응답	χ^2
한국						
남성						
소계(35세미만)	100.0(709)	66.3	32.2	1.6	-	52.7***
18~19세	100.0(86)	83.7	16.3	-	-	
20~24세	100.0(192)	75.5	24.5	-	-	
25~29세	100.0(268)	66.4	31.7	1.9	-	
30~34세	100.0(163)	46.0	50.3	3.7	-	
여성						
소계(35세미만)	100.0(540)	70.6	29.4	-	-	22.0***
18~19세	100.0(77)	90.9	9.1	-	-	
20~24세	100.0(162)	68.5	31.5	-	-	
25~29세	100.0(209)	69.9	30.1	-	-	
30~34세	100.0(92)	58.7	41.3	-	-	
일본						
남성						
소계(35세미만)	100.0(3,667)	69.7	25.4	0.3	4.6	-
18~19세	100.0(435)	72.9	22.1	-	5.1	
20~24세	100.0(1,359)	66.4	28.0	0.1	5.4	
25~29세	100.0(1,076)	69.0	27.3	0.1	3.6	
30~34세	100.0(797)	74.4	20.3	1.0	4.3	
여성						
소계(35세미만)	100.0(3,406)	77.2	20.0	0.2	2.6	-
18~19세	100.0(530)	71.5	24.5	-	4.0	
20~24세	100.0(1,371)	77.3	20.5	-	2.2	
25~29세	100.0(895)	78.2	19.2	0.2	2.3	
30~34세	100.0(610)	80.3	16.2	0.8	2.6	

*** p<.001, ** p<.01, * p<.05.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양국이 약간 다른 경향이 보이는데, 한국 남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작아지는 반면, 일본 남녀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30~34세의 양국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본 남성은 한국 남성의 약 1.6배(한국: 46.0%, 일본: 74.4%), 일본 여성은 한국 여성의 약 1.4배(한국: 58.7%, 일본: 80.3%) 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西·萱(2007)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의 완전 실업률이 동 연령대의 전체 완전 실업률보다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클 가능성이 있다.

〈표 2-20〉 성별 학력별 부모님과 동거유무별 미혼남녀(한국)

(단위 : %, 명)

구분	전체	동거	비동거	양친 사망	χ^2
남성					
35세 미만 소계	100.0(709)	66.3	32.2	1.6	
중학교	100.0(6)	66.7	33.3	-	
고교(공학)	100.0(99)	64.6	29.3	6.1	
남고/여고	100.0(32)	71.9	25.0	3.1	
2~3년제 대학	100.0(123)	69.9	30.1	-	19.1*
여대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445)	65.4	33.7	0.9	
기타	-	-	-	-	
잘모름	100.0(4)	50.0	50.0	-	
여성					
35세 미만 소계	100.0(540)	70.6	29.4	-	
중학교	100.0(2)	100.0	-	-	
고교(공학)	100.0(38)	73.7	26.3	-	
남고/여고	100.0(41)	82.9	17.1	-	
2~3년제 대학	100.0(86)	74.4	25.6	-	9.5
여대	100.0(36)	80.6	19.4	-	
대학(공학)/대학원	100.0(332)	66.3	33.7	-	
기타	-	-	-	-	
잘모름	100.0(5)	80.0	20.0	-	

*** p<.001, ** p<.01, * p<.05.

〈표 2-20〉, 〈표 2-21〉은 학력별로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양국의 공통점은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일본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졸 이상의 부모 동거 비율이 평균보다 약 10% 이상 작은 반면에, 고등학교

를 졸업한 남성은 평균보다 약 10%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 성별 학력별 부모님과 동거유무별 미혼남녀(일본)

(단위 : %, 명)

구분	전체	동거	비동거	양친 사망	잘모름/무응답
남성					
35세 미만 소계	100.0(3,667)	69.7	25.4	0.3	4.6
중학교	100.0(178)	74.2	11.8	1.1	12.9
고교(공학)	100.0(1,116)	79.3	15.2	0.3	5.2
남고/여고	100.0(140)	85.0	11.4	0.7	2.9
2~3년제 대학	100.0(579)	75.5	19.0	-	5.5
여대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1,597)	58.9	38.0	0.2	2.9
기타	100.0(14)	92.9	-	7.1	-
잘모름	100.0(43)	67.4	20.9	-	11.6
여성					
35세 미만 소계	100.0(3,406)	77.2	20.0	0.2	2.6
중학교	100.0(94)	83.0	13.8	1.1	2.1
고교(공학)	100.0(774)	79.1	18.6	0.1	2.2
남고/여고	100.0(129)	86.0	11.6	0.8	1.6
2~3년제 대학	100.0(1,152)	81.3	15.4	0.3	3.1
여대	100.0(248)	76.2	21.4	-	2.4
대학(공학)/대학원	100.0(956)	70.1	28.2	0.1	1.6
기타	100.0(13)	84.6	-	-	15.4
잘모름	100.0(40)	55.0	25.0	-	20.0

이 결과를 보면, 〈표 2-19〉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대부분의 미혼자는 대졸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과 소득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크다고 할 수 있고, 西·營(2007)이 지적한 것처럼 실업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반면, 한국 남성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일본처럼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 증가로 인한 고학력화를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고, 이것은 곧 학력과 소득간의 상관관계가 일본보다 약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상세한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가치관

가.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일본인들에게는 「3세아 신화(3歳児神話)」라고 해서, 「아이가 3살 정도가 될 때까지 엄마가 키우지 않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양국의 미혼남녀에게 질문한 내용은 「가능한 한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으로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의 4가지 척도로 조사했다.

〈표 2-22〉는 상술한 설문지의 응답을 남녀의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국의 미혼 남녀 모두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의 비율을 보면, 한국 남녀가 일본 남녀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한국 남성: 83.9%, 한국 여성: 90.9%, 일본 남성: 73.4%, 일본 여성: 75.3%), 이는 일본의 「3세아 신화」에 못지않게 한국에도 엄마와 어린자녀 간의 애착형성의 중요성이나 직접적인 양육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미혼 남녀의 어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생각이 일본과 유사함을 넘어 어머니의 어린자녀양육을 찬성하는 응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표 2-22〉 성별 연령별 어린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가능한 한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χ^2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잘모름/ 무응답		
한국								
남성								
계(35세미만)	100.0(709)	36.7	47.2	11.7	3.0	1.4	21.5*	
18~19세	100.0(86)	32.6	50.0	14.0	2.3	1.2		
20~24세	100.0(192)	33.3	44.8	17.2	3.6	1.0		
25~29세	100.0(268)	38.1	48.1	11.2	1.1	1.5		
30~34세	100.0(163)	40.5	47.2	4.9	5.5	1.8		
여성								
계(35세미만)	100.0(540)	36.1	54.8	7.0	1.5	0.6	9.8	
18~19세	100.0(77)	27.3	59.7	9.1	2.6	1.3		
20~24세	100.0(162)	35.8	54.3	8.0	1.9	-		
25~29세	100.0(209)	39.2	52.6	6.7	0.5	1.0		
30~34세	100.0(92)	37.0	56.5	4.3	2.2	-		
일본								
남성								
계(35세미만)	100.0(3,667)	22.4	51.0	17.9	5.1	3.7	-	
18~19세	100.0(435)	23.0	51.5	15.2	5.3	5.1		
20~24세	100.0(1,359)	22.8	51.9	17.5	4.9	2.9		
25~29세	100.0(1,076)	20.1	51.9	19.1	5.4	3.5		
30~34세	100.0(797)	24.3	47.9	18.2	4.9	4.6		
여성								
계(35세미만)	100.0(3,406)	26.2	49.1	16.4	5.1	3.2	-	
18~19세	100.0(530)	25.7	50.9	16.6	4.3	2.5		
20~24세	100.0(1,371)	29.0	49.5	14.9	3.6	3.1		
25~29세	100.0(895)	25.8	47.4	16.8	7.0	3.0		
30~34세	100.0(610)	21.1	49.5	18.9	6.2	4.3		

*** p<.001, ** p<.01, * p<.05.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한국 남녀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엄마가 어린 자녀를 집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에 비하여, 일본 남녀는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별 결과와 소득별 결과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의 비율을 보면(표 2-23, 표 2-24 참조), 양국 모두 학력과 소득 요인과 어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생각간의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표 2-23〉 성별 학력별 어린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가능한 한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χ^2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잘모름/ 무응답	
한국							
남성							
계(35세 미만)	100.0(709)	36.7	47.2	11.7	3.0	1.4	
중학교	100.0(6)	33.3	50.0	16.7	-	-	
고교(공학)	100.0(99)	29.3	53.5	11.1	3.0	3.0	
남고/여고	100.0(32)	43.8	34.4	21.9	-	-	
2-3년제 대학	100.0(123)	39.8	43.9	8.9	4.9	2.4	33.1*
여대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445)	36.9	47.9	11.9	2.7	0.7	
기타	-	-	-	-	-	-	
잘모름	100.0(4)	50.0	25.0	-	-	25.0	
여성							
계(35세 미만)	100.0(540)	36.1	54.8	7.0	1.5	0.6	
중학교	100.0(2)	-	100.0	-	-	-	
고교(공학)	100.0(38)	31.6	55.3	10.5	-	2.6	
남고/여고	100.0(41)	48.8	39.0	9.8	2.4	-	
2-3년제 대학	100.0(86)	39.5	48.8	9.3	1.2	1.2	26.6
여대	100.0(36)	30.6	50.0	11.1	5.6	2.8	
대학(공학)/대학원	100.0(332)	35.2	58.1	5.4	1.2	-	
기타	-	-	-	-	-	-	
잘모름	100.0(5)	20.0	80.0	-	-	-	
일본							
남성							
계(35세 미만)	100.0(3,667)	22.4	51.0	17.9	5.1	3.7	
중학교	100.0(178)	29.8	42.1	15.2	3.4	9.6	
고교(공학)	100.0(1,116)	23.2	50.4	17.5	4.4	4.6	
남고/여고	100.0(140)	26.4	52.1	15.0	2.9	3.6	
2-3년제 대학	100.0(579)	20.0	52.5	18.8	5.2	3.5	-
여대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1,597)	21.7	52.2	18.0	5.7	2.4	
기타	100.0(14)	7.1	35.7	28.6	7.1	21.4	
잘모름	100.0(43)	16.3	39.5	25.6	11.6	7.0	
여성							
계(35세 미만)	100.0(3,406)	26.2	49.1	16.4	5.1	3.2	
중학교	100.0(94)	34.0	45.7	12.8	4.3	3.2	
고교(공학)	100.0(774)	28.6	49.9	12.8	3.9	4.9	
남고/여고	100.0(129)	24.0	51.9	14.0	7.0	3.1	
2-3년제 대학	100.0(1,152)	28.6	48.7	15.3	4.8	2.7	-
여대	100.0(248)	29.0	48.4	14.5	5.6	2.4	
대학(공학)/대학원	100.0(956)	20.4	49.6	21.7	6.3	2.1	
기타	100.0(13)	15.4	53.8	23.1	7.7	-	
잘모름	100.0(40)	27.5	40.0	15.0	2.5	15.0	

*** p<.001, ** p<.01, * p<.05.

〈표 2-24〉 성별 지난해 소득별 어린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가능한 한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χ^2
		매우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잘모름/ 무응답		
한국								
남성								
계(35세 미만)	100.0(408)	39.2	46.6	9.8	2.7	1.7	36.7	
0~999만원	100.0(44)	45.5	43.2	11.4	-	-		
1000만원대	100.0(61)	32.8	47.5	14.8	3.3	1.6		
2000만원대	100.0(114)	30.7	55.3	8.8	4.4	0.9		
3000만원대	100.0(85)	45.9	45.9	4.7	-	3.5		
4000만원대	100.0(36)	47.2	30.6	16.7	5.6	-		
5000만원대	100.0(22)	59.1	31.8	9.1	-	-		
6000만원이상	100.0(17)	47.1	47.1	5.9	-	-		
잘모름/무응답	100.0(29)	27.6	48.3	10.3	6.9	6.9		
여성								
계(35세 미만)	100.0(299)	42.8	50.8	5.4	0.7	0.3	55.5***	
0~999만원	100.0(57)	36.8	52.6	8.8	1.8	-		
1000만원대	100.0(71)	53.5	43.7	1.4	-	1.4		
2000만원대	100.0(99)	43.4	51.5	5.1	-	-		
3000만원대	100.0(36)	33.3	58.3	8.3	-	-		
4000만원대	100.0(7)	42.9	42.9	-	14.3	-		
5000만원대	100.0(4)	-	100.0	-	-	-		
6000만원이상	100.0(1)	-	-	100.0	-	-		
잘모름/무응답	100.0(24)	45.8	50.0	4.2	-	-		
일본								
남성								
계(35세 미만)	100.0(2,369)	21.7	51.9	18.5	5.3	2.7	-	
0~99만엔	100.0(304)	22.4	49.3	19.1	7.2	2.0		
100만엔대	100.0(342)	19.9	54.1	18.7	5.3	2.0		
200만엔대	100.0(630)	21.1	53.8	18.7	4.1	2.2		
300만엔대	100.0(588)	23.3	49.1	19.4	6.0	2.2		
400만엔대	100.0(233)	20.6	57.1	15.9	6.0	0.4		
500만엔대	100.0(74)	24.3	51.4	17.6	4.1	2.7		
600만엔이상	100.0(37)	29.7	54.1	10.8	5.4	-		
잘모름	100.0(161)	18.6	46.6	18.6	3.1	13.0		
여성								
계(35세 미만)	100.0(2,248)	25.7	49.9	16.2	5.3	2.9	-	
0~99만엔	100.0(359)	24.0	55.4	13.1	4.7	2.8		
100만엔대	100.0(556)	29.3	47.5	15.1	5.6	2.5		
200만엔대	100.0(644)	27.6	51.2	14.6	4.2	2.3		
300만엔대	100.0(347)	21.6	47.8	22.2	6.6	1.7		
400만엔대	100.0(111)	18.9	48.6	19.8	8.1	4.5		
500만엔대	100.0(23)	26.1	39.1	21.7	13.0	-		
600만엔이상	100.0(10)	30.0	50.0	20.0	-	-		
잘모름	100.0(198)	22.7	47.5	17.2	4.5	8.1		

*** p<.001, ** p<.01, * p<.05.

나. 여성의 이상적 삶에 대한 가치관

본 절에서는 양국의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여성의 인생관에 대한 내용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장래 자신의 아내에게 바라는 인생관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첫 번째의 인생관은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이하, 비혼+취업 코스), 두 번째는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두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이하, DINK 코스), 세 번째는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 한다」(이하, 양립 코스), 네 번째는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이하, 재취업 코스), 다섯 번째는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그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이하, 전업주부 코스)이다.

여성의 이상적인 인생관을 연령별로 나타낸 <표 2-25>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국 모두 양립 코스와 재취업 코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양국의 경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남성은 장래 자신의 아내가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을 하고 그 후에 다시 취업을 하길 원하지만(40.8%), 여성은 출산을 하면서도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43.1%). 반면, 일본은 남녀모두 재취업의 비율이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다(남성: 39.1%, 여성: 35.2%). 그런데 일본 여성의 경우는 양립 코스, 재취업 코스뿐만 아니라 전업 주부 코스(19.7%)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여성은 2.8%만이 전업 주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취업 코스와 전업주부 코스를 더한 비율은 한국 여성이 36.5%, 일본 여성이 54.9%로 일본 여성의 과반수 이상은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일단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반면, 한국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비율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2-25〉 성별 연령별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비혼+ 취업코스	DINK 코스	양립 코스	재취업 코스	전업주 부 코스	모름	기타/ 무응답	χ^2
한국									
남성									
소계(35세미만)	100.0(709)	2.8	6.5	35.8	40.8	11.7	2.4	-	
18~19세	100.0(86)	3.5	1.2	48.8	37.2	8.1	1.2	-	
20~24세	100.0(192)	3.1	5.7	38.5	38.0	14.1	0.5	-	
25~29세	100.0(268)	1.5	7.8	33.2	45.9	9.0	2.6	-	
30~34세	100.0(163)	4.3	8.0	30.1	37.4	15.3	4.9	-	58.3***
35~39세	100.0(95)	5.3	6.3	24.2	44.2	13.7	6.3	-	
40~44세	100.0(51)	11.8	5.9	29.4	39.2	11.8	2.0	-	
45~49세	100.0(27)	11.1	14.8	29.6	22.2	18.5	3.7	-	
여성									
소계(35세미만)	100.0(540)	11.9	8.0	43.1	33.7	2.8	0.6	-	
18~19세	100.0(77)	7.8	9.1	50.6	29.9	2.6	-	-	
20~24세	100.0(162)	11.7	8.0	46.9	30.2	3.1	-	-	
25~29세	100.0(209)	12.0	6.2	40.7	37.8	2.9	0.5	-	
30~34세	100.0(92)	15.2	10.9	35.9	33.7	2.2	2.2	-	61.0***
35~39세	100.0(44)	29.5	9.1	25.0	31.8	4.5	-	-	
40~44세	100.0(23)	17.4	-	17.4	43.5	17.4	4.3	-	
45~49세	100.0(11)	18.2	-	36.4	36.4	-	9.1	-	
일본									
남성									
소계(35세미만)	100.0(3,667)	4.2	2.6	32.7	39.1	10.9	1.1	9.8	
18~19세	100.0(435)	2.5	2.8	28.0	38.4	13.8	1.8	12.6	
20~24세	100.0(1,359)	3.6	2.5	33.0	39.5	12.1	1.0	8.3	
25~29세	100.0(1,076)	3.5	2.3	33.2	40.4	9.6	1.0	9.9	
30~34세	100.0(797)	4.6	3.0	34.1	37.0	9.3	1.3	10.7	-
35~39세	100.0(613)	5.1	4.9	32.5	32.0	10.1	1.3	14.2	
40~44세	100.0(479)	6.1	5.6	29.9	28.0	13.2	1.0	16.3	
45~49세	100.0(281)	8.9	8.5	24.2	26.3	9.3	1.4	21.4	
여성									
소계(35세미만)	100.0(3,406)	4.9	3.3	30.6	35.2	19.7	0.4	6.0	
18~19세	100.0(530)	5.8	4.0	33.6	34.9	15.7	0.2	5.8	
20~24세	100.0(1,371)	4.8	2.6	29.8	36.5	21.7	0.1	4.6	
25~29세	100.0(895)	3.2	3.8	30.5	36.1	19.3	0.3	6.7	
30~34세	100.0(610)	6.6	3.6	30.2	31.3	19.2	1.1	8.0	-
35~39세	100.0(427)	7.3	8.9	28.3	25.5	18.0	0.5	11.5	
40~44세	100.0(270)	12.2	11.5	24.4	20.7	18.9	0.7	11.5	
45~49세	100.0(173)	15.6	14.5	19.1	17.9	13.3	1.2	18.5	

*** p<.001, ** p<.01, * p<.05.

그리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 특징적인 점은 양국 여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혼+취업 코스와 DINK 코스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앞으로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출산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고령 출산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상황을 투영(投影)한 결과라 보이며, [그림 2-1]과 [그림 2-2]에서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표 2-26〉은 학력별 이상적 인생관을 표시한 것인데, 양국 남성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 코스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여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그 경향이 뚜렷하고, 재취업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국의 여성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비혼+취업 코스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7〉은 종사상 지위별 이상적인 인생관에 대해 나타난 것이다. 먼저 양국의 남성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양국 모두 재취업 코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파트 타임·아르바이트는 한국 남성의 경우, 양립 코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일본 남성은 재취업 코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무직, 학생 등의 수입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되는 남성 미혼자들은 양립 코스를 가장 높은 비율로 꼽은 반면, 일본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 남성과 같은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한국 남성은 주로 재취업 코스를 이상적인 아내의 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본 남성은 양립 코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양립은 아마도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남편의 경우는 아내가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경향이 일본 남성에게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6〉 성별 학력별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비혼+ 취업코스	DINK 코스	양립 코스	재취업 코스	전업주 부 코스	모름	기타/ 무응답	χ^2
한국									
남성									
계(35세 미만)	100.0(709)	2.8	6.5	35.8	40.8	11.7	2.4	-	26.8
중학교	100.0(6)	-	16.7	16.7	33.3	33.3	-	-	
고교(공학)	100.0(99)	4.0	5.1	43.4	39.4	7.1	1.0	-	
남고/여고	100.0(32)	9.4	9.4	21.9	43.8	15.6	-	-	
2-3년제 대학	100.0(123)	4.1	5.7	35.0	38.2	12.2	4.9	-	
여대	-	-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445)	1.8	6.7	35.3	41.8	12.1	2.2	-	
기타	-	-	-	-	-	-	-	-	
잘모름	100.0(4)	-	-	75.0	25.0	-	-	-	
여성									
계(35세 미만)	100.0(540)	11.9	8.0	43.1	33.7	2.8	0.6	-	25.6
중학교	100.0(2)	-	-	-	100.0	-	-	-	
고교(공학)	100.0(38)	15.8	5.3	47.4	31.6	-	-	-	
남고/여고	100.0(41)	17.1	9.8	29.3	39.0	2.4	2.4	-	
2-3년제 대학	100.0(86)	11.6	5.8	36.0	41.9	4.7	-	-	
여대	100.0(36)	16.7	5.6	52.8	25.0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332)	10.2	9.0	45.8	31.3	3.0	0.6	-	
기타	-	-	-	-	-	-	-	-	
잘모름	100.0(5)	20.0	-	20.0	60.0	-	-	-	
일본									
남성									
계(35세 미만)	100.0(3,667)	3.7	2.6	32.7	39.1	10.9	1.1	9.8	-
중학교	100.0(178)	4.5	2.8	27.5	33.1	10.7	1.1	20.2	
고교(공학)	100.0(1,116)	4.5	3.0	30.7	37.7	10.1	1.7	12.2	
남고/여고	100.0(140)	5.0	7.1	29.3	30.7	13.6	-	14.3	
2-3년제 대학	100.0(579)	3.8	2.2	34.4	40.2	9.5	1.0	8.8	
여대	-	-	-	-	-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1,597)	2.8	1.9	34.3	41.6	11.8	0.9	6.6	
기타	100.0(14)	-	7.1	28.6	21.4	14.3	-	28.6	
잘모름	100.0(43)	7.0	2.3	39.5	23.3	9.3	-	18.6	
여성									
계(35세 미만)	100.0(3,406)	4.9	3.3	30.6	35.2	19.7	0.4	6.0	-
중학교	100.0(94)	10.6	3.2	14.9	26.6	31.9	-	12.8	
고교(공학)	100.0(774)	6.5	3.9	25.3	31.1	23.4	0.3	9.6	
남고/여고	100.0(129)	4.7	3.9	27.1	34.1	17.8	1.6	10.9	
2-3년제 대학	100.0(1,152)	4.2	3.1	27.2	40.1	19.7	0.6	5.1	
여대	100.0(248)	4.0	2.4	33.5	36.3	21.8	-	2.0	
대학(공학)/대학원	100.0(956)	4.0	2.9	39.6	34.4	15.7	0.1	3.2	
기타	100.0(13)	7.7	-	61.5	7.7	7.7	-	15.4	
잘모름	100.0(40)	7.5	10.0	37.5	17.5	10.0	2.5	15.0	

*** p<.001, ** p<.01, * p<.05.

〈표 2-27〉 성별 종사상 지위별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별 미혼남녀

(단위 : %, 명)

구분	전체	비혼+ 취업코스	DINK 코스	양립 코스	재취업 코스	전업주 부 코스	모름	기타/ 무응답	χ^2
한국									
남성									
계(35세 미만)	100.0(709)	2.8	6.5	35.8	40.8	11.7	2.4	-	36.1
정규직	100.0(258)	2.7	7.0	31.8	42.6	12.8	3.1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100.0(48)	6.3	10.4	45.8	31.3	6.3	-	-	
파견(용역) 및 계약직원	100.0(53)	1.9	13.2	32.1	39.6	11.3	1.9	-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0.0(46)	-	6.5	17.4	56.5	17.4	2.2	-	
무직	100.0(74)	5.4	6.8	41.9	31.1	13.5	1.4	-	
학생	100.0(226)	2.2	3.5	41.2	40.7	9.7	2.7	-	
잘 모름/무응답	100.0(4)	-	-	25.0	50.0	25.0	-	-	
여성									
계(35세 미만)	100.0(540)	11.9	8.0	43.1	33.7	2.8	0.6	-	41.5
정규직	100.0(179)	9.5	6.7	46.9	34.1	2.2	0.6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100.0(53)	13.2	13.2	41.5	32.1	-	-	-	
파견(용역) 및 계약직원	100.0(52)	5.8	17.3	34.6	36.5	5.8	-	-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0.0(15)	26.7	-	33.3	40.0	-	-	-	
무직	100.0(92)	20.7	6.5	33.7	35.9	1.1	2.2	-	
학생	100.0(148)	9.5	6.1	48.6	31.1	4.7	-	-	
잘 모름/무응답	100.0(1)	-	-	100.0	-	-	-	-	
일본									
남성									
계(35세 미만)	100.0(3,667)	3.7	2.6	32.7	39.1	10.9	1.1	9.8	-
정규직	100.0(1,677)	2.5	2.0	34.5	42.3	10.5	0.6	7.6	
파트타임,아르바이트	100.0(326)	6.7	3.7	31.6	37.4	7.1	2.5	11.0	
파견(용역) 및 계약직원	100.0(202)	4.0	4.0	34.7	37.6	10.4	2.0	7.4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0.0(164)	1.8	1.8	36.6	32.3	14.6	2.4	10.4	
무직/가사	100.0(310)	8.1	4.5	26.1	31.0	12.3	1.3	16.8	
학생	100.0(816)	3.4	2.7	31.1	40.8	12.4	1.5	8.1	
잘 모름/무응답	100.0(172)	4.1	1.2	30.8	26.2	10.5	-	27.3	
여성									
계(35세 미만)	100.0(3,406)	4.9	3.3	30.6	35.2	19.7	0.4	6.0	-
정규직	100.0(1,409)	2.9	2.8	31.8	37.6	20.2	0.4	4.3	
파트타임,아르바이트	100.0(501)	7.4	3.6	24.2	35.7	20.8	0.4	8.0	
파견(용역) 및 계약직원	100.0(276)	4.3	1.8	26.4	35.5	24.6	1.1	6.2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0.0(62)	8.1	-	46.8	21.0	19.4	-	4.8	
무직/가사	100.0(259)	6.2	7.3	21.6	30.1	23.9	0.4	10.4	
학생	100.0(763)	5.6	3.3	37.6	34.7	15.3	-	3.4	
잘 모름/무응답	100.0(136)	8.8	4.4	21.3	26.5	16.2	1.5	21.3	

*** p<.001, ** p<.01, * p<.05.

그리고 양국의 여성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에 상관없이 대부분 양립 코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특히 학생의 경우가 양립코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여성은 한국 여성과는 반대로 대부분 재취업 코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정규직 여성들이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업주부 코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여성들로는 파견(용역) 및 계약사원, 무직/가사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층은 아마도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 추측되고, 또 장래에도 현재 이상으로 수입이 낮거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후 집에서 육아 및 가사 일을 하는 것이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된다.

그리고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일본 여성의 경우, 일본 남성과 마찬가지로 양립 코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 여성들이 결혼하여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6. 소결

본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미혼 남녀의 결혼 및 이성교제, 그리고 그 외의 요인에 관한 행태 및 가치관에 대하여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일본 남성은 한국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고, 교제하는 이성이 없는 비율도 높다. 거기에 교제 상대가 없는 미혼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이성과 교제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일본의 결혼 경향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한국은 결혼의향이 일본보다 높기는 하지만, 교제하는 이성 없는 비율이 대략 10명당 7명으로 일본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나은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양국의 초혼연령(SMAM)²⁴⁾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2010년 한국 남성의 초혼연령은 33.2세, 한국 여성은 30.2세(曹, 2013), 일본 남성은 31.2세, 일본 여성은 29.7세²⁵⁾로 한국 남녀가 일본 남녀보다 더 높다.

결혼할 의향이 일본보다 높고, 이성과 교제하고 있는 비율도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높은데도 초혼연령의 차이가 2년이나 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결혼 이행을 결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 자금, 즉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되고, 대부분의 한국 남녀가 결혼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것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남성에게는 없는 한국 남성의 약 2년간의 국방의 의무가 한국과 일본 남성 사이에 나타나는 초혼 연령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앞으로 조금 더 상세한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만혼화는 교제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이행을 결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남녀보다,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녀가 더 많다는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24) 여기서의 초혼연령은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즉 SMAM로서 인구 센서스의 미혼 인구비율로부터 산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초혼연령은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즉 혼인 호적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통계의 평균이다. 이는 곧 초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평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혼 미경험자는 통계에서 제외되어 선택성 편(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SMAM은 미혼자를 고려한 평균초혼연령이라 할 수 있다.

2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3)

있다. 미혼남녀의 약 7할 정도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않다는 사실은 결혼 이행 확률 자체의 축소를 의미하며, 상술한 바와 같이 결혼과 출산간의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결혼이 증가하지 않게 되면, 출산율 회복도 어렵게 될 것이다.

Ⅲ.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치관

본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기혼여성들의 결혼배경, 가족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현재 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대하여 비교를 한다. 기본적으로 기혼여성에 대한 분석을 행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배우자(남성)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1. 결혼배경

가. 결혼형태

〈표 2-28〉은 남편과 알게 된 계기를 학력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소개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직장 및 일 관계가 그 다음인 반면, 일본은 직장 및 일 관계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소개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11〉과 〈표 2-12〉에서 살펴 본 미혼 남녀가 교제 상대를 만나게 된 경우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인데,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표 2-12〉의 통계는 35세 미만이 대상이고, 〈표 2-28〉은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0세 후반 이후의 경향이 그 이전 세대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표 2-28〉 학력별 남편과 알게 된 계기별 기혼여성

(단위 : %, 명)

구분	전체	학교	직장 및 일관 계	어린 시절/ 동네 친구	동아 리/ 학원	친구· 형제 자매 소개	선	결혼 정보 업체	길거 리/ 여행	아르 바이 트	기타	잘 모름/ 무 응답	χ^2
한국													
총계	100.0(1,500)	8.0	21.3	3.1	7.7	42.4	10.3	0.7	3.4	1.8	0.4	0.9	
중학교	100.0(21)	-	16.7	8.3	-	41.7	8.3	8.3	4.2	8.3	4.2	-	
고교(공학)	100.0(88)	1.1	28.1	1.1	5.6	44.9	10.1	0.0	6.7	2.2	-	-	
남고/여고	100.0(370)	1.6	23.4	4.4	6.0	43.5	12.2	0.3	5.2	2.3	0.5	0.5	
2~3년제 대학	100.0(255)	7.4	23.7	3.5	6.6	43.2	8.9	0.4	3.1	1.6	0.4	1.2	330.8
여대	100.0(69)	4.2	31.0	-	11.3	35.2	12.7	-	2.8	2.8	-	-	***
대학(공학)/대학원	100.0(730)	13.7	17.3	2.6	9.5	42.6	9.3	0.9	2.1	1.2	0.3	0.6	
기타	-	-	-	-	-	-	-	-	-	-	-	-	
잘모름	100.0(9)	-	20.0	10.0	-	30.0	-	-	-	-	-	40.0	
일본													
총계	100.0(6,705)	10.4	33.7	1.6	5.8	25.5	4.8	3.7	7.8	1.1	3.5	2.0	
중학교	100.0(193)	6.2	18.1	3.6	3.1	32.6	11.9	7.3	7.3	2.6	3.6	3.6	
고교(공학)	100.0(1,878)	8.1	39.1	1.9	4.7	25.2	4.5	2.6	7.1	0.9	3.8	2.0	
남고/여고	100.0(770)	3.1	38.1	1.7	5.6	27.7	5.3	3.5	7.9	1.0	4.9	1.2	
2~3년제 대학	100.0(974)	9.9	30.3	1.5	6.2	27.6	5.3	4.3	8.4	1.2	3.2	2.1	-
여대	100.0(1,659)	8.5	30.1	1.8	9.2	27.6	2.9	5.9	10.3	0.7	1.5	1.5	
대학(공학)/대학원	100.0(272)	24.4	33.2	0.7	6.9	16.1	2.6	3.1	6.9	1.5	2.8	1.8	
기타	100.0(909)	7.7	30.8	-	-	30.8	-	-	7.7	-	15.4	7.7	
잘모름	100.0(13)	5.4	24.3	2.7	-	24.3	5.4	8.1	8.1	-	8.1	13.5	

*** p<.001, ** p<.01, * p<.05.

또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제 상대와 만나게 된 계기와 결혼 상대와 만나게 된 계기 사이에 이질성(heterogeneity)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이질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부라면 누구나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했을 것이고, 이들이 결혼 전이었다고 가정하고 당시에 조사를 했다면 이는 곧 교제상대와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표 2-12〉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로는 전자, 즉 30세 후반 이후와 그 이전 세대의 남녀가 만나게 된 경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학력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학교에서 만난 비율이 다른 층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2-11>을 보면 <표 2-28>의 두 배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최근의 고학력화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반면, 직장 및 일관계로 만난 비율은 미혼여성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직장 및 일관계로 만나게 된 비율이 미혼남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岩澤·三田(2005)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비혼화 및 초혼연령 상승의 약 50%를 선으로 인한 결혼의 감소, 약 40%를 사내결혼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남녀의 만남의 계기가 변화되어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표 2-29>는 <표 2-28>의 결과를 간략화 하여 결혼연령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연애결혼이란 <표 2-28>의 「학교에서」, 「직장 및 일관계로」, 「어릴 적부터 친구 및 동네 친구」, 「동아리 및 학원에서」, 「친구나 형제자매의 소개로」, 「길거리나 여행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기타」가 포함되어 있고, 중매란 「선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로 정의한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이 연애를 통해 결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85년에서 2009년에 결혼한 여성(이하, 결혼코호트)들은 연애결혼 비율이 한국에서는 4.2% 증가한데 반해, 일본에서는 7.8% 증가했다. 또한 중매를 통해 결혼한 비율은 한국이 3.1%, 일본이 12.4% 각각 감소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결혼형태에 더 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6) 단, <표2-11>, <표2-12>의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난 비율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중매를 통한 결혼이 감소하는 현상이 1985년 결혼코호트부터 최근 코호트까지 꾸준히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1990~1999년 결혼코호트의 연애결혼이 감소하고 중매를 통한 결혼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여성들의 응답 중 「잘모름/무응답」 비율이 증가해 중매를 통해 결혼했다는 응답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연애결혼이나 중매를 통한 결혼 이외의 다른 형태를 통한 만남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2-29〉 결혼연도, 결혼형태별 기혼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연애결혼	중매	잘모름/무응답
한국				
1985~1989	100.0(65)	87.7	10.8	1.5
1990~1994	100.0(250)	84.8	14.8	0.4
1995~1999	100.0(328)	82.9	15.5	1.5
2000~2004	100.0(295)	88.5	10.8	0.7
2005~2009	100.0(273)	91.9	7.7	0.4
2010~2013	100.0(288)	93.1	5.9	1.0
일본				
1985~1989	100.0(1,547)	80.2	17.7	2.1
1990~1994	100.0(1,312)	84.8	12.7	2.6
1995~1999	100.0(1,474)	87.2	7.7	5.1
2000~2004	100.0(1,108)	87.4	6.2	6.4
2005~2009	100.0(1,165)	88.0	5.3	6.7

〈표 2-30〉, 〈표 2-31〉은 각각 양국 여성들의 결혼형태를 결혼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연애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중매로 결혼을 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의 남성(여성의 배우자)과 여성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 한국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애결혼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30대에 비해 40~44세 연령대에서 연애결혼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2-29〉에서

한국의 연애결혼이 1990년대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현재 40~44세인 남성들이 1990년대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결과가 부합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표 2-30〉 혼인 연령별 결혼요인(한국)

(단위: 명, %)

구분	전체	연애결혼	중매	잘모름/무응답
남성				
계	100.0(1,471)	88.2	11.0	0.7
20~24세	100.0(56)	98.2	1.8	-
25~29세	100.0(624)	92.3	7.1	0.6
30~34세	100.0(634)	84.7	14.2	1.1
35~39세	100.0(124)	83.1	16.9	-
40~44세	100.0(25)	88.0	12.0	-
45~49세	100.0(8)	62.5	37.5	-
여성				
계	100.0(1,473)	88.3	11.0	0.7
20~24세	100.0(298)	91.3	8.1	0.7
25~29세	100.0(854)	87.9	11.4	0.7
30~34세	100.0(269)	86.6	12.3	1.1
35~39세	100.0(42)	85.7	14.3	-
40~44세	100.0(8)	75.0	25.0	-
45~49세	100.0(2)	100.0	-	-

이에 더해, 이런 경향은 각주 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테고리별로 나뉘었을 때, 설문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40대 이상 설문 응답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 모두 100% 연애를 통해 결혼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설문 응답자의 수가 한국은 2명, 일본은 1명을 감안하면, 우연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2-31〉 혼인 연령별 결혼요인(일본)

(단위: 명, %)

구분	전체	연애결혼	중매	잘모름/무응답
남성				
계	100.0(944)	88.9	5.8	5.3
20~24세	100.0(150)	95.3	-	4.7
25~29세	100.0(382)	94.0	0.8	5.2
30~34세	100.0(256)	88.3	7.0	4.7
35~39세	100.0(115)	76.5	17.4	6.1
40~44세	100.0(30)	50.0	40.0	10.0
45~49세	100.0(11)	72.7	18.2	9.1
여성				
계	100.0(940)	88.7	6.0	5.3
20~24세	100.0(196)	93.9	0.5	5.6
25~29세	100.0(407)	93.6	2.7	3.7
30~34세	100.0(235)	84.7	8.5	6.8
35~39세	100.0(94)	70.2	21.3	8.5
40~44세	100.0(7)	42.9	57.1	-
45~49세	100.0(1)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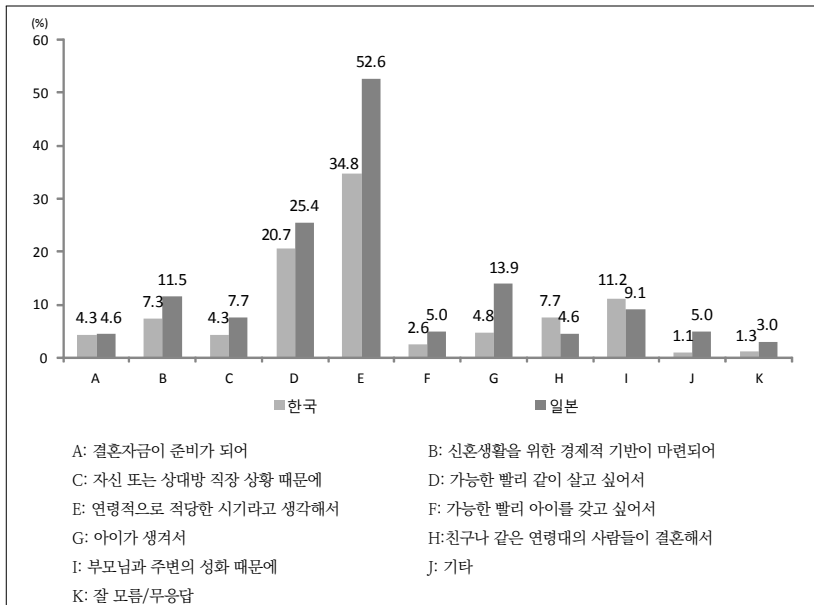
나. 결혼결정 이유

[그림 2-7]은 양국의 여성들이 결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양국 모두 「연령적으로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해서」가 결혼결정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가 두 번째로 높은 결혼의 결정 이유로 나타났지만,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비율이 한국은 34.8%인에 반해, 일본은 52.6%로 한국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비율이 높은 결혼 결정 이유를 보면, 양국 간의 양상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결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 「부모님과 주변의 성화」가 11.2%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아이가 생겨서」가 13.9%로 나타났다.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2)에 의하면, 25세 미만

기혼여성의 반수 이상이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25세 미만 연령층의 영향이 큰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7] 국가별 결혼결정 이유



주 : 양국 모두 중복응답임.

네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결혼의 결정 이유는 한국은 「친구 또는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결혼해서」가 7.7%인 반면, 일본은 「수입과 주거 등 신혼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서」가 1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에게 결혼은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결혼을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일본보다는 한국이 주변의 기대나 분위기가 결혼결정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부부간 학력 차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남녀가 결혼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Becker, 1991; Schwartz and Mare, 2005; Choo and Siow, 2006). 그 속성에는 학력, 연령, 인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절에서는 양국 부부의 학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표 2-32〉 부부의 학력별 구성비율

(단위: 명, %)

구분	남편의 학력							
	전체	중학교	고교 (공학)	남고/ 여고	2~3년제 대학	대학(공학)/ 대학원	기타	잘모름
한국								
계	100.0(1,500)	1.0	3.8	21.9	12.4	60.1	-	0.7
중학교	100.0(24)	33.3	8.3	41.7	-	12.5	-	4.2
고교(공학)	100.0(89)	1.1	14.6	49.4	16.9	16.9	-	1.1
남고/여고	100.0(384)	1.0	8.9	49.7	12.2	27.9	-	0.3
2~3년제 대학	100.0(257)	-	1.9	16.7	31.9	48.6	-	0.8
여대	100.0(71)	1.4	-	8.5	5.6	83.1	-	1.4
대학(공학)/대학원	100.0(569)	0.2	0.5	4.8	5.7	88.9	-	-
기타	-	-	-	-	-	-	-	-
잘모름	100.0(10)	-	-	30.0	-	20.0	-	50.0
일본								
계	100.0(6,705)	5.2	30.7	7.9	14.6	40.3	0.4	0.8
중학교	100.0(193)	35.8	39.9	7.3	8.3	7.8	0.5	0.5
고교(공학)	100.0(1,878)	7.0	48.9	9.0	13.0	21.0	0.3	0.7
남고/여고	100.0(770)	7.0	40.8	16.4	12.1	22.6	0.4	0.8
2~3년제 대학	100.0(2,633)	3.2	23.8	7.4	19.9	44.5	0.5	0.6
여대	100.0(272)	-	10.3	2.6	12.5	74.3	0.4	-
대학(공학)/대학원	100.0(909)	0.8	9.5	1.5	6.9	81.1	-	0.2
기타	100.0(13)	7.7	23.1	15.4	7.7	30.8	15.4	-
잘모름	100.0(37)	5.4	13.5	8.1	18.9	16.2	-	37.8

〈표 2-32〉는 양국 부부의 학력 구성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국 모두 부부의 학력 구성 조합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부인과 남편 모두 대학/대학원졸업의 학력을 가진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한국: 88.9%, 일본: 81.1%).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양국 모두 남편의 학력이 부인의 학력보다 더 높은 경우는 더러 있지만, 부인의 학력이 남편의 학력보다 높은 경우는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남편의 학력이 대졸 이상(대학/대학원)이고 부인의 학력이 고졸 이상(고교공학/여고)인 경우는 한국이 44.8%, 일본이 43.6%인 반면, 부인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남편의 학력이 고졸 이상(고교공학/남고)인 경우는 일본이 23.9%, 한국이 13.8%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일본보다 한국의 부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상관성이 크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작다고 할 수 있다.

Fisman et al. (2006)는 비록 결혼한 부부, 즉 매칭(matching)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대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미혼남녀간의 매칭 선호(dating preference)에 대하여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의 육체적 매력에 중점을 두면서, 여성의 지적 능력이나 이상(ambition)이 자신보다 높을 때는 선호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인의 학력이 남편의 학력보다 높은 부부의 비율이 작은 것은 이런 매칭 선호가 결국 결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표 2-33〉은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자녀가 있을 때 엄마가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적극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94.2%, 일본은 69.5%의 분포를 보인다. 양국 모두 과반 수 이상이 엄마가 집에서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만, 어린자녀가 있어도 엄마가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는 비율은 한국은 5.6%, 일본은 26.5%로 나타나 자녀양육 및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3〉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별 기혼여성

(단위: %)

가능한 자녀가 어릴 때에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일본
전적으로 찬성	57.8	19.2
대체로 찬성	36.5	50.3
별로 찬성하지 않음	4.5	18.8
전혀 찬성하지 않음	1.1	7.7
모르겠음	0.1	4.0
합계	100.0	100.0

〈표 2-34〉, 〈표 2-35〉는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연령별로, 그리고 학력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2-34〉를 보면, 위의 〈표 2-33〉에서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한국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보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보면, 한국의 35세 이상 여성들이 자신이 직접 자녀양육을 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국 모두 30~34세 연령대의 여성들이 전 연령층 중에서 엄마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 9.2%, 일본: 32.4%).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서 자녀가 어려도 엄마가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어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및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2-34〉 연령별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별 기혼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가능한 자녀가 어릴 때에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한국						
계	100.0(1,498)	57.8	36.6	4.5	1.1	-
24세 이하	100.0(11)	63.6	36.4	0.0	0.0	-
25~29세	100.0(112)	46.4	46.4	4.5	2.7	-
30~34세	100.0(273)	50.5	40.3	7.7	1.5	-
35~39세	100.0(360)	58.3	38.1	3.1	0.6	-
40~44세	100.0(368)	59.2	35.9	4.1	0.8	-
45~49세	100.0(374)	64.4	30.2	4.3	1.1	-
일본						
계	100.0(6,705)	19.2	50.3	18.8	7.7	4.0
24세 이하	100.0(134)	26.9	47.0	17.9	6.7	1.5
25~29세	100.0(520)	20.6	47.9	21.9	6.7	2.9
30~34세	100.0(1,122)	16.6	47.6	22.1	10.3	3.4
35~39세	100.0(1,744)	18.2	50.9	19.3	8.5	3.1
40~44세	100.0(1,602)	19.9	52.1	17.1	6.9	4.1
45~49세	100.0(1,583)	20.5	50.9	16.6	6.1	5.9

〈표 2-35〉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학력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고졸 및 2~3년제 대학졸업을 한 여성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어린 자녀를 엄마가 일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고졸 또는 여대를 졸업한 여성이 다른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엄마의 어린 자녀양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경우는 여대를 졸업한 여성(91.6%)과 대졸 이상의 여성(92.7%)의 찬성비율이 비슷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여대를 졸업한 여성(73.0%)이 대졸 이상의 여성(62.2%)보다 높은 비율로 어머니의 어린 자녀양육을 찬성하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여대를 졸업한 여성의 뚜렷한 성역할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표 2-35〉 학력별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단위: 명, %)

구분	전체	가능한 자녀가 어릴 때에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χ^2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 겠음	
한국							
계	100.0(1,498)	57.8	36.6	4.5	1.1	-	294.3 ***
중학교	100.0(24)	62.5	29.2	8.3	-	-	
고교(공학)	100.0(89)	69.7	27.0	3.4	-	-	
남고/여고	100.0(384)	64.6	31.8	2.9	0.8	-	
2~3년제 대학	100.0(256)	60.5	35.9	2.7	0.8	-	
여대	100.0(71)	45.1	46.5	5.6	2.8	-	
대학(공학)/대학원	100.0(665)	52.5	40.2	6.0	1.4	-	
잘모름	100.0(9)	55.6	33.3	11.1	-	-	
일본							
계	100.0(6,705)	19.2	50.3	18.8	7.7	4.0	-
중학교	100.0(193)	25.9	42.5	18.1	6.2	7.3	
고교(공학)	100.0(1,878)	20.6	51.3	17.5	5.5	5.1	
남고/여고	100.0(770)	23.1	50.4	15.8	6.9	3.8	
2~3년제 대학	100.0(974)	17.4	50.3	22.0	7.5	2.9	
여대	100.0(1,659)	20.0	53.0	17.5	6.8	2.7	
대학(공학)/대학원	100.0(1,103)	13.9	48.3	21.8	12.1	3.9	
기타	100.0(831)	12.8	23.1	28.2	28.2	7.7	
잘모름	100.0(78)	30.8	30.8	15.4	7.7	15.4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여성들은 엄마가 집에서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일본보다 큰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 엄마와 자녀의 애착관계를 중시하고 자녀양육은 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한국사회에 더 지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하는 엄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육 및 탁아 시설에 어린 자녀들을 맡겨야 하지만, 현재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하는 엄마들의 불안감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엄마가 어린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보다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현재 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가. 현재 자녀수

〈표 2-36〉, 〈표 2-37〉은 각각 양국 여성들의 현재 자녀수를 결혼연령 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2-36〉을 보면,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이 32세 이하인 경우까지는 2명이 가장 높은 자녀수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33~34세에 결혼한 경우에는 1명의 자녀(35.9%)를 두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이후에 결혼한 한국 여성은 0명에서 2명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결혼연령이 29세 이상인 경우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여, 결혼연령에 따라 자녀수에 차이가 있고, 3명 이상의 자녀수가 결혼연령 29세 이상의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6〉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여성(한국)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미상	χ^2
계	100.0(1,500)	12.4	22.1	52.5	11.1	1.9	0.1	
20세 이하	100.0(18)	-	22.2	61.1	11.1	5.6	-	
21~22세	100.0(74)	5.4	16.2	52.7	24.3	1.4	-	
23~24세	100.0(206)	4.4	14.1	62.1	17.0	2.4	-	
25~26세	100.0(381)	5.8	16.3	64.8	11.0	2.1	-	
27~28세	100.0(343)	13.4	23.3	49.3	12.8	0.9	0.3	220.8 ***
29~30세	100.0(224)	21.4	31.3	40.6	6.3	0.4	-	
31~32세	100.0(136)	20.6	30.9	44.9	1.5	2.2	-	
33~34세	100.0(39)	23.1	35.9	30.8	7.7	2.6	-	
35세 이상	100.0(52)	30.8	30.8	30.8	5.8	1.9	-	
미상	100.0(27)	14.8	11.1	48.1	11.1	14.8	-	

*** p<.001, ** p<.01, * p<.05.

〈표 2-37〉에 나타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2명의 자녀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21세에서 26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평균 50% 이상이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34세에 결혼한 일본 여성들은 0명(37.4%) 또는 1명(39.6%)의 자녀를 두고 있고, 35세 이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57.5%)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3명 이상의 자녀수가 결혼연령 29세 이상의 경우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연령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생물학적 임신가능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양국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30(2012년), 일본이 1.39(2011년)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국의 이런 미묘한 차이는 3자녀 이상의 비율이 일본이 조금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2-37〉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여성(일본)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미상
계	100.0(6,705)	13.6	22.3	45.6	15.7	2.1	0.7
20세 이하	100.0(395)	3.0	18.0	47.8	24.8	5.6	0.8
21~22세	100.0(750)	6.7	14.7	51.6	22.7	3.7	0.7
23~24세	100.0(1,335)	6.3	16.6	51.7	21.3	3.1	1.0
25~26세	100.0(1,587)	10.8	20.1	50.0	17.1	1.6	0.4
27~28세	100.0(1,114)	14.5	25.7	45.7	11.9	1.5	0.7
29~30세	100.0(716)	20.8	31.0	38.7	8.1	0.8	0.6
31~32세	100.0(359)	25.9	34.3	34.5	4.5	-	0.8
33~34세	100.0(187)	37.4	39.6	19.3	3.2	-	0.5
35세 이상	100.0(200)	57.5	28.0	10.5	2.5	-	1.5
미상	100.0(62)	14.5	19.4	50.0	14.5	-	1.6

〈표 2-38〉과 〈표 2-39〉는 각각 양국의 현재 자녀수를 학력별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특히 중졸, 고졸의 한국 남성과, 고졸인 한국 여성은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슷한 학력을 가진 일본 남녀의 경우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약 50% 정도인 점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한국은 남녀 모두 대졸(2~3년제 대학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명만 있는 경우 역시 대졸(2~3년제 대학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양국의 남녀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두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학력이 낮을수록 3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8〉 학력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남녀(한국)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미상	χ^2
부부총계	100.0(1,500)	12.4	22.1	52.5	11.1	1.8	0.1	
남성								
중학교	100.0(15)	6.7	6.7	60.0	20.0	6.7	-	
고교(공학)	100.0(57)	8.8	8.8	68.4	10.5	3.5	-	
남고/여고	100.0(329)	6.4	17.0	57.4	16.7	2.1	0.3	81.4
2~3년제 대학	100.0(186)	9.7	23.7	54.8	10.8	1.1	-	***
대학(공학)/대학원	100.0(902)	15.4	24.9	49.3	8.8	1.6	-	
잘모름	100.0(11)	18.2	9.1	27.3	27.3	18.2	-	
여성								
중학교	100.0(24)	16.7	12.5	50.0	12.5	8.3	-	
고교(공학)	100.0(89)	6.7	15.7	65.2	11.2	1.1	-	
남고/여고	100.0(384)	3.6	17.4	62.0	14.8	2.1	-	120.2
2~3년제 대학	100.0(257)	13.2	19.1	50.6	14.4	2.7	-	***
여대	100.0(71)	11.3	31.0	45.1	9.9	2.8	-	
대학(공학)/대학원	100.0(665)	17.7	26.6	47.1	7.5	0.9	0.2	
잘모름	100.0(10)	20.0	-	40.0	20.0	20.0	-	

*** p<.001, ** p<.01, * p<.05.

〈표 2-39〉 학력별 현재 자녀수별 기혼남녀(일본)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미상
부부총계	100.0(6,705)	13.6	22.3	45.6	15.7	2.1	0.7
남성							
중학교	100.0(347)	10.4	22.5	42.1	20.2	4.3	0.6
고교(공학)	100.0(2,059)	10.7	19.9	47.9	17.8	2.7	1.0
남고/여고	100.0(531)	12.1	16.0	51.0	17.9	2.6	0.4
2~3년제 대학	100.0(984)	12.8	24.6	44.4	16.3	1.2	0.7
대학(공학)/대학원	100.0(2,705)	17.0	24.5	43.5	12.9	1.5	0.4
기타	100.0(26)	15.4	11.5	50.0	11.5	3.8	7.7
잘모름	100.0(53)	7.5	24.5	49.1	15.1	-	3.8
여성							
중학교	100.0(193)	10.4	25.4	39.4	18.1	4.7	2.1
고교(공학)	100.0(1,878)	12.0	18.6	47.3	19.1	2.2	0.7
남고/여고	100.0(770)	10.9	19.5	48.3	18.4	2.5	0.4
2~3년제 대학	100.0(2,633)	12.0	23.6	46.9	14.9	2.0	0.6
여대	100.0(272)	22.8	25.0	39.0	11.0	1.1	1.1
대학(공학)/대학원	100.0(909)	21.9	27.3	38.8	10.0	1.5	0.1
기타	100.0(13)	7.7	15.4	69.2	-	-	7.7
잘모름	100.0(37)	13.5	18.9	45.9	10.8	2.7	8.1

나. 기대자녀수

〈표 2-40〉, 〈표 2-41〉은 각각 양국의 여성이 현재 자녀를 포함해서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더 계획하고 있는지를 결혼연령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평균 기대자녀수를 보면, 한국이 2.01명, 일본이 2.07명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국 모두 결혼 연령이 29세 이상인 경우부터 기대자녀수가 2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전체 결혼연령을 비교해 보면, 20대에서 35세 이상으로 가면서 출산예정 자녀수가 2.11명에서 1.8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연령대의 일본 여성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는 기대자녀수의 변화가 2.50명에서 1.32명으로 한국보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40〉 결혼연령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한국)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 기대 자녀수	χ^2
계	100.0(1,476)	1.8	17.0	63.0	14.8	3.4	2.0	
20세 이하	100.0(18)	-	11.1	72.2	11.1	5.6	2.1	
21~22세	100.0(74)	1.4	16.2	52.7	28.4	1.4	2.1	
23~24세	100.0(205)	2.0	11.7	63.4	19.0	3.9	2.1	
25~26세	100.0(376)	0.5	11.7	69.7	14.1	4.0	2.1	
27~28세	100.0(338)	1.8	18.3	60.7	16.9	2.4	2.0	92.2
29~30세	100.0(219)	1.4	23.3	62.1	11.0	2.3	1.9	***
31~32세	100.0(135)	3.7	24.4	60.7	8.1	3.0	1.8	
33~34세	100.0(37)	5.4	24.3	59.5	8.1	2.7	1.8	
35세 이상	100.0(48)	4.2	27.1	56.3	8.3	4.2	1.8	
미상	100.0(26)	7.7	3.8	53.8	15.4	19.2	2.4	

주: '4명 이상'은 4명으로 계산

〈표 2-41〉 결혼연령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일본)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미상	평균 기대 자녀수
계	100.0(6,705)	4.1	12.6	55.1	21.9	2.1	0.5	3.6	2.1
20세 이하	100.0(395)	1.3	7.6	45.6	34.9	6.3	1.5	2.8	2.5
21~22세	100.0(750)	2.3	7.9	51.3	29.7	3.3	1.1	4.4	2.3
23~24세	100.0(1,335)	1.9	8.9	54.6	27.6	3.1	0.7	3.2	2.2
25~26세	100.0(1,587)	2.9	11.1	57.5	23.4	1.6	0.4	3.1	2.1
27~28세	100.0(1,114)	3.9	13.3	60.1	17.7	1.3	0.4	3.3	2.0
29~30세	100.0(716)	5.7	17.2	57.3	14.8	1.0	-	4.1	1.9
31~32세	100.0(359)	8.1	21.4	57.4	9.2	0.8	-	3.1	1.7
33~34세	100.0(187)	13.4	23.0	50.3	7.0	0.5	-	5.9	1.6
35세 이상	100.0(200)	19.0	32.0	37.0	5.0	0.5	-	6.5	1.3
미상	100.0(62)	4.8	12.9	54.8	17.7	-	-	9.7	2.0

한국과 일본의 뚜렷한 차이점은 결혼연령이 35세 이상인 여성들의 기대자녀수에서 드러난다. 결혼연령이 35세 이전까지는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 여성이 50%인데 반해, 35세 이후가 되면 37.0% 급감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 여성은 결혼연령이 35세 이상이 되더라도 2명의 자녀를 계획하는 여성이 56.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여성은 결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자녀를 두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는 여성이 19.0%, 1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32.0%, 그리고 2명의 자녀를 예상하고 있는 여성이 37%인데 반해, 결혼연령이 35세 이상인 한국 여성은 여전히 2명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56.3%) 가장 많고, 1명이 27.1%,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여성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2〉, 〈표 2-43〉은 앞서 살펴본 내용을 학력별로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결과를 보면, 양국이 공통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평균 기대 자녀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일본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기대 자녀수는 평균 1.5명으로, 전체 평균 2.1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양국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두지 않거나 한 명만 둘 계획인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3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표 2-38>, <표 2-39>에서 보여준 양국의 학력별 현재 자녀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2> 학력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한국)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 기대자녀수	χ^2
계	100.0(1,476)	1.8	17.0	63.0	14.8	3.4	2.0	52.5**
중학교	100.0(23)	4.3	13.0	60.9	13.0	8.7	2.1	
고교(공학)	100.0(88)	1.1	9.1	70.5	15.9	3.4	2.1	
남고/여고	100.0(381)	1.3	13.6	63.8	17.8	3.4	2.1	
2~3년제 대학	100.0(252)	1.6	13.9	61.1	18.7	4.8	2.1	
여대	100.0(69)	1.4	23.2	60.9	11.6	2.9	1.9	
대학(공학)/대학원	100.0(654)	2.1	20.9	62.8	11.6	2.4	1.9	
잘모름	100.0(9)	11.1	-	44.4	22.2	22.2	2.4	

*** p<.001, ** p<.01, * p<.05.

<표 2-43> 학력별 기대자녀수별(현재+계획자녀) 기혼여성(일본)

(단위: 명, %)

구분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미상	평균 기대자녀수
계	100.0(6,705)	4.1	12.6	55.1	21.9	2.6	3.6	2.1
중학교	100.0(193)	2.1	10.4	46.6	30.6	4.7	5.7	2.3
고교(공학)	100.0(1,878)	4.3	10.8	53.5	24.4	2.8	4.2	2.1
남고/여고	100.0(770)	4.7	15.2	52.7	20.9	3.0	3.5	2.0
2~3년제 대학	100.0(2,633)	3.2	12.9	56.9	21.5	2.6	2.9	1.7
여대	100.0(272)	5.1	16.9	54.4	19.5	1.5	2.6	2.0
대학(공학)/대학원	100.0(909)	5.7	13.2	56.9	18.4	2.3	3.5	1.5
기타	100.0(13)	-	15.4	61.5	-	-	23.1	1.8
잘모름	100.0(37)	2.7	-	54.1	18.9	2.7	21.6	2.3

4. 소결

본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 기혼여성들의 결혼배경, 출산연령,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현재 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대하여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양국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연애 결혼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중매를 통해 결혼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 연애결혼 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결혼 적령기였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거나 아이가 생겼기 때문 등 결혼 당사자들이 가진 이유가 결혼 결정 이유의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경제적인 준비 이외에도 부모님의 성화나 또래들이 결혼해서 등 주변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일본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관습과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여전히 결혼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수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평균 2명의 자녀를 최종적으로 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자녀수 2명을 기준으로 기대 자녀수를 비교해 보면 결혼연령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즉, 혼인연령이 늦어진 여성들도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컸다. 현재 자녀수와 최종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는 당연히 차이를 보이겠지만, 역시 2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혼인연령이 늦을수록 현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과 최종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 비율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

으로, 이러한 결과는 결국 결혼이 늦어진 여성들이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그 계획한 자녀 수 만큼의 자녀를 두지 못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자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획한 자녀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이 늦은 여성의 경우, 고령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인 이유로 자녀계획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신체적 이유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이유일 것이다. 사회보장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부모가 책임지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 너무 늦은 연령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늦은 나이에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혼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거쳐, 결혼연령이 늦어도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에 일터도 돌아감으로써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가 자녀양육을 신뢰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할 것이다.

IV. 합의

본고는 출산과 출산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결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행태에 대하여, 일본의 기출간된 보고서의 기초통계와 본고를 위해 별도로 전화 조사를 하여 집계된 통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일본 남성은 한국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고, 교제하는 이성이 없는 비율도 높긴 하지만, 한국 남성도 교제하는 이성 없는 비율이 일본과 유사하게 10명당 약 7명으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성과의 교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미혼 남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만혼화의 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미혼 남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성이 연상, 여성이 연하의 커플이 중심적인 한국에서 결혼 시장의 미스매치로 인한 남성 미혼 인구의 상대적 증가(marriage squeeze)도 만혼화의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혼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남녀의 나이차가 2~3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30~34세의 남성 인구와 25~29세의 여성 인구를 비교했을 때, 남성 인구가 7% 정도 부족하고, 25~29세 남성 인구와 20~24세의 여성 인구를 비교하면 약 21% 정도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초혼연령에 해당되는 30~34세의 남성 미혼 인구가 50.2%에 비해, 여성 미혼 인구는 29.1%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구 구조만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비혼화 및 만혼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1989년 1.57쇼크 이후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 등, 저출산 대책을 현재까지 20년 넘게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도 제 1차 새로마지 플랜을 기점으로 10년 가까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정책은 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의 양적 확대, 여성의 고용율 증가 등의 기혼 여성에 대한 정책에 치우쳐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때, 분모에는 15~49세의 모든 여성 인구가 산입된다. 즉, 미혼 여성 인구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비혼화 및 만혼화의 진전으로 미혼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책적으로는 기혼 여성이 중심이 되고, 미혼 남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신혼 부부를 위한 정책은 저금리의 전세금 대출 등의 정책이 있지만, 합계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할 상대도 없는 미혼 남녀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²⁷⁾ 물론 남녀 간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정책 실행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상점가 등이 연합하여 마치콘(街コン)을 개최하여 미혼남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치콘이란 우리말로 풀면 거리 미팅이라 할 수 있는데, 미혼 남녀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일정한 시간동안 상점가의 지정된 식당이나 술집을 자유롭게 들어가, 상대가 없는 이성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미혼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점으로서도 메리트가 있는 방식이라 생각된다. 가능하다면 이런 방향의 정책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만혼화는 개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면도 크기 때문에 고용정책등과 연계하여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미혼 남녀의 만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여성의 생각은 양국이 약간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미혼여성보다 기

27) 전영수(2013)도 미혼자의 결혼 권장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넣어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혼여성이 엄마가 어린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큰 반면, 일본은 미혼여성의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결과로부터 생각해 보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3세아 신화」의 개념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 미혼여성의 경우, 엄마가 집에서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일본보다 큰 비율로 찬성하고 있지만, 일을 하려는 욕구도 크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딜레마가 만혼화를 더욱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를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민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하려는 확률을 더디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이 유일 수 있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대부분이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1차 새로마지 플랜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양적 확대는 그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시설에 맡겼을 때, 자신이 돌보는 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시설의 교사들이 자신의 자녀를 돌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에 자녀를 맡겨도 심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인식을 여성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인식이 확대되면 상술한 미혼 여성들의 딜레마가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35세 이상이 되면 5명 중 1명의 여성이 자녀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 여성은 그 비율이 미미할 정도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면 한국 여성들의 출산 의욕은 연령이 증가함에도 크게 떨

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된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의외로 손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여성이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라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 여성은 아이, 즉 출산이라는 요인은 결혼의 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남녀의 경우는 결혼 이행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약 90%정도가 3~4년 이내에 첫 출산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류기철·박영화 2009), 미혼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출산율은 상승할 것이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유무에 따라 출산율 증가의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결혼을 결정한다 해도 그 이유가 결혼 적령기였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이 한국 기혼 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일본 기혼 여성은 결혼 당사자들이 가진 이유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여성은 부모님의 성화나 또래들이 결혼해서라는 이유 등 주변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일본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관습과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여전히 결혼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중에서 일본 미혼여성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결혼의 이점 중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와 기혼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패턴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차이들은 양국의 전

통과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령(2002)은 서양인의 일본론은 매우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일본이 아닌 한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화감 없이 일맥상통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저출산 현상을 프랑스와 비교한 Boling(2008)의 연구를 보면, 일본의 저출산 원인을 직장의 문화, 즉 여성이 육아 휴직을 쓰기 힘든 것이나 남성의 장시간 노동에 의한 가사 및 육아 협력의 부족,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적용시켜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Tsuya and Bumpass(2004)는 한국, 일본, 미국의 3개국을 비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비교 구도는 한국과 일본을 동등한 카테고리 안에 포함하고 미국과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사실과 통계치 이면에 숨어있는 측면, 예를 들어 양국의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2008)에 의하면, 일본 에도 시대²⁸⁾의 서민은 사무라이 등 상류층의 봉록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수확량의 많은 부분을 봉건 영주에게 상납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생활고로 자녀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류층이었던 사무라이가 봉건 영주(다이묘)로부터 받았던 봉록도 농민과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이들도 농민과 같이 자녀의 수를 제한하였다.

일본 근현대의 출산율은 2번의 세계 대전과 베이비 붐 시대(1947~49년)를 제외한 1950년 이후부터 급속히 감소하여, 1957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까지 감소하였고, 1970년대 초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후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였다. 즉, 1950년 이전의 외부적 쇼크를 제외하면

28)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통치를 시작했던 시기(1603년)부터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년)까지의 기간을 칭한다.

특별한 가족계획(family planning) 없이 출산이 억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에도 시대의 출산 행동이 일본인들의 정신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루스 베네딕트(2008)는 일본인들의 육아 방식은 매우 관대하고, 이런 관대한 육아 문화를 가진 국민들은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매우 크지만, 일본인들이 자녀를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를 잇기 위해 서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家) 제도라는 것을 메이지 유신 이후 민법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한 집안의 가장(호주)은 그 집안의 모든 의사결정권 및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의 계승, 즉 가문의 계승은 오직 아들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경우는 반드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들이 가문을 이어받은 반면, 일본은 굳이 혈연이 아니더라도 양자를 들여 가문을 이을 수 있었고, 딸만 있는 가문에서는 데릴사위를 들여 가문을 잇게 하는 것도 가능했다(오치아이 에미코, 2004).

따라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가지고 싶어한다’라는 루스 베네딕트(2008)의 견해는 일본에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여성에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패배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고(루스 베네딕트, 2008),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들은 노후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이는 곧 남아선호사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본의 경우, 1985년 당시 6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남아선호사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坂井 1987), 한국처럼 출생성비가 균형을 잃을 정도로의 남아선호사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의 일본은 여아선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2), 한국은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12).

비록 일본인들에게 남아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제도를 뿌리로 한 가문을 잇게 하는 정신은 현재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과는 다르게 딸을 낳더라도 양자를 들여 가문을 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행위는 자녀를 낳아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나라이지만, 일제시대, 그 후의 6.25 전쟁과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같은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어 오면서 과거의 가치관들이 많이 소실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즉, 문화적 및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파생된 가치관 변동의 속도가 일본보다 한국이 빠른 것이 양국의 차이점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결과 중 한국인보다는 일본인들이 결혼 후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그 차이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루스 베네딕트(2008).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 김윤식·오인석 옮김, 을유문화사.
- 류기철·박영화(2009). 한국여성의 출산을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pp.1~23.
- 오치아이 에미코(2004). 21세기 가족에게. 이동원 감역, 고바야시 카즈미·김향남 공역, 양서원.
- 이상림(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pp.39~71.
- 이어령(2002).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
- 전영수(2013). 전영수 칼럼: 결혼과 출산의 인구경제학. 한국일보 9월 18일.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통계청(2013). 2012년 출생통계(확정).
- 岩澤美帆・三田房美 (2005). 「職縁結婚の盛衰と未婚化の進展」『日本労働研究雑誌』2005年1月 (No. 535)、pp. 16-28 (이와사와 미호・미타 후사미 (2005) 「직장내(사내) 결혼의 성쇠와 미혼화의 진전」『일본노동연구잡지』).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2). 『平成22年・第14回出生動向基本調査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第I 報告書-わが国夫婦の結婚過程と出生力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2012) 『평성 22년 제14회 출생동향 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제 1보고서-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과정과 출생력』).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3). 『人口の動向: 日本と世界-人口統計資料集 2013』.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2013) 『인구의 동향: 일본과 세계 - 인구통계자료집 2013』).

- 坂井博通 (1987). 「日本人の子供の性別選好について」『人口問題研究』第182号、pp. 51-55 (사카이 히로미치(1987) 「일본인 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해서」『인구문제연구』 제182호).
- 曹成虎 (2013). 『出生力の変動と女性就業：日韓比較分析』 慶應義塾大学大学院 経済学研究科 博士論文 未刊行 (조성호 (2013) 『출생력 변동과 여성의 노동: 한일비교분석』 게이오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박사논문 미간행).
- 内閣府 (2010). 『第8回世界青年意識調査』 (내각부(2010) 『제8회 세계청년의 식조사』).
- 永瀬伸子・守泉理恵 (2005). 「独身男女の交際行動の不活発かは何故か」高橋重郷編『少子化の新局面と家族・労働政策の対応に関する研究』厚生科学研究費補助金(政策科学推進研究事業)平成16年度報告書、pp. 169-183 (나가세 노부코・모리이즈미 리에 (2005) 「독신남녀의 교제행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타카하시 시게사토 편집 『소자화의 신국면과 가족·노동정책의 대응에 관한 연구』 후생과학 연구비 보조금(정책과학 추진연구사업)평성 16년도 보고서).
- 西・文彦・菅・まり (2007). 「親と同居の若年未婚者の最近の状況 その5」『統計』2月号、財団法人日本統計協会、pp. 52-57 (니시 후미히코・칸 마리 (2007)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층 미혼자의 최근 상황 5번째」『통계』 2월호, 재단법인 일본통계협회).
- 深澤真紀 2006). 「U35男子マーケティング図鑑 第5回 草食男子」『日経ビジネス』 10月13日 (후카사와 마키(2006) 「U35 남자 마케팅 도감 제5회 초식남자」 닷케이 비즈니스 10월 13일).
- 文部科学省 (2013). 『平成25年度 学校基本調査』 (문부과학성 (2013) 『평성 25년도 학교기본조사』).
- 山田昌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ちくま新書. (야마다 마사히로(1999) 『파라사이트 싱글의 시대』 치쿠마 신서).
- Becker, Gary.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 Political Economy*, 81(4), pp. 813-846.
- _____(1981). *The Treaties of Family Enlarged Edition*.
- Boling, Patricia (2008). "Demography, Culture and Policy: Understanding Japan's 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2), pp. 307-326.
- Choo, Eugene, Aloysius Siow (2006). "Who Marries Whom and W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1), pp. 175-201.
- Fisman, Raymond, Sheena S. Iyengar, Emir Kamenica, Itamar Simonson (2006).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Evidence From a Speed Dating Experi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1(2), pp. 673-697.
- OECD (2012). *Demographic Year Book*, 2012.
- Schwartz, Christine R., Robert D. Mare. (2005). "Trends in Educational Assortative Marriage from 1940 to 2003," *Demography*, 42(4), pp. 621-646.
- Tsuya, Noriko O. and Larry L. Bumpass (2004).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부록: 조사표 <<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면접원 000입니다.

지금 저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만18~49세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과 보건 및 복지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조사수행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SQ1.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SQ2 조사 대상이 만 18세~49세인데, 실례지만 연령이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

(만 세) ▶ ① 만18세 미만, ⑥ 만 50세 이상은 조사 중단

- ① 만18세 미만 ▶ 조사 중단
② 만18~24세
③ 만25~29세
④ 만30~34세
⑤ 만35~39세
⑥ 만40~49세
⑥ 만 50세 이상 ▶ 조사 중단

SQ3. 실례지만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SQ4. 귀하께서는 현재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이내에 1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하셨거나, 무급 가족종사자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을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조사대상 쿼터 SQ1~SQ4> *공통적으로 SQ2=2~5(만18~49세)

조사구분	조건(모든 조건 AND)	대상자 구분
기혼여성조사	SQ3=1(기혼) SQ1=2(여성) SQ4=1(경제활동자)	기혼여성 경제활동자 ->SQ5, SQ5-1 체크 후 문A1로 이동
	SQ3=1(기혼) SQ1=2(여성) SQ4=2(비경제활동자)	기혼여성 비경제활동자 ->SQ5, SQ5-1 체크 후 문B1로 이동
	SQ3=2(미혼) SQ1=1(남성) SQ4=1(경제활동자)	미혼남녀 경제활동자 ->SQ5, SQ5-1 체크 후 문F1로 이동
	SQ3=2(미혼) SQ1=2(여성) SQ4=1(경제활동자)	
미혼남녀조사	SQ3=2(미혼) SQ1=1(남성) SQ4=2(비경제활동자)	미혼남녀 비경제활동자 ->SQ5, SQ5-1 체크 후 문G1으로 이동
	SQ3=2(미혼) SQ1=2(여성) SQ4=2(비경제활동자)	
	SQ1=1(남자) SQ3=1(기혼)	->조사대상 아님

SQ 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인천 ③ 대전 ④ 광주 ⑤ 대구
 ⑥ 울산 ⑦ 부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5-1. 거주지역 RECODE

SQ5-1 Recode	SQ5 6 응답
1) 서울	SQ5 ①
2) 광역시	SQ5 ②~⑦
3) 기타 시군구	SQ5 ⑧ ~ ⑯

<B. 부모 관련 사항>

B1. 귀하는 현재 아버님과 같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 ①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다
- ② 같은 (道)시군구에 살고 있다
- ③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
- ④ 이미 돌아가셨다 ▶ B3으로 이동
- ⑤ 잘모름/무응답 ▶ B2로 이동

B1-1. (B1의 ①~③ 응답자) 현재 아버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B2. 아버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수료 포함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 ⑨ 잘모름/무응답

B3. 귀하는 현재 어머님과 같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 ①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다
- ② 같은 (道)시군구에 살고 있다
- ③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
- ④ 이미 돌아가셨다 ▶ (년 월) ▶ B4로 이동
- ⑤ 잘모름/무응답 ▶ B4로 이동

B3-1. (B3의 ①~③ 응답자) 현재 어머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B4. 어머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수료 포함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 ⑨ 잘모름/무응답

B5. 귀하께서는 부모님께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① 전적으로 받고 있다
- ② 일부(50%이상)를 도움 받고 있다
- ③ 일부(50%미만)를 도움 받고 있다
- ④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 ⑤ 잘모름/무응답

<C. 가치관 관련 사항>

C1. 귀하께서는 다음의 여성의 삶에 대한 보기 중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①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
- ②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두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
- ③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 한다
- ④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
- ⑤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그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
- ⑥ 잘 모르겠다

C2. 귀하께서는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다음 중 귀하의 취업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정규직
- ②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 ③ 파견(용역) 및 계약 사원
- ④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 ⑤ 무직
- ⑥ 학생
- ⑦ 잘모름/무응답

C3. 그럼 결혼 직후의 취업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정규직
- ②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 ③ 파견(용역) 및 계약 사원
- ④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 ⑤ 무직
- ⑥ 학생
- ⑦ 잘모름/무응답

C4. 귀하께서는 "가능한 한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대체로 찬성한다
- ③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

<D. 배우자 사항>

D1. 귀하의 남편분께서는 연령이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만 세) ▶ ① 만18세 미만은 조사 중단
 ① 만18세 미만 ② 만18~24세 ③ 만25~29세 ④ 만30~34세
 ⑤ 만35~39세 ⑥ 만40~49세 ⑦ 만 50~59세 ⑧ 만60세 이상

D2. 귀하의 남편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중학교 이하
- ② 남녀공학 고등학교
- ③ 남자 고등학교
- ④ 2·3 년제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 ⑤ 4년제 대학(5·6년제 대학 포함)
- ⑥ 대학원
- ⑦ 그 외(구체적으로 _____)
- ⑧ 잘모름/무응답

D2-1. 귀하의 남편은 그 학교를 졸업하십니까?

- ① 졸업했다 ② 현재, 재학중(휴학도 포함)
- ③ 잘모름/무응답

※ 귀하의 부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D3. 결혼식은 언제 하셨습니다까? (같이 살게 된 시기가 빠르면 같이 살게 된 시기를 응답)
 ____년 ____ 월

D4. 그럼 두 분이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 ② 직장 및 일 관계로
-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서 살아서
- ④ 학교 이외의 동아리나 학원 등에서
- ⑤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소개팅)
- ⑥ 선을 봐서 (친척이나 상사의 소개를 포함)
- ⑦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 ⑧ 길거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 ⑨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 ⑩ 기타 (자세히: _____)
- ⑪ 잘모름/무응답

D5. 최종적으로 결혼을 결정했을 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시요 1순위:() 2순위:()

- ① 결혼자금(결혼식과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준비가 되어서
- ② 수입과 주거 등 신혼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서
- ③ 자신 또는 상대방 직장 상황
- ④ 가능한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 ⑤ 연령적으로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 ⑥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 ⑦ 아이가 생겨서
- ⑧ 친구 또는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결혼해서
- ⑨ 부모님과 주변의 성화
- ⑩ 기타 (자세히:)
- ⑪ 잘모름/무응답

<E. 자녀 사항>

E1.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E1-1로 이동 ② 없다 ▶ E2로 이동

E1-1. 그럼 자녀가 몇 명이신가요? ____ 명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____명)
- ⑨ 잘모름/무응답

E1-2. 그럼 첫째 자녀는 몇 살인가요? 만 ____ 살

- ① 만 1세 미만 ② 만1~3세
- ③ 만4~6세 ④ 만7~12세
- ⑤ 만13~18세 ⑥ 만19세 이상
- ⑨ 잘모름/무응답

E1-3. 그럼 첫째 자녀의 임신을 알았을 때의 취업 상황은 어떠하셨습니다니까?

- ① 정규직 ②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 ③ 파견 및 계약 사원 ④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 ⑤ 무직 ⑥ 학생
- ⑨ 잘모름/무응답

E1-4. (E1-2의 ① 응답자 제외) 그럼 첫째가 한 살이 되었을 때의 취업 상황은 어떠하셨습니다까?

- ① 정규직 ②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③ 파견 및 계약 사원 ④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⑤ 무직 ⑥ 학생
⑦ 모름/무응답

E2. 귀하의 부부에게 있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____ 명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이상 (명) ⑨ 모름/무응답

E3. 귀하 부부는 앞으로 몇 명 더 자녀를 두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⑤ 낱을 생각이 없다
⑥ 모름/무응답

E4. 만약 앞으로 가지려 하는 자녀의 수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응답후 DQ1로 이동

1순위: () 2순위: ()

- ① 수입 불안정
- ② 자신 또는 남편의 직장(근무 혹은 가업)의 사정
- ③ 가사·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
- ④ 어린이집 등의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음
- ⑤ 현재의 자녀에게 손이 많이 가는 것
- ⑥ 연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가지기 어려움
- ⑦ 기타 (자세하:)
- ⑧ 잘못됨/무응답

II 미혼남녀 조사

조사구분	조건(모든 조건 AND)	대상자 구분
미혼남녀조사	SQ3=2(미혼) SQ1=1(남성) SQ4=1(경제활동자)	미혼남녀 경제활동자 ->문 F1부터 설문시작
	SQ3=2(미혼) SQ1=2(여성) SQ4=1(경제활동자)	
	SQ3=2(미혼) SQ1=1(남성) SQ4=2(비경제활동자)	미혼남녀 비경제활동자 ->문 G1부터 설문시작
	SQ3=2(미혼) SQ1=2(여성) SQ4=2(비경제활동자)	

<F 경제활동 관련 사항>

F1. (SQ4의 ①응답자만)현재 하시는 일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 ② 파트 타임 및 아르바이트
- ③ 파견(용역) 및 계약 사원
- ④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 ⑤ 잘모름/무응답

F2. (SQ4의 ①응답자만)현재 직장은 직원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본사와 지사가 나누어진 경우는 전체를 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____ 명

- ① 1~9명
- ② 10~29명
- ③ 30~99명
- ④ 100~299명
- ⑤ 300~999명
- ⑥ 1000명 이상
- ⑦ 관공서 및 공공기관
- ⑧ 잘모름/무응답

F3. 지난 1개월간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일(근무)을 하셨습니까?

평균 ____ 시간

<G 부모관련 사항>

G1. 귀하는 현재 아버님과 같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 ①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다
- ② 같은 (道)시군구에 살고 있다
- ③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
- ④ 이미 돌아가셨다 ▶ G3으로 이동
- ⑤ 잘모름/무응답 ▶ G2로 이동

G1-1. (G1의 ①~③ 응답자) 현재 아버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G2. 아버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수료 포함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 ⑨ 잘모름/무응답

G3. 귀하는 현재 어머님과 같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 ①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다
- ② 같은 (道)시군구에 살고 있다
- ③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
- ④ 이미 돌아가셨다 ▶ G5로 이동
- ⑤ 잘모름/무응답 ▶ G4로 이동

G3-1. (G3의 ①~③ 응답자) 현재 어머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G4. 어머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수료 포함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 ⑨ 잘모름/무응답

G5. 귀하께서는 부모님께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① 전적으로 받고 있다 ② 일부(50%이상)를 도움 받고 있다
- ③ 일부(50%미만)를 도움 받고 있다 ④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 ⑤ 잘모름/무응답

13.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 ② 직장 및 일 관계로
- ③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에 살아서
- ④ 학교이외의 동아리나 학원등에서
- ⑤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 ⑥ 선을 봐서(친척이나 상사의 소개를 포함)
- ⑦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 ⑧ 길거리나 여행중에 알게 되어서
- ⑨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 ⑩ 기타 (자세히:)
- ⑪ 잘모름/무응답

14. 교제 상대는 언제 태어났습니까?(생년월일을 모를 경우 만나이를 응답받아주세요)

교제 상대 만 나이: (_____ 세)

15. 교제 상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중학교 이하
- ② 남녀공학 고등학교
- ③ 남자 고등학교·여자 고등학교
- ④ 2·3 년제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 ⑤ 여자 대학교(4년제, 5·6년제 대학 포함)
- ⑥ 4년제 대학(5·6년제 대학 포함)
- ⑦ 대학원
- ⑧ 기타 (자세히:)
- ⑨ 잘모름/무응답

16. 교제 상대가 현재 하시는 일의 근무 형태는 다음의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
- ②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 ③ 파견(용역) 및 계약 사원
- ④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 ⑤ 무직
- ⑥ 학생
- ⑨ 잘모름/무응답

17. (가장 가까운) 교제 상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18로)
- ② 특별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19로)

I8.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또는 이상적인 상대가 있는 경우)과 1년 이내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장애가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가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 문I8-1로)
- ② 장애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I9로)

I8-1. 어떤 장애가 있는지 제가 불러드리는 보기 중 장애가 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결혼생활을 위한 주거
- ② 결혼자금(결혼식이나 신혼생활 준비를 위한 비용)
- ③ 부모의 승낙
- ④ 부모와의 동거 또는 부양
- ⑤ 학교 또는 학업상의 문제
- ⑥ 직업 또는 일의 문제
- ⑦ 연령상의 문제
- ⑧ 건강상의 문제
- ⑨ 기타 (자세히:)
- ⑩ 잘모름/무응답

※ 귀하의 결혼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I9. 귀하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귀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어느 것입니까?

- ① 언젠가는 결혼하려 생각하고 있다 ②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 ③ 잘모름/무응답

I10. 현재 귀하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고 생각한다 (▶ I10-1로) ② 없다고 생각한다 (▶ DQ1로)
- ③ 잘모름/무응답(▶ DQ1로)

I10-1.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불러드리는 보기 중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 ②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주위의 결혼한 사람과 대등해진다
- ③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 ④ 현재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같이 살 수 있다
- ⑤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
- ⑥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⑦ 생활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다
- ⑧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 ⑨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 ⑩ 기타 (자세히:)
- ⑪ 모름/무응답

<DQ. 자료 분류 질문>

DQ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중학교 이하
- ② 남녀공학 고등학교
- ③ 여자 고등학교
- ④ 2·3 년제 대학(전문대학, 기술·기능대학 포함)
- ⑤ 여자 대학교(4년제, 5·6년제 대학 포함)
- ⑥ 4년제 대학(5·6년제 대학 포함)
- ⑦ 대학원
- ⑧ 그 외(구체적으로 _____)
- ⑨ 모름/무응답

DQ1-1. 귀하는 그 학교를 졸업하십니까?

- ① 졸업했다 ② 현재, 재학중(휴학도 포함) ③ 모름/무응답

DQ2. (SQ4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작년 1년간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 | | |
|-------------------|-------------------|
| ① 500만원이하 | ② 500~1,000만원미만 |
| ③ 1,000~1,500만원미만 | ④ 1,500~2,000만원미만 |
| ⑤ 2,000~2,500만원미만 | ⑥ 2,500~3,000만원미만 |
| ⑦ 3,000~3,500만원미만 | ⑧ 3,500~4,000만원미만 |
| ⑨ 4,000~5,000만원미만 | ⑩ 5,000~6,000만원미만 |
| ⑪ 6,000~7,000만원미만 | ⑫ 7,000만원이상 |
| ⑬ 모름/무응답 | |

DQ3. (SQ3의 ② 응답자만) 남편의 작년 1년간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 | | |
|-------------------|-------------------|
| ① 500만원이하 | ② 500~1,000만원미만 |
| ③ 1,000~1,500만원미만 | ④ 1,500~2,000만원미만 |
| ⑤ 2,000~2,500만원미만 | ⑥ 2,500~3,000만원미만 |
| ⑦ 3,000~3,500만원미만 | ⑧ 3,500~4,000만원미만 |
| ⑨ 4,000~5,000만원미만 | ⑩ 5,000~6,000만원미만 |
| ⑪ 6,000~7,000만원미만 | ⑫ 7,000만원이상 |
| ⑬ 모름/무응답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3편

영아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

이삼식 이지혜

I. 개요

1. 목적

자녀 출산 후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이다.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이용은 초기에 자녀양육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더 나아가 양육기에 자녀의 건강 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출산 직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조사방법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500명으로 201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16개 시도의 0세 아동인구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자녀수, 본인의 취업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 가구의 가구원수, 가구소득과 같은 가구의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과 15개월 이하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정책 관련 사항, 향후 출산 계획 등이다.

15개월 이하 자녀의 수유 실태의 경우에는 먼저 수유 방식을 묻고, 분유를 이용하는 경우 분유를 처음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분유 이용 기간, 향후 분유를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지의 기간, 이용하고 있는 분유의 종류와 구매 경로, 구입 시 고려사항, 분유값 및 양육비 대비 분유값의 비율, 분유 이용 이유 등을 질문하였다.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

후에 분유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이용할 계획인 경우 언제부터 이용할 것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15개월 이하 자녀의 기저귀 이용 실태의 경우에는 이용하고 있는 기저귀 종류에 대해 묻고 종이기저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제품명과 구매 경로, 구입 시 고려사항, 하루 평균 사용량, 기저귀값 및 양육비 대비 기저귀값의 비율 등을 질문하였다. 천기저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품명, 천기저귀 이용 이유, 하루 평균 사용량, 세탁 방법, 구입 비용과 이용 기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분유 및 기저귀값이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와 향후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시 찬성 정도, 기저귀와 분유 각각에 대하여 지원 계층, 선호 품목, 선호하는 지원 방식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녀 출산 의향에 대하여 묻고 정부의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시 양육비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와 추가자녀 출산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3-1〉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연령, 자녀수, 가구원수, 취업여부, 가구소득
15개월 이하 자녀 수유 실태	수유 방식, 분유이용 시 시작 시점, 분유 이용 기간, 향후 이용기간, 이용 분유 종류, 구매 경로, 구입 시 고려사항, 분유값, 자녀양육비 대비 분유값 비율, 분유 이용 이유, 모유수유 시 향후 분유 이용 계획, 이용 시기
15개월 이하 자녀 기저귀 이용실태	이용 기저귀 종류, 1회용 종이기저귀 이용 시 이용 1회용 종이기저귀 종류, 구매 경로, 구입 시 고려사항, 하루 평균 사용량, 기저귀값, 자녀양육비 대비 기저귀값 비율, 천기저귀 이용 시 이용 천기저귀 종류, 천기저귀 사용 이유, 하루 평균 사용량, 세탁 방법, 구입 비용, 천기저귀 이용 기간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정책 관련	분유 및 기저귀값의 가계부담 정도, 향후 기저귀 지원 시 찬성 정도, 기저귀 지원 시 지원 계층, 향후 분유 지원 시 찬성 정도, 분유 지원 시 지원 계층, 선호 품목, 지원 방식
향후 출산 계획	추가자녀 출산 의향, 정부의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시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 되는 정도, 정부의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시 추가자녀 출산 의사결정에 도움 되는 정도

조사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조사원이 영아 양육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대인면접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조사는 2013. 8.5~8.19 동안 실시되었다.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연령			가구원수		
20대	79	15.8	3명	212	42.4
30~34세	221	44.2	4명	233	46.6
35~39세	175	35.0	5명 이상	55	11.0
40대	25	5.0	평균(SD)	3.71	(0.74)
평균(SD)	33.31	(3.94)	취업여부		
지역			취업중이나 육아휴직중	36	7.2
대도시	219	43.8	일하고 있음	116	23.2
중소도시	260	52.0	일하고 있지 않음	348	69.6
군지역(읍면)	21	4.2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수			200만원 이하	31	6.2
1명	224	44.8	201~250만원 이하	61	12.2
2명	228	45.6	251~300만원 이하	156	31.2
3명 이상	48	9.6	301~350만원 이하	70	14.0
평균(SD)	1.66	(0.69)	351~400만원 이하	77	15.4
15개월 이하 자녀의 월령			401~500만원 이하	76	15.2
1~3개월	58	11.6	500만원 초과	29	5.8
4~6개월	87	17.4	평균(SD)	350.30	(109.38)
7~9개월	88	17.6	가구동등화소득기준 ¹⁾		
10~12개월	151	30.2	하위 30%이하	178	35.6
13~15개월	116	23.2	30%초과~70%이하	179	35.8
평균(SD)	9.13	(3.86)	70%초과	143	28.6
전체	500	100.0	전체	500	100.0

주: 1) 가구동등화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조사대상자의 가구동등화소득의 분포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함.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3.31세였으며 30대가 79.2%, 20대 15.8%, 40대 5.0%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43.8%, 중소도시 52.0%, 군지역 4.2%였다. 자녀는 평균 1.66명이며, 1명 44.8%, 2명이 45.6%, 3명 이상은 9.6%였다. 15개월 이하 자녀(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녀 기준)의

월령은 평균 9.13개월이며, 10~12개월이 30.2%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 수는 평균 3.71명으로, 4명 46.6%, 3명 42.4%, 5명 이상이 11.0%였다. 응답자들은 15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비취업 비율이 69.6%로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50만원 정도였다. 가구소득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동등화 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저소득층은 조사대상자들의 가구동등화소득 분포에서 하위 30%까지이며 중소득층은 30%초과~70% 이하, 고소득층은 70% 초과(상위 30%)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응답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등과 같이 특정금액으로 몰려 있어 실제 분포는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는 하위 30% 이하가 35.6%, 중간소득인 30%~70%가 35.8%, 70% 초과가 28.6%였다.

II. 영아자녀의 수유실태

1. 수유방식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이유식을 제외하면 모유와 분유를 모두를 수유한 비율(혼합수유)은 44.8%, 모유만 수유와 분유만 수유는 각각 27.8%, 27.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유만 수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대체로 월령이 높아질수록 모유만 수유 비율이 줄어들고 분유만 또는 혼합 수유가 많았다.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경우 모유만 수유 비율이 낮고, 분유만 또는 혼합 수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하면서 모유를 먹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3〉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수유방식

(단위: %, 명)

구 분	모유만	분유만	모유+분유	계	(명)	χ^2
전체	27.8	27.4	44.8	100.0	(500)	
자녀의 월령						
1개월	60.0	0.0	40.0	100.0	(5)	50.766**
2개월	46.7	6.7	46.7	100.0	(15)	
3개월	50.0	18.4	31.6	100.0	(38)	
4개월	27.3	27.3	45.5	100.0	(22)	
5개월	45.2	29.0	25.8	100.0	(31)	
6개월	35.3	29.4	35.3	100.0	(34)	
7개월	28.0	32.0	40.0	100.0	(25)	
8개월	20.6	29.4	50.0	100.0	(34)	
9개월	24.1	27.6	48.3	100.0	(29)	
10개월	22.2	37.5	40.3	100.0	(72)	
11개월	14.3	7.1	78.6	100.0	(14)	
12개월	29.2	32.3	38.5	100.0	(65)	
13개월	10.0	28.0	62.0	100.0	(50)	
14개월	15.2	27.3	57.6	100.0	(33)	
15개월	30.3	18.2	51.5	100.0	(33)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27.5	28.1	44.4	100.0	(178)	5.392
30~70%	33.0	24.0	43.0	100.0	(179)	
70% 초과	21.7	30.8	47.6	100.0	(143)	
거주지						
대도시	35.6	21.0	43.4	100.0	(219)	20.539***
중소도시	23.5	31.2	45.4	100.0	(260)	
읍·면·부	0.0	47.6	52.4	100.0	(21)	
취업여부						
취업	12.5	39.5	48.0	100.0	(152)	30.516***
비취업	34.5	22.1	43.4	100.0	(348)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2. 분유수유 실태

〈표 3-4〉는 분유만 이용하였거나 모유와 분유를 모두 이용한 사람들의 분유 이용 실태 분석 결과이다. 자녀는 평균 2.08개월 때 부터 분유 수유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여성의 경우 분유수유 시작 월령이 1.42개월로 비취업 중인 경우 2.47개월에 비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경우 모유수유가 힘들기 때문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출산 후 45일 정도만 모유를 먹이고 그 후 직장 복귀로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분유수유기간은 평균 7.57개월로 자녀 월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 응답이기 때문에 월령이 어린 경우 그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기간까지를 고려하여 언제까지 분유를 먹일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16.56개월까지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도 자녀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약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자녀가 15개월인 경우 향후 분유수유 종료시기는 15개월보다 더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표 3-4〉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시작 월령 및 이용기간, 향후 이용예측기간

(단위: 명, 개월)

구 분	(명)	분유수유 시작월령		분유수유 기간		분유수유 예정월령	
		평균	F	평균	F	평균	F
전체	(361)	2.08		7.57		16.56	
자녀의 월령							
1개월	(2)	0.38		0.75		13.50	
2개월	(8)	0.47		1.66		12.88	
3개월	(19)	0.67		2.43		15.11	
4개월	(16)	0.81		3.42		16.44	
5개월	(17)	0.97		4.18		14.76	
6개월	(22)	1.17		4.86		15.86	
7개월	(18)	1.46	3.458***	5.64	36.011***	15.00	5.057***
8개월	(27)	2.06		6.06		14.52	
9개월	(22)	2.05		7.14		15.23	
10개월	(56)	2.10		8.02		16.75	
11개월	(12)	3.46		7.15		13.50	
12개월	(46)	2.16		9.98		17.22	
13개월	(45)	2.68		10.25		18.58	
14개월	(28)	3.14		10.96		18.96	
15개월	(23)	3.73		11.04		19.17	
가구동등화소득							
30% 이하	(129)	2.33	2.296	7.63	.279	17.16	3.977*
30~70%	(120)	2.20		7.70		16.73	
70% 초과	(112)	1.68		7.36		15.68	
취업여부							
취업	(133)	1.42	15.697***	8.01	3.047	16.56	.000
비취업	(228)	2.47		7.31		16.56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이용하고 있는 분유의 종류는 남양 임페리얼 드림 XO 제품이 3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매일 엡솔루트 명작 17.7%, 매일 엡솔루트 궁 8.0%, 남양 아기사랑 수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는 남양유업의 분유가 48.8%로 절반 정도였고, 매일유업이 28.5%, 일동후디스가 12.2%, 파스퇴르가 9.4%였으며 해외 제품과 기타 제품은 각각 0.6%에 불과하였다.

〈표 3-5〉 15개월 이하 자녀의 이용 분유

(단위: %, 명)

구 분	가구동등화 소득 ¹⁾			계	χ^2
	30%이하	30~70%	70%초과		
전체	100.0	100.0	100.0	100.0	
남양유업					
남양 임페리얼 드림 XO	41.9	31.7	24.1	33.0	
남양 아이엠 마더	4.7	6.7	8.9	6.6	
남양 아기사랑 수	7.8	7.5	8.0	7.8	
남양 마더스 오가닉	0.0	0.8	0.0	0.3	
남양 산양 유아식	1.6	0.8	0.9	1.1	
매일유업					
매일 엡솔루트 명작	16.3	15.8	21.4	17.7	
매일 엡솔루트 궁	5.4	9.2	9.8	8.0	
매일 엡솔루트 센서티브	1.6	0.0	0.0	0.6	
매일맘마 QT	0.8	2.5	3.6	2.2	
일동후디스					42.082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분유	3.9	6.7	7.1	5.8	
후디스 트루맘 슈퍼 프리미엄 쿤	1.6	0.0	0.9	0.8	
후디스 트루맘 프리미엄	0.8	3.3	0.0	1.4	
후디스 프리미엄	1.6	3.3	2.7	2.5	
후디스 트루맘 프리미엄 후레쉬	1.6	0.8	2.7	1.7	
파스퇴르					
파스퇴르 위드맘	3.1	5.0	2.7	3.6	
파스퇴르 그랑노블	1.6	0.0	0.0	0.6	
파스퇴르 명품 유기농	1.6	0.0	0.9	0.8	
파스퇴르 위드맘 산양분유	2.3	5.0	6.3	4.4	
해외제품	0.8	0.8	0.0	0.6	
기타	1.6	0.0	0.0	0.6	
사례수	129	120	112	361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분유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품질이라는 응답이 51.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브랜드가 32.7%, 가격이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품질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중간소득 계층은 브랜드를 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3-6〉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분유제품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 분	가격	브랜드	품질	기타	계	(명)	χ^2
전체	12.7	32.7	51.2	3.3	100.0	(361)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13.2	27.1	56.6	3.1	100.0	(129)	15.391*
30~70%	14.2	43.3	37.5	5.0	100.0	(120)	
70% 초과	10.7	27.7	59.8	1.8	100.0	(112)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분유구입경로는 대형할인마트가 53.5%, 온라인쇼핑몰이 45.4%로 이 두 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형마트를,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대형마트 접근성 등이 읍면부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읍면부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쇼핑몰이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7〉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분유 구입경로

(단위: %, 명)

구 분	온라인쇼핑몰 대형할인마트		기타	계	(명)	χ^2
전체	45.4	53.5	1.1	100.0	(361)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51.2	47.3	1.6	100.0	(129)	3.611
30~70%	44.2	55.0	0.8	100.0	(120)	
70% 초과	40.2	58.9	0.9	100.0	(112)	
거주지						
대도시	36.2	63.8	0.0	100.0	(141)	15.777**
중소도시	49.2	48.7	2.0	100.0	(199)	
읍면부	71.4	28.6	0.0	100.0	(21)	
취업여부						
취업	41.4	57.9	0.8	100.0	(133)	1.785
비취업	47.8	50.9	1.3	100.0	(228)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월평균 분유값은 약 1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분유만 먹이는 경우에는 약 12만원으로 혼합수유의 경우 약 10만원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 이용 시 월평균 분유값

(단위: 명, 천원)

구 분	(명)	최근 한 달		최근 3달 평균	
		평균	F	평균	F
전체	(361)	108.61		108.15	
자녀의 월령					
1개월	(2)	45.00		45.00	
2개월	(8)	89.38		86.25	
3개월	(19)	107.11		99.88	
4개월	(16)	102.00	1.937*	99.56	1.862*
5개월	(17)	110.00		107.45	
6개월	(22)	104.09		100.48	
7개월	(18)	102.22		100.56	
8개월	(27)	106.22		109.86	
9개월	(22)	124.18		123.50	

〈표 3-8〉 계속

구 분	(명)	최근 한 달		최근 3달 평균	
		평균	F	평균	F
자녀의 월령					
10개월	(56)	121.21	1.937*	118.89	1.862*
11개월	(12)	138.33		138.33	
12개월	(46)	105.93		105.39	
13개월	(45)	99.18		103.19	
14개월	(28)	116.29		117.23	
15개월	(23)	91.13		93.45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129)	109.12	.430	108.87	.385
30~70%	(120)	105.77		105.41	
70% 초과	(112)	111.07		110.27	
수유형태별					
분유수유	(137)	120.74	17.421***	119.33	15.057***
혼합수유	(224)	101.19		101.31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자녀 양육비 대비 분유값은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이 취업중인 경우 자녀 양육비 대비 분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득수준별로 월평균 분유값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소득이 높거나 여성이 취업중인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예를 들어 장난감 비용 등을 더 많이 쓰는 등 자녀 양육비로 더 많은 금액을 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이 취업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직접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거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등으로 인해 양육비가 더 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9〉 15개월 이하 자녀의 양육비 대비 분유값 비율

(단위: %, 명)

구 분	20% 이하	21~30%	30% 초과	계	(명)	평균	χ^2
전체	30.5	35.7	33.8	100.0	(361)	29.99	
자녀의 월령							
1개월	100.0	-	-	100.0	(2)	5.00	
2개월	50.0	37.5	12.5	100.0	(8)	22.88	
3개월	42.1	31.6	26.3	100.0	(19)	27.63	
4개월	43.8	37.5	18.8	100.0	(16)	25.88	
5개월	35.3	52.9	11.8	100.0	(17)	27.53	
6개월	27.3	36.4	36.4	100.0	(22)	29.59	
7개월	16.7	44.4	38.9	100.0	(18)	31.94	37.022
8개월	25.9	29.6	44.4	100.0	(27)	32.70	
9개월	13.6	36.4	50.0	100.0	(22)	33.41	
10개월	26.8	32.1	41.1	100.0	(56)	31.43	
11개월	8.3	66.7	25.0	100.0	(12)	33.33	
12개월	39.1	28.3	32.6	100.0	(46)	29.30	
13개월	37.8	40.0	22.2	100.0	(45)	26.91	
14개월	32.1	21.4	46.4	100.0	(28)	32.86	
15개월	17.4	43.5	39.1	100.0	(23)	32.39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24.0	36.4	39.5	100.0	(129)	32.36	13.464**
30~70%	24.2	38.3	37.5	100.0	(120)	31.83	
70% 초과	44.6	32.1	23.2	100.0	(112)	25.29	
취업여부							
취업	44.4	27.8	27.8	100.0	(133)	26.77	15.966***
비취업	22.4	40.4	37.3	100.0	(228)	31.88	
수유방식							
분유수유	26.3	38.7	35.0	100.0	(137)	31.12	1.974
혼합수유	33.0	33.9	33.0	100.0	(224)	29.30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가 45.4%로 가장 많았고,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아이가 커서)’가 28.5%, ‘일을 하고 있어서’가 21.1%였으며 기타가 5%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인 경우 일을 하고 있어서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저소득층은 모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많았다. 고소득층인 경우 상대적으로 맞벌이가 많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취업상태별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이 취업한 경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유를 먹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많았다.

〈표 3-10〉 15개월 이하 자녀에 분유를 먹이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모유가 불충분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	기타	계	(명)	χ^2
전체	45.4	21.1	28.5	5.0	100.0	(361)	
자녀의 월령							
1개월	100.0	0.0	0.0	0.0	100.0	(2)	34.589
2개월	37.5	25.0	25.0	12.5	100.0	(8)	
3개월	47.4	36.8	5.3	10.5	100.0	(19)	
4개월	50.0	31.3	18.8	0.0	100.0	(16)	
5개월	47.1	11.8	35.3	5.9	100.0	(17)	
6개월	40.9	13.6	36.4	9.1	100.0	(22)	
7개월	55.6	5.6	27.8	11.1	100.0	(18)	
8개월	44.4	25.9	25.9	3.7	100.0	(27)	
9개월	31.8	31.8	27.3	9.1	100.0	(22)	
10개월	48.2	19.6	32.1	0.0	100.0	(56)	
11개월	58.3	16.7	25.0	0.0	100.0	(12)	
12개월	47.8	19.6	30.4	2.2	100.0	(46)	
13개월	40.0	20.0	33.3	6.7	100.0	(45)	
14개월	28.6	28.6	35.7	7.1	100.0	(28)	
15개월	60.9	13.0	21.7	4.3	100.0	(23)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55.0	5.4	31.8	7.8	100.0	(129)	77.522***
30~70%	46.7	12.5	36.7	4.2	100.0	(120)	
70% 초과	33.0	48.2	16.1	2.7	100.0	(112)	
취업여부							
취업	27.1	54.1	15.0	3.8	100.0	(133)	139.180***
비취업	56.1	1.8	36.4	5.7	100.0	(228)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3. 모유수유 시 향후 분유수유 계획

현재 자녀 수유방식과 모유만 수유하고 있는 경우 향후 분유수유 계획

은 다음과 같다. 현재 모유만 수유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분유를 수유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15.2%로 향후 분유 수유 계획이 있는 경우인 8.6%에 비해 더 많았고 자녀가 어린 경우 향후에 분유를 수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3-11〉 15개월 이하 자녀의 현재 수유방식 및 모유수유 시 분유수유 계획

(단위: %, 명)

구 분	분유수유	혼합수유	모유수유			계	(명)	χ^2
			분유수유 계획없음	분유수유 계획있음	분유수유 모르겠음			
전체	27.4	44.8	15.2	8.6	4.0	100.0	(500)	
자녀의 월령								
1개월	0.0	40.0	40.0	20.0	0.0	100.0	(5)	
2개월	6.7	46.7	13.3	33.3	0.0	100.0	(15)	
3개월	18.4	31.6	28.9	13.2	7.9	100.0	(38)	
4개월	27.3	45.5	4.5	18.2	4.5	100.0	(22)	
5개월	29.0	25.8	22.6	19.4	3.2	100.0	(31)	
6개월	29.4	35.3	11.8	11.8	11.8	100.0	(34)	
7개월	32.0	40.0	12.0	16.0	0.0	100.0	(25)	86.646**
8개월	29.4	50.0	8.8	5.9	5.9	100.0	(34)	
9개월	27.6	48.3	13.8	6.9	3.4	100.0	(29)	
10개월	37.5	40.3	11.1	6.9	4.2	100.0	(72)	
11개월	7.1	78.6	7.1	7.1	0.0	100.0	(14)	
12개월	32.3	38.5	20.0	4.6	4.6	100.0	(65)	
13개월	28.0	62.0	8.0	0.0	2.0	100.0	(50)	
14개월	27.3	57.6	12.1	3.0	0.0	100.0	(33)	
15개월	18.2	51.5	27.3	0.0	3.0	100.0	(33)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28.1	44.4	14.0	8.4	5.1	100.0	(178)	7.915
30~70%	24.0	43.0	17.3	11.7	3.9	100.0	(179)	
70% 초과	30.8	47.6	14.0	4.9	2.8	100.0	(143)	
취업여부								
취업	39.5	48.0	7.2	3.9	1.3	100.0	(152)	30.668***
비취업	22.1	43.4	18.7	10.6	5.2	100.0	(348)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현재 모유만 먹이고 있으나 앞으로 분유를 먹일 계획이 있는 경우, 분유를 언제부터 먹일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10개월 정도부터 분유를 먹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수유 계획 시 시작월령

(단위: 명, 개월)

구 분	(명)	평균	F
전체	(43)	10.02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15)	10.95	2.373
30~70%	(21)	10.04	
70% 초과	(7)	8.00	
거주지			
대도시	(30)	10.03	.010
중소도시	(13)	10.00	
취업여부			
취업	(6)	9.33	.350
비취업	(37)	10.14	

* p<0.05, ** p<0.01, *** p<0.001.

주: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현재 분유를 먹고 있는 경우 분유를 먹이기 시작한 자녀의 월령과 현재 모유만 먹고 있으나 향후 분유를 먹일 계획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분유를 먹일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함께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가 평균 2.93개월 때 부터 분유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거나 향후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가 더 어린 시기에 분유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거나 향후에 이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 현실적으로 모유를 먹이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맛별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3〉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수유 시작 및 계획 월령

(단위: 명, 개월)

구 분	(명)	평균	F
전체	(404)	2.93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144)	3.23	5.403**
30~70%	(141)	3.36	
70% 초과	(119)	2.05	
거주지			
대도시	(171)	3.55	4.810**
중소도시	(212)	2.44	
읍면부	(21)	2.87	
취업여부			
취업	(139)	1.76	24.46***
비취업	(265)	3.54	

* p<0.05, ** p<0.01, *** p<0.001.

주: 분유를 먹고 있는 경우와 모유를 먹고 있지만 분유를 수유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

III. 영아 자녀의 기저귀 이용 실태

1. 기저귀 이용 방식

이용하고 있는 기저귀가 천기저귀인지 종이기저귀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이기저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98.4%였고 천기저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0.4%, 천기저귀와 종이기저귀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은 1.2%에 불과하였다. 결론적으로 15개월 이하 자녀 양육 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인 99.6%(종이기저귀만 98.4%, 종이기저귀와 천기저귀 함께 1.2%)가 종이기저귀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15개월 이하 자녀의 기저귀 이용 방식

(단위: %, 명)

구 분	종이 기저귀만	천기저귀만	종이기저귀와 천기저귀 함께 이용	계	(명)	χ^2
전체	98.4	0.4	1.2	100.0	(500)	
자녀의 월령						
1개월	100.0	0.0	0.0	100.0	(5)	
2개월	100.0	0.0	0.0	100.0	(15)	
3개월	100.0	0.0	0.0	100.0	(38)	
4개월	100.0	0.0	0.0	100.0	(22)	
5개월	96.8	0.0	3.2	100.0	(31)	
6개월	97.1	2.9	0.0	100.0	(34)	
7개월	96.0	0.0	4.0	100.0	(25)	23.396
8개월	100.0	0.0	0.0	100.0	(34)	
9개월	96.6	0.0	3.4	100.0	(29)	
10개월	100.0	0.0	0.0	100.0	(72)	
11개월	92.9	0.0	7.1	100.0	(14)	
12개월	95.4	1.5	3.1	100.0	(65)	
13개월	100.0	0.0	0.0	100.0	(50)	
14개월	100.0	0.0	0.0	100.0	(33)	
15개월	100.0	0.0	0.0	100.0	(33)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97.2	0.6	2.2	100.0	(178)	3.383
30~70%	98.9	0.6	0.6	100.0	(179)	
70% 초과	99.3	0.0	0.7	100.0	(143)	
취업여부						
취업	98.7	0.0	1.3	100.0	(152)	.900
비취업	98.3	0.6	1.1	100.0	(348)	

* p<0.05, ** p<0.01, *** p<0.001.

2. 종이기저귀 이용 실태

종이기저귀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하gis 프리미어가 4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하gis 매직팬티 14.9%, 보솜이 프리미엄 천연코튼 9.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11.0%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는 유한킴벌리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67.9%로 가장 많았다.

〈표 3-15〉 15개월 이하 자녀의 이용 종이기저귀 제품

(단위: %, 명)

구 분	가구동등화 소득			계	(명)	χ^2
	30% 이하	30~70%	70%초과			
전체	100.0	100.0	100.0	100.0	(498)	
유한 캄벌리						
하기스 프리미어	42.9	36.5	41.3	40.2	(200)	
하기스 네이처 메이드	7.3	11.2	9.8	9.4	(47)	
하기스 매직팬티	13.6	13.5	18.2	14.9	(74)	
하기스 크린베베	1.7	2.2	0.0	1.4	(7)	
하기스 소프트 드라이	0.0	2.2	2.1	1.4	(7)	
하기스 기타	0.6	1.1	0.0	0.6	(3)	
깨끗한 나라(대한펄프)						
보숨이 프리미엄천연코튼	6.8	14.6	5.6	9.2	(46)	
보숨이 올리브 소프트	2.8	0.6	2.8	2.0	(10)	
LG 유니참						34.197
마미포코	2.8	2.8	1.4	2.4	(12)	
LG 생활건강						
토디앙 자운보	3.4	2.8	2.8	3.0	(15)	
토디앙 화이트 클라우드	0.0	0.0	0.7	0.2	(1)	
토디앙 스키니 소프트	0.6	0.0	0.0	0.2	(1)	
토디앙 녹차(녹차 마방)	1.7	1.1	0.7	1.2	(6)	
수안산업						
나비잠, 오보소	2.3	2.2	0.7	1.8	(9)	
기타 국내산	1.1	1.1	0.7	1.0	(5)	
해외 제품	12.4	7.9	13.3	11.0	(55)	

* p<0.05, ** p<0.01, *** p<0.001.

종이기저귀 선택 시 고려사항은 품질이 50.6%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가 28.5%, 가격이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유와 비교했을 때 품질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비슷한 반면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종이기저귀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저귀 보다는 자녀가 직접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유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6〉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종이기저귀 선택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 분	가격	브랜드	품질	제조일자	계	(명)	χ^2
전체	20.1	28.5	50.6	0.8	100.0	(498)	
가구소득수준별							
30% 이하	21.5	25.4	52.0	1.1	100.0	(177)	5.703
30~70%	20.8	33.7	44.9	0.6	100.0	(178)	
70% 초과	17.5	25.9	55.9	0.7	100.0	(143)	
거주지							
대도시	21.7	25.3	53.0	0.0	100.0	(217)	8.760
중소도시	19.6	31.5	47.3	1.5	100.0	(260)	
읍면부	9.5	23.8	66.7	0.0	100.0	(21)	
취업여부							
취업	19.7	28.9	51.3	0.0	100.0	(152)	1.806
비취업	20.2	28.3	50.6	0.8	100.0	(346)	

* p<0.05, ** p<0.01, *** p<0.001.

종이기저귀를 구입한 경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58.0%, 대형 할인마트가 41.0%로 나타났다. 분유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53.5%,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45.4%로 나타난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앞서 제품선택 시 고려사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저귀의 경우 분유보다는 가격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형 할인마트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 및 거주지역별로는 분유 구입경로와 패턴이 동일하였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거주지역이 읍면부인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대형 할인마트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7〉 15개월 이하 자녀를 위한 종이기저귀 구입경로

(단위: %, 명)

구 분	온라인 쇼핑몰	대형 할인마트	기타	계	(명)	χ^2
전체	58.0	41.0	1.0	100.0	(498)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65.0	32.8	2.3	100.0	(177)	11.487*
30~70%	54.5	45.5	0.0	100.0	(178)	
70% 초과	53.8	45.5	0.7	100.0	(143)	
거주지						
대도시	52.1	47.9	0.0	100.0	(217)	12.968*
중소도시	61.5	36.5	1.9	100.0	(260)	
읍면부	76.2	23.8	0.0	100.0	(21)	
취업여부						
취업	50.7	48.0	1.3	100.0	(152)	4.926
비취업	61.3	37.9	0.9	100.0	(346)	

* p<0.05, ** p<0.01, *** p<0.001.

종이기저귀는 하루에 평균 7.8개를 사용하였으며, 자녀의 월령이 어린 경우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15개월 이하 자녀의 종이기저귀 1일평균 사용개수

(단위: 명, 개)

구 분	(명)	1일평균 사용개수	
		평균	F
전체	(498)	7.84	
자녀의 월령			
1개월	(5)	12.80	12.756***
2개월	(15)	9.93	
3개월	(38)	9.42	
4개월	(22)	8.68	
5개월	(31)	9.16	
6개월	(33)	8.24	
7개월	(25)	8.32	
8개월	(34)	8.15	
9개월	(29)	7.93	
10개월	(72)	7.93	
11개월	(14)	6.36	
12개월	(64)	6.83	
13개월	(50)	6.72	
14개월	(33)	6.79	
15개월	(33)	6.52	

〈표 3-18〉 계속

구 분	(명)	1일평균 사용개수	
		평균	F
가구소득수준별			
30% 이하	(177)	7.82	1.916
30~70%	(178)	7.64	
70% 초과	(143)	8.11	
지역			
대도시	(217)	7.53	4.680*
중소도시	(260)	8.05	
읍·면·부	(21)	8.52	
취업여부			
취업	(152)	8.08	2.672
비취업	(346)	7.74	

* p<0.05, ** p<0.01, *** p<0.001.

월평균 종이기저귀 값은 8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은 자녀의 월령이 어린 경우 더 적었는데, 앞서 자녀의 월령이 어린 경우 하루 평균 종이기저귀 사용 개수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녀의 월령이 어린 경우 신생아용 혹은 소형 기저귀를 이용하는데 기저귀 1개당 가격이 신생아용(~1개월), 소형(1~3개월), 중형(4~9개월), 대형(10개월~)의 순으로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비록 하루 평균 이용 기저귀 개수는 많지만 단가가 낮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9〉 15개월 이하 자녀의 월평균 종이기저귀 사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 분	(명)	최근 한 달 평균		최근 3달 평균	
		평균	F	평균	F
전체	(498)	82.96		83.18	
자녀의 월령					
1개월	(5)	57.00		44.50	
2개월	(15)	75.67		74.00	
3개월	(38)	90.08		88.43	
4개월	(22)	86.95		87.00	
5개월	(31)	102.97		102.55	
6개월	(33)	89.24		89.02	
7개월	(25)	95.60	2.878***	92.33	2.796**
8개월	(34)	76.32		77.98	
9개월	(29)	83.62		84.66	
10개월	(72)	86.46		87.18	
11개월	(14)	90.36		90.00	
12개월	(64)	76.39		77.65	
13개월	(50)	78.94		80.33	
14개월	(33)	68.85		70.72	
15개월	(33)	73.06		73.60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177)	81.71	.335	82.64	.178
30~70%	(178)	82.79		82.63	
70% 초과	(143)	84.70		84.53	
지역					
대도시	(217)	74.67	13.206***	75.31	12.288***
중소도시	(260)	89.02		88.94	
읍면부	(21)	93.43		93.11	
취업여부					
취업	(152)	84.05	.244	83.91	.113
비취업	(346)	82.48		82.86	

* p<0.05, ** p<0.01, *** p<0.001.

자녀 양육비 대비 종이기저귀 값은 평균 27.5%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 양육비 대비 종이기저귀 값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도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유 값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소득수준별로 월평균 종이기저귀 값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소득이 높거나 여성이 취업중인 경우 자녀 양육비에 더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히 여성이 취업중인 경우

에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등의 양육비가 더 들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장난감이나 의복 등에 더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3-20〉 15개월 이하 자녀의 양육비 대비 최근 한달 종이기저귀 값 비율

(단위: %, 명)

구 분	20%이하	21~30%	30%초과	계	(명)	평균	χ^2
전체	39.4	34.9	25.7	100.0	(498)	27.47	
자녀의 월령							
1개월	60.0	0.0	40.0	100.0	(5)	27.00	40.287
2개월	40.0	33.3	26.7	100.0	(15)	30.13	
3개월	42.1	31.6	26.3	100.0	(38)	27.37	
4개월	27.3	22.7	50.0	100.0	(22)	31.86	
5개월	29.0	54.8	16.1	100.0	(31)	28.71	
6개월	21.2	33.3	45.5	100.0	(33)	32.52	
7개월	24.0	52.0	24.0	100.0	(25)	28.84	
8개월	38.2	35.3	26.5	100.0	(34)	25.97	
9개월	37.9	41.4	20.7	100.0	(29)	26.10	
10개월	43.1	30.6	26.4	100.0	(72)	27.86	
11개월	28.6	50.0	21.4	100.0	(14)	27.71	
12개월	46.9	32.8	20.3	100.0	(64)	25.19	
13개월	46.0	34.0	20.0	100.0	(50)	24.98	
14개월	54.5	36.4	9.1	100.0	(33)	23.67	
15개월	39.4	24.2	36.4	100.0	(33)	30.00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35.6	36.7	27.7	100.0	(177)	28.96	18.408**
30~70%	34.3	32.6	33.1	100.0	(178)	29.57	
70% 초과	50.3	35.7	14.0	100.0	(143)	23.00	
거주지							
대도시	38.7	36.9	24.4	100.0	(217)	26.94	1.558
중소도시	39.2	33.5	27.3	100.0	(260)	27.97	
읍면부	47.6	33.3	19.0	100.0	(21)	26.67	
취업여부							
취업	52.0	34.2	13.8	100.0	(152)	22.68	20.908***
비취업	33.8	35.3	30.9	100.0	(346)	29.57	

* p<0.05, ** p<0.01, *** p<0.001.

앞서 살펴본 분유값을 포함하여 기저귀값과 분유값이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된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39.2%로 나타났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고

나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10.4%에 비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89.6%로 훨씬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인 경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92.1%로 고소득층 84.6%에 비해 많았다($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21〉 15개월 이하 자녀의 분유 및 기저귀 값의 가계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계	(명)	χ^2
전체	39.2	50.4	9.6	0.8	100.0	(500)	
가구동등화 소득							
30% 이하	44.9	47.2	7.9	0.0	100.0	(178)	10.980
30~70%	38.5	52.5	8.4	0.6	100.0	(179)	
70% 초과	32.9	51.7	13.3	2.1	100.0	(143)	
거주지							
대도시	40.2	48.9	10.0	0.9	100.0	(219)	3.069
중소도시	38.5	50.8	10.0	0.8	100.0	(260)	
읍·면·부	38.1	61.9	0.0	0.0	100.0	(21)	
취업여부							
취업	38.2	50.0	9.9	2.0	100.0	(152)	3.844
비취업	39.7	50.6	9.5	0.3	100.0	(348)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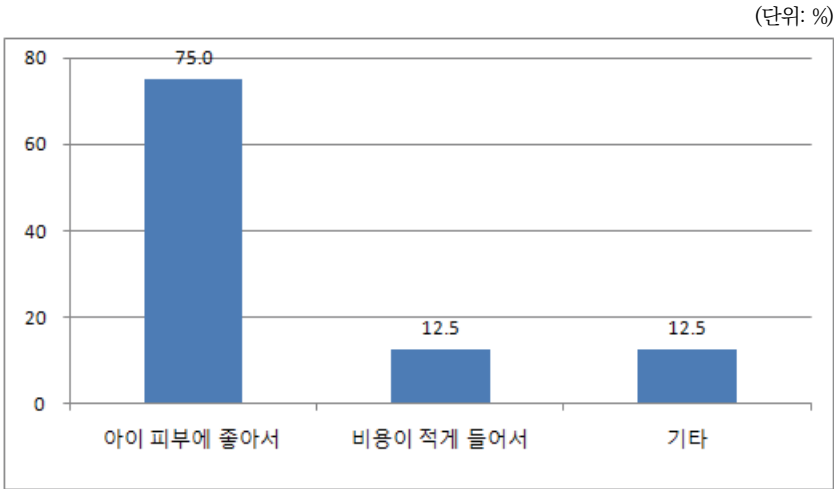
3. 천기저귀 이용 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개월 이하 자녀 양육 시 천기저귀만을 이용하거나(0.4%, 500명 중 2명) 천기저귀와 종이기저귀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1.2%, 500명 중 6명)는 극히 드물다.

천기저귀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천기저귀가 아이 피부에 좋아서’라는 응답이 6명(75.0%), ‘천기저귀가 비용이 적게 들어서’와 ‘기타’(대소변을 빨리 가리게 하기 위해서)가 각각 1명(12.5%)씩 있었다. 즉, ‘환경 보호 차원에서’ 등과 같은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자녀를 위

하거나 가계 부담의 측면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15개월 이하 자녀의 천기저귀 이용 이유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

Ⅳ. 함의

수유양태를 보면, 분유수유와 모유수유가 반반으로 나타난다. 취업여성의 경우 비취업여성에 비해 분유수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분유수유 시기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모유수유로 시작한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혼합수유로 전환하고 있다. 분유수유에 드는 비용은 자녀양육비로서 부담을 상당 수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맞벌이부부의 경우 가구소득수준은 높아질지라도 자녀양육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여성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양육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

도 존재한다.

기저귀 이용실태를 보면, 압도적으로 종이기저귀를 이용하고 있다. 기저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녀양육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 15개월 이하의 여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수유방식과 기저귀 이용행태는 고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유와 기저귀는 영아자녀의 ‘의식(衣食)’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자녀양육항목으로서 이러한 부담은 전체 자녀양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 수유와 기저귀 비용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부록: 조사표 <<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보건 및 복지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만 15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영아 자녀의 분유 및 기저귀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를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감사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OOO)~~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연구원 강 상 석

설사감독원 우 아 름

문 의 자 02-3218-9662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여서는 아니 된다.

SQ1. 귀하는 만 15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면접종단)

☞ 응답자 분류

연 령	만 _____세
취업여부	☐ 1) 취업(파트타임) >> _____시간 ☐ 2) 취업(풀타임) ☐ 3) 미취업
지 역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지역구분	☐ 1) 대도시 ☐ 2) 중소도시 ☐ 3) 군지역(읍/면)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응답자 성명	연차제	() - () - ()
응답자 주소	_____ [시] _____ [군/구] _____ [읍/면/동] 나머지 주소 _____	
면접 상황	면접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____분간)
	면접원 성명	

수퍼바이저		검증		에디팅		코딩	
-------	--	----	--	-----	--	----	--

A. 기본 사항

문1. 귀하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만 세

문2.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명

문3. 만 15개월 이하 자녀의 월령은 몇 개월입니까?

 개월

※ 만 15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1명을 기준으로 응답

문4. 본인을 포함하여 귀하 가구의 가구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명

문5. 귀하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① 일을 하고 있으나 현재 육아휴직중임 ② 일을 하고 있음 ③ 일하고 있지 않음

문6. 남편을 포함하여 귀 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이자수입 등을 합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세금 공제전의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월평균 가구소득은 연평균 가구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의미함.

 만원

B. 수유 행태 (만15개월 이하 자녀)

※ 만15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연장자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는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수유하였습니까?

※ 이유식을 제외하고 모유와 분유만 응답

※ 자녀가 아직 12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유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① 모유만 ~~☐~~(문2로) ② 분유만 ~~☐~~(문1-1로) ③ 모유와 분유 모두 이용~~☐~~(문1-1로)문1-1. (문1에 ②, ③ 응답한 경우) 분유는 자녀가 몇 개월부터 이용하였습니까? 개월 주

※ 자녀가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0개월 _주'로 응답.

※ 처음부터 분유만 먹인 경우에는 '0개월 0주'로 응답

문1-2. (문1에 ②, ③ 응답한 경우) 분유를 먹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개월 주

※ 현재 먹고 있는 경우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기간 계산

문1-3. (문1에 ②, ③ 응답한 경우) 분유를 언제까지 먹일 예정입니까? 자녀 월령 개월까지

※ 분유를 먹이다가 현재 중단한 경우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문1-4 ~ 문1-9)

문1-4.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유는 무엇입니까?

※ 정확한 상품명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명까지만이라도 기입

- | | | |
|----------------|---------------------|-----------------|
| ① 남양 임페리얼드림 XO | ② 남양 아이엠마더 | ③ 남양 야기사랑수 |
| ④ 남양 마더스오가닉 | ⑤ 남양 산양유아식 | ⑥ 매일 엡솔루트 등장 |
| ⑦ 매일 엡솔루트 궁 | ⑧ 매일 엡솔루트 센서티브 | ⑨ 매일달마 QT |
| ⑩ 후디스 프리미엄산양분유 | ⑪ 후디스 트루담 슈퍼 프리미엄 쿼 | ⑫ 후디스 트루담 프리미엄 |
| ⑬ 후디스 프리미엄 | ⑭ 후디스 트루담 프리미엄 후레쉬 | ⑮ 파스퇴르 워드담 |
| ⑯ 파스퇴르 그랑노블 | ⑰ 파스퇴르 명품유기능 | ⑱ 파스퇴르 워드담 산양분유 |
| ⑲ 아이배넷 순산양분유 | ⑳ 해외제품 | ㉑ 기타() |

문1-5. 분유를 구매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구매 또는 제공받고 있습니까?

- | | | |
|-----------|-----------|--------------------------|
| ① 온라인 쇼핑몰 | ② 대형 할인마트 | ③ 백화점 |
| ④ 홈쇼핑 | ⑤ 슈퍼마켓 | ⑥ 중앙정부, 지자체(보건소 포함)에서 받음 |
| ⑦ 기타() | | |

문1-6. 분유를 구입 또는 제공받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가격 | ② 브랜드 | ③ 품질 |
| ④ 제조일자 | ⑤ 원산지 | ⑥ 기타() |

문1-7. 가장 최근 3달간 분유값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최근 3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분유값은 분유를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한달 동안 자녀가 먹는 분유의 양을 고려했을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함.
 분유를 몇 달에 한번씩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몇 달지 한꺼번에 구입한 비용이 아니라 자녀가 먹는 한달
 평균 분유 비용임.
- ※ 자녀가 3개월이 안된 경우 현재까지 기준으로 응답하며, 분유를 먹이다 현재 중단한 경우에는 분유를 먹었을 때
 기준으로 마지막 3달의 분유값 기입
- ※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3달 평균값으로라도 기억하는 경우 평균값으로 기입

1) 가장 최근 1달 천원 2) 그 이전 1달 천원 3) 그 이전 1달 천원

문1-8. 가장 최근 한달 동안의 분유값은 해당 자녀 양육비 대비 몇% 정도입니까?

 %

문1-9.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후 문3으로 이동)

- | | |
|-------------------------------|-------------------|
| ①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 ② 일을 하고 있어서 |
| ③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아이가 커서) | ④ 아이가 아파서 |
| ⑤ 아이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 | ⑥ 엄마의 질병이나 통증 때문에 |
| ⑦ 기타 () | |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

문2. (현재 도유를 수유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이 자녀에게 분유를 먹일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없다 (문 3로)

② 있다 (문 2-1로)

③ 모르겠다 (문 3로)

문2-1. 언제부터 분유를 먹일 계획입니까?

자녀 월령 개월 주부터

C. 기저귀 사용 행태 (만15개월 이하 자녀)

※ 만 15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 귀하의 자녀는 현재 어떤 기저귀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1회용 종이기저귀만 이용 (문3-1로)

② 천기저귀만 이용 (문4로)

③ 1회용 종이기저귀와 천기저귀 함께 이용 (문3-1로)

문3-1. (문3에 ①, ③ 응답한 경우)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기저귀는 무엇입니까?

☐

※ 정확한 상품명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명까지만이라도 기입

① 하gis 프리미어

② 하gis 네이처메이드

③ 하gis 매직팬티

④ 하gis 크림베베

⑤ 하gis 소프트드라이

⑥ 보솜이 프리미엄 천연코튼

⑦ 보솜이 울리브 소프트

⑧ 토디앙 자운보

⑨ 토디앙 화이트클라우드

⑩ 토디앙 퓨어소프트

⑪ 토디앙 스키니소프트

⑫ 토디앙 녹차(녹차 마당)

⑬ 마미포코

⑭ 해피제품 (팜프스, 쿤, 메리즈 등)

⑮ 기타()

문3-2. 1회용 종이기저귀를 구매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구매 또는 제공받고 있습니까?

☐

① 온라인 쇼핑몰

② 대형 할인마트

③ 백화점

④ 홈쇼핑

⑤ 슈퍼마켓

⑥ 중앙정부, 지자체(보건소 포함)에서 발송

⑦ 기타()

문3-3. 1회용 종이기저귀를 구입 또는 제공받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격

② 브랜드

③ 품질

④ 제조일자

⑤ 기타()

문3-4. 1회용 기저귀는 하루에 평균 몇 개 정도 사용하십니까?

 개

문3-5. 지난 3달간 1회용 종이기저귀 값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최근 3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기저귀값은 기저귀를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한달 동안 자녀가 사용하는 기저귀의 값을 고려했을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함. 기저귀를 몇 달에 한번씩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몇 달지 한꺼번에 구입한 비용이 아니라 자녀가 쓰는 한달 평균 기저귀 비용임.

※ 자녀가 3개월이 안된 경우 현재까지 기준으로 응답

※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3달 평균값으로라도 기억하는 경우 평균값으로 기입

1) 가장 최근 1달 천원2) 그 이전 1달 천원3) 그 이전 1달 천원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

문3-6. 가장 최근 한달 동안의 1회용 종이기저귀값은 해당 자녀 양육비 대비 몇% 정도입니까? %
 ※(응답후 문5로 이동)

문4. (문3의 ② 응답자) 이용 하고 계신 천기저귀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난쟁이 동자루 | ② 로한 맘스 오가닉 | ③ 두루 |
| ④ 밤부베베 | ⑤ 자운영 컷 | ⑦ 베이비앙 |
| ⑥ 아꼬야 | ⑧ 아이조아 | ⑩ 오보스 맘존아이 |
| ⑨ 토미토미 | ⑪ 포토리 | ⑫ 한나 베베 |
| ⑬ 해의 계통 | ⑭ 기타() | |

문4-1. 천기저귀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천기저귀가 아이 피부에 좋아서 | ② 천기저귀가 비용이 적게 들어서 |
| ③ 환경 보호 차원에서 | ④ 기타() |

문4-2. 천기저귀는 하루에 평균 몇 개 정도 사용하십니까? 개

문4-3. 천기저귀는 어떻게 세탁하십니까?

- | | | |
|---------|-----------|----------|
| ① 직접 세탁 | ② 세탁업체 이용 | ③ 기타 () |
|---------|-----------|----------|

문4-4. 현재 사용하고 계신 천기저귀의 구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천원

※ 정부나 지자체(보건소 포함)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0원으로 기입

문4-5. 한번 구입하신 천기저귀는 몇 개월 정도 사용하십니까? 개월

D. 향후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정책

문5. 분유 및 기저귀 값이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 | |
|---------------|---------------|
| ① 매우 부담된다 | ② 약간 부담된다 |
| ③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④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문6. 정부가 생후 12개월까지 자녀에게 분유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찬성 | ② 약간 찬성 |
| ③ 별로 찬성하지 않음 | ④ 전혀 찬성하지 않음 |

문7. 정부가 생후 12개월까지 자녀에게 분유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까지 ② 중산층까지 ③ 전 계층

문8. 정부가 생후 12개월까지 자녀에게 기저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약간 찬성 ③ 별로 찬성하지 않음 ④ 전혀 찬성하지 않음

문9. 정부가 생후 12개월까지 자녀에게 기저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까지 ② 중산층까지 ③ 전 계층

문10. 정부가 생후 12개월까지 자녀에게 일정 금액 한도로 기저귀나 분유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품목을 선택할 예정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① 분유 ☐ ② 유축기 ☐ ③ 세탁서비스와 함께 천기저귀
☐ ④ 세탁서비스 없이 천기저귀 ☐ ⑤ 1회용 종이기저귀 ☐ ⑥ 원하는 품목 없음

문11. 정부가 생후 12개월까지 자녀에 대하여 일정 금액 한도로 기저귀나 분유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현금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②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③ 기저귀나 분유 등 직접 현물 ④ 기타 ()

E. 향후 출산 계획

문12. 귀하께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현재 임신 중인 경우 포함)

- ① 있다 (명) (☞13번 문항으로) ② 없다 (☞12-1번 문항으로)

문12-1. 향후 추가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⑤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료, 의류, 의료비 등)	② 실업상태여서 ④ 자녀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 사회적 이유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③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⑩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경쟁이 염려스러워서
3) 가치관	⑪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⑬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⑮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⑰ 아이가 많아서	④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잃어해서 ⑤ 부부간의 생활이 즐거워서 ⑥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4) 가족	⑧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⑨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⑦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5) 건강	②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④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③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6) 기타	⑥ 아이가 많아서	⑧ 기타()

문13. 정부에서 분유나 기저귀를 지원한다면, 이것이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도움이 될 | ② 약간 도움이 될 |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문14. 정부에서 분유나 기저귀를 지원한다면, 이것이 추가자녀 출산 관련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도움이 될 | ② 약간 도움이 될 |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4편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중요도 평가

이삼식 이선희 배혜원

1.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화와 함께 노년기 삶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년의 원만한 삶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따라, 국민 스스로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후준비 영역으로는 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를 들 수 있다. 이들 영역간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별·생애주기별로 노후준비 영역간 상대적 중요성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노인복지 전반 전문가 15명, 노후준비 영역별(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 전문가 각 10명씩 총 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은 노인복지 전반 관련 전문가 13명, 영역별 전문가 30명으로 총 43명이 해당된다.

전문가 조사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12일간)까지 총 2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서면으로 실시되었다. 1차조사는 노후준비 제 영역 및 세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성별·생애주기별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차조사는 1차조사 결과의 타당도 검증 및 영역별 중요도 재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문가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첫째, 성별·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후준비의 제 영역인 대인관계영역, 건강영역, 재무영역, 여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각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즉, 실질적 노후준비 실천의 대상이 되는 30대~60대 남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세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

및 각 영역의 하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대인관계영역, 건강영역, 재무영역, 여가영역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 중요도의 총합은 100점 만점이다.

〈표 4-1〉 전체 및 성·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

노후준비 제 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생활에 대해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또한 각 노후준비 영역은 크게 현재의 상태, 노후생활을 위한 실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세부영역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영역별 하위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총합 역시 100점 만점이다.

〈표 4-2〉 전체, 성 및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세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영역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대인관계 영역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건강영역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재무영역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가영역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II. 영역 내 현재상태와 실천행위간 중요도 비교

1. 대인관계영역

노후준비 영역 중 대인관계영역은 ‘현재의 상태’와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인관계 상태는 배우자(동반자 및 이성친구)와의 대화 충분성 및 친밀도, 자녀와의 대화 충분성,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 단체활동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은 현재 각 개인이 노후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노력 정도, 노후에 있어 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예측 등으로 구성된다.

〈표 4-3〉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의 중요도

(단위: 점)

연령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30대	44.3(19.9)	10.0	75.0	43.1(18.1)	10.0	75.0
40대	46.1(17.9)	10.0	75.0	44.5(14.4)	20.0	75.0
50대	46.8(13.0)	20.0	70.0	49.5(9.7)	35.0	70.0
60대	48.2(12.7)	25.0	70.0	48.8(12.1)	30.0	70.0

주: ‘현재의 상태’와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의 두 하위영역 중 후자의 중요도를 의미함.

대인관계영역에서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영역의 중요도는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50점 미만으로 현재의 상태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현재부터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영역의 중요도는 성별 및 생애주기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식과 실천영역의 중요도가 증가하여 60대에서 가장 높으며, 여성의 경우 50대까지 중요도가 증가하다 60대에서 소폭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의 경우 남성에게서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영역의 중요도가 여성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동 연령대 남성의 경우 대다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냄에 따라 대인관계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실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50대와 60대의 경우 여성에게서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영역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 증가에 따라 사별 등으로 인하여 일차적 대인관계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인식과 실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건강영역

노후준비 영역 중 건강영역은 ‘현재 건강상태’와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현재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성질환 유무, 수면시간 및 스트레스 정도, BMI 지수 등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실천행위, 노후에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흡연 및 음주 정도, 운동 및 정기검진 여부 등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강상태영역에 비해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영역의 중요도는 성별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대에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실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본인의 건강증

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4〉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중요도

(단위: 점)

연령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30대	54.8(22.7)	20.0	90.0	55.6(22.1)	20.0	90.0
40대	55.5(16.8)	30.0	80.0	56.1(16.6)	30.0	80.0
50대	54.2(14.2)	30.0	80.0	54.7(14.3)	25.0	75.0
60대	53.5(15.9)	20.0	80.0	53.6(15.3)	22.0	80.0

주: ‘현재 건강상태’와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두 하위영역 중 후자의 중요도를 의미함.

3. 재무영역

노후준비 영역 중 재무영역은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과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은 본인의 현재 경제상태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은퇴예상 연령, 부채해소 및 가계의 경제적 지출과 관련된 부담 정도 등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에는 노후의 안정된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공·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여부 및 수령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영역에 비해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영역의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실천행위영역의 중요도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

용시장에서의 은퇴가능성 및 부모부양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계 내 비용지출 급증 등으로 인해 노후 재정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근소한 차이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5〉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의 중요도

(단위: 점)

연령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30대	50.7(15.8)	25.0	75.0	51.1(15.5)	27.0	75.0
40대	58.6(16.4)	30.0	90.0	59.3(15.0)	32.0	90.0
50대	62.1(16.4)	10.0	80.0	63.3(14.4)	30.0	85.0
60대	65.2(19.2)	10.0	95.0	67.0(18.1)	20.0	97.0

주: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과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의 두 하위영역 중 후자의 중요도를 의미함.

4. 여가영역

노후준비 영역 중 여가영역은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여가 실천행위'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은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여가생활에 대한 변화 양상 예측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동년배와 비교한 본인의 취미 여가활동 상태, 노후를 고려한 취미 여가활동, 현재 취미 여가활동의 노후 변화 양상 등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여가 실천행위는 현재 및 노후를 고려하여 취미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여가활동 상태와 참여기간, 노후를 고려한 취미 여가활동 참여경험 등의 요인들

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영역에 비해 여가 실천행위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가 실천행위영역의 중요도는 남녀 모두 60대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50대, 40대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60대에서 실천행위영역의 중요도가 높은 이유로는 은퇴로 인하여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해 여가생활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4-6〉 노후 여가 실천행위의 중요도

(단위: 점)

연령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30대	54.0(18.3)	20.0	80.0	55.2(19.0)	20.0	80.0
40대	52.6(15.1)	25.0	75.0	54.4(13.9)	25.0	75.0
50대	52.9(15.0)	30.0	80.0	56.0(14.7)	32.0	80.0
60대	60.2(17.9)	30.0	85.0	60.6(17.0)	35.0	90.0

주: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여가 실천행위'의 두 하위영역 중 후자의 중요도를 의미함.

Ⅲ. 영역간 노후준비 중요도 비교

1. 30대 노후준비 중요도

전문가들은 30대에서 노후준비는 남녀 모두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녀간 상대적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30대는 아직 젊은 연령층으로 노후준비와의 연계선 상에서 경제활동 등을 통한 재산 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이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인관계와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7〉 3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단위: 점)

영역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대인관계영역	20.0(6.9)	10.0	31.0	20.0(7.9)	10.0	45.0
건강영역	25.6(7.3)	10.0	40.0	26.4(8.0)	10.0	45.0
재무영역	41.6(12.3)	25.0	75.0	40.2(11.9)	25.0	75.0
여가영역	12.8(5.9)	3.0	25.0	13.4(6.1)	4.0	25.0

2. 40대 노후준비 중요도

전문가들은 40대에서 노후준비는 남녀 모두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역간 중요도 순서는 30대와 동일하다. 즉, 40대 역시 경제활동 등이 활발한 시기로 노후준비를 위하여 재무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관리 역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40대에서 노후 대인관계와 여가를 준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30대와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로는 재무와 대인관계에 대한 노후준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과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30대에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소득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지기 시작하였고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과 여가를 위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8〉 4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단위: 점)

영역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대인관계영역	17.3(6.9)	5.0	35.0	17.0(6.7)	5.0	30.0
건강영역	27.9(6.7)	15.0	40.0	28.9(7.8)	5.0	45.0
재무영역	41.8(11.4)	25.0	75.0	40.1(12.4)	20.0	80.0
여가영역	13.0(6.2)	5.0	30.0	14.0(6.7)	5.0	30.0

3. 50대 노후준비 중요도

전문가들은 50대에서 노후준비는 남녀 모두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역간 중요도 순서는 30대 및 40대와 동일하다. 그러나 중요도 정도는 30대 및 40대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50대에서도 여전히 노후를 대비한 재무 준비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준비이나, 두 영역간 차이는 5점 내외(남성 5.7점, 여성 4.5점)로 작게 나타난다. 이는 50대에서는 노후를 위하여 건강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역시 30대와 40대에 비해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가까워지는 시기인 50대의 경우 여전히 재무 준비가 가장 중요하나, 이와 함께 이전 연령대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과 여가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9〉 5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단위: 점)

영역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대인관계영역	17.1(7.4)	5.0	40.0	16.9(7.0)	5.0	30.0
건강영역	31.0(6.7)	15.0	45.0	31.1(7.5)	10.0	45.0
재무영역	36.7(11.7)	15.0	75.0	35.6(11.6)	20.0	80.0
여가영역	15.1(6.3)	2.0	30.0	16.4(6.9)	5.0	30.0

4. 60대 노후준비 중요도

전문가들은 60대에서 노후준비는 남녀 모두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역간 중요도 순서는 이전 연령대들과 다르다. 노년층에 이미 진입하였거나 곧 진입할 시기에는 건강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재무영역에 대한 준비는 60대에서도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이는 연금 등의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취약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60대에서 여가에 대한 준비를 대인관계에 대한 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0〉 60대에서의 노후준비 영역간 중요도

(단위:점)

영역	남성			여성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대인관계영역	18.2(7.5)	5.0	40.0	18.4(6.7)	2.0	30.0
건강영역	33.9(8.3)	10.0	52.0	34.4(8.9)	5.0	55.0
재무영역	27.7(11.9)	10.0	80.0	26.8(13.3)	10.0	90.0
여가영역	21.3(9.4)	3.0	50.0	20.4(9.1)	3.0	40.0

IV. 함의

일반적으로 노후준비 영역은 대인관계영역, 건강영역, 재무영역 및 여가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 각 영역은 다시 ‘현재 상태’와 ‘실천행위’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전문가집단은 대인관계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실천행위영역보다 현재 상태영역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재무, 건강 및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영역보다 실천행위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다소 예외는 존재하나 노년기에 가까울수록 실천행위가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각 개인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노후준비 관점에서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노후준비는 노년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나아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문가집단은 노후에 대비한 대인관계영역, 건강영역, 재무영역 및 여가영역에서의 준비는 생애주기별로 다소 다르게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0대~50대에서는 재무영역, 건강영역, 대인관계영역 및 여가영역 순으로 준비의 중요도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연령 증가에 따라 영역 간 상대적인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왕성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재무영역에서 보다 건실한 노후준비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영역에서의 노후준비 강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인관계 역시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강도를 높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60대에 들어서서는 건강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여가에 대한 중요도 역시 이전 연령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노년기에 근접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해 더욱 준비하여야 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여가활동의 증시 및 관련한 준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인관계, 건강, 재무 및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생애주기별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물론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생애주기에 따라 더욱 준비해야 할 영역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모든 개인이 젊은 연령대부터 적어도 대인관계, 건강, 재무 및 여가 등에 대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실천을 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부록: 조사표 <<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본 설문은 **노후준비 각 영역별 중요도를 평가(성별·연령별 구분 및 전체대상)**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노후준비의 각 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1) 대인관계 2) 건강 3) 재무 4) 여가**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영역은 **2가지의 세부영역(현재 각 영역별 상태/노후를 위한 실천행위)**으로 구성되며, 아래 각 세부영역과 관련있는 설문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의 설문은 **총 12쪽(표지제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됨에 따라 **15~20분 정도 응답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문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아래 숫자로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차**는 노후준비의 각 세부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평가, **2차**는 1차결과와 타당도 검증 및 영역별 중요도 재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행신 중에 본 연구에 힘을 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답을 끝내신 설문은 '000(본인성함).hwp'로 저장하시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인관계 영역 관련 안내문

노후준비 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은 1) 현재 대인관계 상태 및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대인관계 상태	응답자의 일차적·이차적 사회관계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라, 배우자(동반자/이성친구)와 대화의 충분성 등을 확인하는 문항, 자녀유무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 충분성 등을 확인하는 문항,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 단체활동 등을 확인하는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현재 각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정도, 노후에 있어 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예측 및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실천행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대인관계 변화 양상 예측,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여부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대 인 관 계 영 역	1. 현재 대인관계 상태	2. [기혼/별거인 경우]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계십니까?
		4. [미혼/이혼/사별인 경우] 귀하께서는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분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6.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8. 귀하께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까이 도와주십니까?
		10. 귀하께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은 몇 명입니까?
		11. 귀하께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친구나 이웃은 가까이 도와주십니까?
		12. 귀하께서 최근 1년동안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단체, 동호회, 종교 모임 등)의 수는 몇 개입니까?
		15. 동년배의 다른 분들에 비하여 귀하의 대인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3. [기혼/별거인 경우] 귀하께서는 최근 1년동안 배우자와 동반외출을 몇 번 하셨습니까?
		5. [미혼/이혼/사별인 경우] 귀하께서는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7. 귀하께서는 최근 1년동안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셨습니까?
		9. 귀하께서는 최근 1년동안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13. [만35세~49세인 경우] 귀하의 현재 대인관계는 노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4. [만50세~69세인 경우] 귀하의 노후의 대인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편이십니까?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대인관계 영역 [응답자 작성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상기 설명을 바탕으로, **성별·연령별(30대~60대)**에 따라 구성된 대인관계의 세부영역(현재의 대인관계 상태 /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중요성에 각각 점수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속한 연령대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닌, 아래 설문지의 모든 항목에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부영역(현재의 대인관계 상태(A)/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B))의 총합(A+B)은 100점이 되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각 세부영역의 점수는 실수로 매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현재의 대인관계	(20)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80)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대인관계	(33)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67)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40대	남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50대	남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60대	남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대인관계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 건강 영역 관련 안내문

노후준비 영역 중, 건강 영역은 1) 현재 건강상태 및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성질환 유무 및 수면시간, BMI 지수, 스트레스 정도 등을 확인하는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실천행위, 노후에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 및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흡연 및 음주정도, 건강을 위한 운동 및 정기검진 등의 실천여부, 노후 건강상태 변화 양상 예측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

건강영역	1. 현재 건강상태	1. 동년배의 다른 분들에 비하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2.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은 몇 개 입니까?
		3. 귀하의 하루 수면시간은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 현재 키와 몸무게를 기록해 주십시오.
		5. 귀하께서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6.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또는 과거에 피우셨습니까?
		7.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맥주 5캔정도) 이상을 마신 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8.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규칙적으로 체조나 운동 등을 하셨습니까?
		9. 귀하께서는 다양한 식품(곡류, 두류, 과일, 채소 등)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십니까?
		10.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11. 귀하는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12. 귀하는 귀하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만성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최소 2년에 1회 이상) 병의원, 보건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3. 동년배에 비하여 귀하는 노후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14. [만35세~49세인 경우] 귀하는 노후 건강을 대비하여,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15. [만50세~69세인 경우] 귀하는 노후에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준비(간병/수발제공자, 경제적 준비, 관련 정책인지 등)가 되어 계십니까?
		16. 귀하의 건강상태는 노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건강 영역 [응답자 작성란]

건강 영역에 대한 상기 설명을 바탕으로, **성별연령별(30대~60대)**에 따라 건강 영역 노후준비의 세부영역(현재의 건강상태 /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중요성에 각각 점수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속한 연령대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닌, 아래 설문지의 모든 항목에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부영역(현재의 건강상태(A)/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B))의 총합(A+B)은 100점이 되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각 세부영역의 점수는 실수로 매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현재의 건강상태	(20)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80)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건강상태	(33)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67)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40대	남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50대	남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60대	남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 재무 영역 관련 안내문

노후준비 영역 중, 재무 영역은 1) 노후 준비여건 및 인식 및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로 구성됩니다. 노후 준비여건 및 인식은 노후생활을 위한 현재 본인의 경제상태 및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예상 연령, 응답자의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등을 확인하는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는 노후의 안정된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소득보장(공·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금(연금)) 제도 가입여부 및 수령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보장제도 가입여부, 수령경험, 수령금액,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등을 확인하는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

재무영역	1. 노후 준비여건 및 인식	1-2(2-2). 귀하(귀하의 배우자)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수입이 있는 일)을 몇 세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2. 귀하는(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채해소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13. [만35세~49세인 경우] 귀하는 자녀 교육비 지출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14. [만50세~69세인 경우] 귀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학비, 용돈, 생활비 지원 등)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1-1(2-1). 귀하(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1-4(2-4) 귀하(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중단한다면, 이후 제 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5(2-5). (이직 등을 고려한 전체 근로기간을 생각했을 때) 귀하는 몇 세까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7(2-7). 귀하(귀하의 배우자)께서는 구직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3.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을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월평균 납부액과 총 예상 납부기간, 향후 예상되는 수령금액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4.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매월 받고 있으신 금액 또는 일시금 총 수령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5.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향후 예상수령금액은 얼마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6.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생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은퇴)하면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계십니까?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매월 받고 있으신 금액 또는 일시금 총 수령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7.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개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향후 예상수령액은 얼마입니까? 8.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개인연금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계십니까?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매월 받고 있으신 금액 또는 일시금 총 수령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9. 귀하는(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총액 및 그 중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몇 %입니까?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재무 영역 [응답자 작성란]

재무 영역에 대한 상기 설명을 바탕으로, **성별연령별(30대~60대)**에 따라 재무 영역 노후준비의 세부영역(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의 중요성에 각각 점수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속한 연령대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닌, 아래 설문지의 모든 항목에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부영역(노후준비여건 및 인식(A)/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B))의 총합(A+B)은 100점이 되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각 세부영역의 점수는 실수로 매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20)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80)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33)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67)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40대	남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50대	남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60대	남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여가 영역 관련 안내문

노후준비 영역 중, 여가 영역은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2) 여가 실천행위로 구성됩니다.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은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여가생활에 대한 변화 양상 예측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동년배와 비교한 본인의 취미 여가활동 상태, 노후를 고려한 취미 여가활동, 현재 취미 여가활동의 노후 변화 양상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여가 실천행위는 현재 및 노후를 고려한 취미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인의 여가활동 상태, 여가활동 참여기간 및 노후를 고려한 취미 여가활동 참여경험 문항 등이 포함됩니다.

여 가 영 역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5. 동년배에 비하여 귀하의 취미 여가활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가 실천행위	6. 귀하께서는 노후에 어떠한 취미 여가활동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8. 현재 귀하의 취미 여가활동은 노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취미 여가활동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아래 취미 여가활동 유형 중 지난 1년간 하셨던 취미 여가활동의 개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2. 귀하께서 현재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 여가활동이 있다면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7. 귀하께서는 노후를 고려하여 취미 여가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여가 영역 [응답자 작성란]

여가 영역에 대한 상기 설명을 바탕으로, **성별연령별(30대~60대)**에 따라 여가 영역 노후준비의 세부영역(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여가 실천행위)의 중요성에 각각 점수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속한 연령대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닌, 아래 설문지의 모든 항목에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부영역(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A)/ 여가 실천행위(B))의 총합(A+B)은 100점이 되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각 세부영역의 점수는 실수로 매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20)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80)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33)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67)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40대	남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50대	남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60대	남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전체 노후준비 중 각 영역별 중요도 평가 [응답자 작성란]

노후준비의 전 영역(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에 대한 중요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노후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준비를 100점으로 간주할 때, 노후준비의 각 영역들(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 중요도 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진행된 설문과 마찬가지로, **성별·연령별(30대~60대)**에 따라 영역별 중요도를 각각 구성해 주시되, 각 영역(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의 **총합은 100점**이 되도록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본인이 속한 연령대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닌, 아래 설문의 모든 항목에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각 세부영역의 점수는 실수로 매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10)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30)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45)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15)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10)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30)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45)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15)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30대	남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40대	남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전체 노후준비 중 각 영역별 중요도 평가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50대	남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구분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연령	성별		
60대	남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	1.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2.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3.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노후준비 전 영역별 중요도 평가 (전체집단 대상) [응답자 작성란]

앞서 진행되었던 설문내용을 인구학적 배경(성별 및 연령 등)을 배제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상기 진행되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아래 표의 항목에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노후준비 중 각 영역별 중요도 (전체집단 대상)

구분	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전체집단 대상	대인관계영역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건강영역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	() 점 / 100점
	재무영역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 점 / 100점
	여가영역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 점 / 100점
	총합		100점

□ 노후준비 각 영역별 항목에 대한 중요도 (전체집단 대상)

구분	대영역	세부영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0점 기준)
전체집단 대상	대인관계영역	1. 현재 대인관계 상태	() 점 / 100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건강영역	1. 현재의 건강상태	() 점 / 100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점 / 100점
		총합	100점
	재무영역	1. 노후 준비여건 및 인식	() 점 / 100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여가영역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점 / 100점
		2. 여가 실천행위	() 점 / 100점
		총합	100점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작성란]

구분	내용
소속	
성함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_____세
노인복지분야 관련 경력 (년수)	약 _____년



제5편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차우규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I. 개요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머지않은 미래 사회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인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2060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40%를 넘게 된다(통계청, 2011). 이와 같이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면서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력과 인구 고령화가 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그것은 양육과 보육 그리고 가사노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역할 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많은 부분 일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의 심각한 인구 상황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는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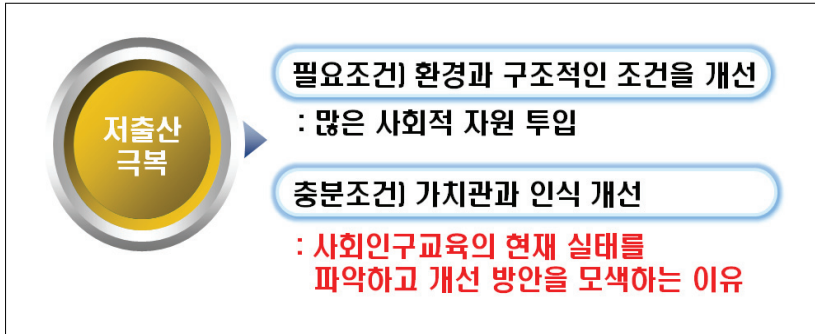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경제위기나 높은 청년실업 등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로 인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한다면 아무리 구조와 환경적인 조건들이 다시 정상화 되더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현재 인구와 관련된 사실들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에 투입되고 있는 사회적 자원의 양과 비중이 적지 않다. 물론 우리와 같이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그 양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실질적인 환경의 변화를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이 실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이와 함께 하는 개인의 새로운 행복을 위한 가치관과 인식개선은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는데 인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그림 5-1 참조).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먼저 정부주도의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에 의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환경개선과 고령자의 인력 재활용과 노후복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 사회의 문화개선과 전 국민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인구교육)이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림 5-1] 인구교육의 필요성



자료: 김태현 외(2011).

친가족 사회문화의 조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해 필요한 학교와 사회 인구교육 현장에서 실제 ‘인구교육’을 전담할 전문가가 절대 부족하여 조속히 양질의 교육전담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²⁹⁾하고 있으나 모두 1~5일 과정의 단기이고,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제한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의 운영이 어려우므로 인구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의 양성마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인구교육 조항(제7조의2)의 신설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 인구교육 확산에 앞서 전문강사의 양성이 필요하지만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표준교육과정 없이 인구교육 강사

29) 학교인구교육을 위하여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단기 인구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운영(2009 & 2010)한 적이 있으며, 현재 사회인구교육을 위한 단기 전문강사양성과정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일부 사회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를 양성한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국가 수준의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은 인구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인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의 범위를 넘어 인구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적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전문가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사회의 인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표준교육과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석사과정 또는 특별 연구과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교과목을 선택하여 표준강의안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효과적인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인구교육은 현재의 인구현상과 미래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인구요인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유지 내지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구교육을 전담할 전문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배경을 이해하고, 교육대상자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인구변동, 결혼과 가족, 다문화사회, 세대 간의 조화, 생명과 윤리,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와 사회의 인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 수준(석사과정 또는 특별 연구과정)을 대

상으로 개발하였다.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을 기본으로 편성하고, 학위과정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특별 연구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또는 특별 연구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해설과 필수 교과목에 대한 표준강의안을 개발하여 전문가양성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교육의 배경 학문은 다양하다. 인구학, 사회학,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교육학 등을 포괄하는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구의 제한(기간, 예산, 인력 등)으로 표준교육과정(안)을 우선 개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정리된 표준교육과정(안) 내의 교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과목 3개를 선택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가 표준강의안을 1차로 개발하였다. 나머지 과목의 표준강의안은 제2차 연구개발 과제로 남게 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표준강의안을 참고하여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본 3과목은 교과교육학 1과목과 교과내용학 2과목으로 하며³⁰⁾, 이 3과목은 석사과정은 물론 특별 연구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0) 인구교육전문가양성 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구분됨. 교육학은 일반적으로 공통과목으로 운영되며, 전공 교과목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됨.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적어도 15과목(교과교육학 5과목, 교과내용학 10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과교육학 1과목과 교과내용학 2과목을 선택하여 표준강의안을 개발함으로써 전문가양성 전문과정을 개설할 경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내의 모든 교과목의 강의안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II. 인구교육의 목표와 동향

1. 인구교육의 개념과 목표

가. 인구교육의 성격

인구교육의 성격을 인구교육 대상, 학적 배경, 내용, 방법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기서 인구교육은 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적 차원에서 접근된다. 한 예로, 올바른 결혼 및 출산·자녀관은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그 사회의 중심 문화로 자리잡게 되면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젊은이들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구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인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필요한 인구교육, 결혼 적령기 및 출산 가능한 장년기, 노년기 등에 따라 인구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교육은 인구학을 포함해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개별 학문들과는 차별화된 학제적(interdisciplinary) 혹은 융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인구교육의 체계화 및 여러 학문분야들 간의 진정한 융합을 위해서는 여러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의 견고한 학문 간의 높은 벽을 허물고 상호 협동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인구교육의 학적 배경으로 기존의 인구학(사회학),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외에도 향후 경제학, 보건학, 교육학 등이 새롭게 포함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사회 인구교육에 있어서는 인구와 경제, 인구와 건강 등을 연계시켜 설명할 때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소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학교 인구교육 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만혼의 원인 중의 하나인 청년 실업 문제가 청소년 대상의 진로 및 직업 지도의 미흡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본다³¹⁾.

셋째,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 내용의 연계가 필요하다. 2013년에 들어와 학교 인구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와 사회 인구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각종 인구교육 사업 시 일부 협력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부 사업 단위에서의 부분적인 협조보다는 좀 더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교육 교육과정 안에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 내용체계가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먼저, 내용의 ‘범위’에서는 (1)인구(저출산·고령화)현상과 변동,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인구통계, (2)생명존중, 양성평등, 태아와 육아에 대한 윤리적 접근, (3)부모됨 알기, 결혼관, 출산·자녀관,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 (4)세대순환, 세대갈등 해결과 세대공동체 형성 등이 다루어져야 하며, 그 외에도 진로 및 직업(청년 및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인구와 경제, 인구와 복지, 인구와 건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내용이 ‘계열’에서는 학교와 사회로 나누어 위계화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별로 계열의 차이를 두고, 사회의 경우에는 언론인, CEO, 군인, 직장인, 공무원, 가정주부 등 직능별로 맞춤형 인구교육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1) 이는 2011년 11월 인구교육 실태 조사 시 일본 문부성과 내각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넷째, 인구교육 시 소극적(negative) 전략보다는 적극적(positive)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인구현상의 부정적인 사례 중심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가족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결과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적 사례 위주의 교육은 긍정적 효과보다도 자칫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나 정체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 중심의 홍보 내용보다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되, 시의적 적절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정책은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중심에 놓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인구교육은 정부 정책 홍보 내용보다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생애 주기와 전체 사회의 맥락 속에서 현재 자신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학습자들은 제기되는 인구 문제에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족친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인구교육은 인지적 접근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정서 변화와 실천을 담보하는 통합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인구교육에서는 인구학적 내용과 가족친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 민감성(sensitivity)과 열정성 및 동기화(motivation), 실행력(implementation)과 습관 등이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 중심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치교육이 교수자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기울면 학습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탐구와 체험 등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교육이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가치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인구교육은 가치에 대해서 다루되, 가치 자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나. 인구교육의 개념

“인구교육이란, 인구현상의 특징과 변화, 배경과 원인 등을 이해하고, 이것이 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활동이다.”

인구교육의 개념에는, “인구현상의 특징과 변화, 배경과 원인 등을 이해하고, 이것이 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에서와 같이, 인구현상과 인구 변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 배경과 원인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영향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언급된 ‘나’를 포함한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연관될 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중있게 다룬다. 또한, 여기서 언급된 ‘사회’는 사회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 복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해하고, 분석하여’는 인구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구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인구 현상과 변동, 그 원인과 영향 등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은 주로 인구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구교육의 개념은,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에서

와 같이, 가족친화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에는 생명존중의식, 양성평등의식, 세대공동체의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혼·양육관, 부모됨의 가치 느끼기, 생애별 진로탐색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활동이다”에서 ‘통합적’이라는 의미는 인지적인 요소뿐 아니라 정의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가 통합된다는 것을 뜻하며, ‘융합적’이라는 의미는 인구학뿐 아니라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이 함께 융합되어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 인구교육의 목표

1) 총괄 목표

개인의 인구 관련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나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인구구조나 분포가 개인의 삶(생활기회, 라이프스타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의 각종 인구 왜곡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인구교육의 총괄목표로는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첫째, “개인의 인구 관련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나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인구구조나 분포가 개인의 삶(생활기회, 라이프스타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는 인지적 영역의 목표에 해당된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의 각종 인구 왜곡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는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 해당된다.

셋째,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행동적 영역의 목표에 해당된다.

2) 가치 영역별 목표

● 인지적 영역

- (시기별·지역별) 인구현상의 특징과 변화, 그 배경과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개인의 인구 관련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나 인구분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구구조나 인구분포가 개인의 삶(생활기회, 라이프스타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인구 현상과 인구 변화가 경제, 교육, 복지, 국방,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융합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인구변동 관련 각종 정부 정책이 개인의 인구 관련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있는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 정의적 영역

- 인구교육의 핵심적인 가치 혹은 내용들(생명존중, 양성평등, 세대

공동체 형성, 긍정적인 결혼·출산관, 부모됨의 가치, 생애별 진로 설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 행동적 영역

- 다양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과 다양성 존중(반편견) 및 세대 간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 지속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조망하여 이에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출 수 있다.

2. 인구교육의 동향

가. 인구교육관련 주요 선행연구

인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구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과서를 검토하여 당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에 역행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추출(이삼식 외, 2005 참조)하여 교육부에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건의한 것부터이다. 그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정립을 위한 종합연구”(이삼식 외, 2006a 참조)를 하였으며,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윤인경 외, 2006 참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학교인구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편이지만 사회인구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교인구교육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두 차례 실시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관 실태조사결과(이삼식 외, 2006b; 김태현 외, 2011)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초·중등학생들 중 남학생들은 2006년에 22.8%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10.4%만이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5년이 지난 2011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남학생들은 27.4%로 약간 증가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10.7%로 5년전과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2006년에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30.8%였으나 여학생은 23.0%에 불과하였다. 2011년에도 그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남학생은 37.8%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24.8%로 그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였다. 2007년부터 학교 인구교육을 추진하였지만 아직은 학생들의 가치와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가치가 긍정적인 면으로 뚜렷한 변화를 입을 수 있었고, 매우 낮기는 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도 가치변화의 징후를 찾을 수 있었다(김태현 외, 2012). 현재의 청소년들은 10~20년 후의 출산세대이므로 이들의 부정적인 가족관련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는 한 미래의 저출산 극복은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학교인구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윤인경 외, 2006)는 학교인구교육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총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대영역 목표로 구성하였고, 4개

대영역의 하위영역으로는 총 10개의 중영역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총괄목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우리사회 인구의 적정화를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 친화적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존중 영역에 인권과 평등 2개의 중 영역을 포함하였으며, 인구 영역을 인구변동, 저출산, 고령화의 3개 중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가족 영역에는 변화하는 가족, 출산과 양육, 고령자의 3개 중 영역을, 복지 영역에는 지원제도와 직업의 2개 중 영역을 포함하는 인구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김태현(2008)은 학교인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중등학생은 미래사회를 이어갈 세대이다. 이들은 전통을 계승, 유지,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청소년 시기는 성장해 가고 있는 성인기로의 이행기이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은 다양한 가치갈등과 혼돈을 경험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청소년은 성과 연령에 따라 가치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의 가치관이 더 부정적이었으며,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들보다 결혼과 출산에 더 친화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가치관정립을 위한 교육이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

는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교인구교육은 전 교과목의 통합접근이 필요하다. 가치의 재정립이 단순히 이론습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 자녀, 가족, 양성평등 가치의 내용들이 도덕·윤리, 사회, 가정, 보건 등의 교과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크다. 그러나 어문, 예술, 과학 등의 교과에서도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 학교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면, 청소년들이 친가족 및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과 가족 그리고 양성평등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방향이다.

학교 현장의 현행 교과중심 교육에서 성공적인 가치교육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을 고려한 인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인구교육의 주요 활동과 내용체계

1) 주요 인구교육 활동

인구정책의 성공은 국민의 친사회적 가치 형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가치의 형성은 전 국민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홍보와 교

육, 그리고 차세대에 대한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인구교육과 사회인구교육의 활성화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적용된 2006년 이후 정부에서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 함께 학교인구교육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것들만 열거하면, 초·중고등학생용 인구교육 교재를 서울시교육감 인정도서로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차우규 외 2008; 2009 참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등 교사들의 모임인 “인구교육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부터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한 “인구교육시범학교”³²⁾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에서 학교인구교육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인 직무연수를 2008년과 2010년에 실시하여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구교육관련 사업들은 인구교육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인구교육학회³³⁾가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학회 회원들이 다양한 인구교육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이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9년부터 관내 학교인구교육을 담당할 초·중등 교사를

32) 인구교육시범학교는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지원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인구교육시범학교운영지원단의 기술지원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에 4~8개교씩 운영되고 있다.

33) 한국인구교육학회는 2007년 12월에 (사)인구문제연구소의 부설로 창립된 한국인구교육연구회를 확대 개편(2009. 12월)한 학술단체이며, 회원 수는 약 350명이다. 이 학회의 주요사업은 (1) 인구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2) 인구교육과 관련된 학술활동 및 학술지 발간, (3) 공공 및 민간단체의 인구정책 담당자에 대한 위탁교육, (4) 시도단위 인구교육의 조직화 및 운영지원, (5) 인구교육관련 교재개발 및 보급, (6) 기타 인구교육관련 부대사업 등이다.

매년 40~50명씩 1~2주간 교육하여 학교현장에서 인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수하고 있다.³⁴⁾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에 인구교육시범학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인구교육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³⁵⁾ 지금까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지원만으로 학교인구교육의 확산이 어려운 부분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구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난다면 인구교육의 확산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인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인구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2013년까지 약 400여명의 인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부기관, 각종 기업체, 군부대 등에서 저출산고령사회를 이해하고, 미래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인구교육과 사회인구교육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팔목할 만하다. 그러나 인구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이고, 연령별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교육의 정착과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국 40여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인의 특성(성,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양성과 교육활동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학교와 사회인구교육은 초기단계라고 하겠다.

34) 경기도는 2010년부터 학교인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경기복지재단(2010년)과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2011년 이후)에 지원하여 경기도내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교육담당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일반교사대상 단기연수과정 운영, 교장대상 워크숍 등이다.

35) 충청북도 교육청은 2011년에 괴산군에 위치한 생극초등학교를 인구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참관하도록 하여 학교인구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시범학교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인구교육시범학교를 지원한 이후 교육청 자체 지원 시범학교로서는 처음이다.

2) 인구교육의 내용체계

인구교육의 내용체계는 그 내용 자체가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최근 개발한 교육과정에 따라 발간하여 현재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인 정교과서(「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인구교육의 내용체계를 정리하였다. 보충하여 최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인구교육학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한 “초·중등교사대상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인구교육의 내용이 학교와 사회가 다를 수 없지만, 학교인구교육과 교육대상이 다른 사회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또는 교과서)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수년간 운영한 전문가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인구교육의 내용체계를 정리하였다.

가) 학교인구교육

우리나라 학교인구교육의 내용은 주로 사회, 도덕(윤리), 실과(가정)교과에 분산 수록되어 있다.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이삼식 외, 2005)에서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인구관련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과거 출산억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그 후 2007 신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한 각급 교과서에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므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구교재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초·중·고등학생용 모두 10개 영

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내용을 짧게는 2시간(초등), 길면 3시간(중·고 등) 동안 수업이 가능하도록 편제하였다. 10개 영역의 내용은 인구현상의 변화, 소중한 생명,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결혼에 대한 생각, 출산과 자녀에 대한 생각,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문화 가정, 고령자의 인생설계, 고령자의 역할, 세대간의 평등 등으로 나누었다. 학교급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에 차이를 두었으며, 영역의 명칭차이는 주로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한 결과이며, 전체적인 내용체계를 아주 유사하게 만들었다(표 5-1 참조).

〈표 5-1〉 학교급별 인구교육 교재 내용체계의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인구현상의 변화	1. 인구현상과 인구변동	1. 인구와 인구현상
2. 소중한 생명	2. 생명존중	2. 저출산고령화 사회
3.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3. 양성평등	3. 생명존중
4. 결혼에 대한 생각	4. 결혼관	4. 양성평등
5. 출산과 자녀에 대한 생각	5. 출산자녀관	5. 결혼관
6. 다양한 형태의 가족	6. 다양한 가족	6. 출산과 부모됨의 기쁨
7. 다문화 가정	7. 다문화 가정	7. 다양한 형태의 가족
8. 고령자의 인생설계	8. 고령자의 인생설계	8. 고령자의 인생설계
9. 고령자의 역할	9. 고령자의 역할	9.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10. 세대간의 평등	10. 세대평등	10. 세대간 평등과 배려

자료 : 차우규 외(2008;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인구교육학회가 2010년에 공동으로 주관한 교사대상 인구교육 전문강사양성 직무연수의 교육프로그램은 2006년에 개발한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 학교교육의 내용체계”(윤인경 외, 2006)를 기초로 이론(13 시간) 및 참여와 활용(17 시간)을 포함하여 30시간으로 구성하였다(표 5-2 참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수업컨설팅에 중점을

두어서 이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은 소속 학교에서는 물론 지역 내 다른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학생대상 인구교육이 가능한 능력을 기르는 노력을 기울였다.

〈표 5-2〉 교사대상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 직무연수 프로그램, 2010

과정(시수)		강좌명
이론(13시간)		1.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 2. 인구와 인구현상(인구학) 3. 생명존중과 평등의식(윤리학) 4.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정(가족학) 5. 노화와 노인복지(노인학) 6. 인구교재 및 PPT 강의자료 안내 7. 인구교육에서의 지도방법과 평가방법 및 자료개발
참여와 활용 (17시간)	수업 컨설팅 (14시간)	1. 학교인구교육 우수사례(초등/중등) 2. 학교인구교재 활용 및 수업 컨설팅(초등/중등) 3. 인구교육 PPT 자료활용 및 수업 컨설팅(초등/중등)
	평가 및 기타 (3시간)	4. 평가(지필고사) 5. 설문조사 6. 개강 및 수료식

자료: 윤인경 외(2006).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직무연수형태로 단기간(5일) 동안 총 30시간의 이론강의와 참여활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소양과 인구변동과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목적인 전문강사 양성에는 다양한 분야별 2~3시간 강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나) 사회인구교육

학교인구교육의 대상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이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사회인구교육의 대상은 다양하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구교육이 필요하고, 이어서 각종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대상 인구교육으로 확산하게 된다. 사회인구교육의 대

상이 다양하고, 그 수준 또한 차이가 크므로 교육내용을 일률적으로 체계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인구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대상자에게 맞는 범위와 수준의 교육체계를 제시하고,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기상조이다.

부족한 사회인구교육담당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개발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사회인구교육담당 전문강사양성 프로그램(표 5-3 참조)의 특징은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과 같이 이론과 수업컨설팅에 초점을 맞춰서 연수과정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수 참여자의 배경이 다양하고, 전문강사로 현장교육을 할 때 교육대상이 다양하므로 정부의 정책소개와 홍보를 포함하였으며, 교양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연수기간에 집중력을 높이고,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겸하고 있다.

〈표 5-3〉 사회인구교육담당 전문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2011)

과정(시수)	강좌명
이론(18)	1. 한국인구정책의 발전개황과 추진전략 2. 인구변화와 사회정책 3. 인구학에 대한 이해와 학교인구교육의 실제 4.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5. 사회의 변동과 고령화, 다문화 가족 6. 결혼·자녀·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7. 교수법 이론과 실습
수업컨설팅(9)	1. 사회인구교육 실예 2. 강의안 개발 3. 분임별 강의안 발표/평가
정책소개 및 홍보(3)	1.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2. 생명존중과 가족가치관 홍보 3. 동영상 교육
교양 및 기타(5)	1. 성공하는 강사의 7가지 리더십 2. 대인관계 미학 3. 개강 및 수료식

3) 인구교육체계상의 한계

인구현상의 급변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억제정책을 위한 가족계획 교육을 수행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인구교육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인구교육의 혼란을 맞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에 도달한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인구에 대한 연구나 재정지원이 끊어짐에 따라 인구학이나 인구정책을 연구하는 연구하거나 연구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인구교육이 필요하게 되고, 인구교육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현장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한국교원대학교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서 단기연수를 통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전문가를 양성하다보니 기존의 유사한 분야³⁶⁾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이 대부분이고, 강사의 전문분야에 인구변동과 그 영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도 우리나라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보통 2~3일, 길어야 5일간의 집합연수로 인구변동과 사회변화의 관계, 인구전망의 원리, 가족의 다양성과 관계의 회복과 같은 전문분야를 익힌 후에 인구교육을 담당하기에는 강사와 수강생들 간의 지식과 가치의 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장에서 인구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자면 교육담당 강사의 개별 능력제고도 필요하지만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 교재나 교육자료의 개발과 제공, 교육방법의 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분야의 연

36) 과거 출산억제 목적의 가족계획(피임)교육을 비롯하여 그 후 사회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건강가족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들 수 있다.

구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교육 전문가가 있지만 전문가 자신의 전문영역(인구학, 사회학,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등)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융합접근이 필요한 인구교육전문분야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인구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단계적으로³⁷⁾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과정에 필요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강의안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인구교육전문과정개설과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인구교육전문가양성 표준교육과정구상 및 표준강의안 개발

1. 인구교육전문가양성 표준교육과정 구상

가. 표준교육과정의 기본내용

인구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개설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 연구과정을 구상하였다. 학위과정을 표준교육과정으로 구상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이수한 인구교육 전문가는 교육현장에서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 역할은 물론 인구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가 가능한 인력으로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교육은 다양한 방면의 배경학문을 전제로 한 융합 학문 분야이므로 단기나 일부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만으로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것

37) 전문가양성은 궁극적으로 독립적연구능력을 기르는 박사과정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선 현장 교육지원이 가능한 석사과정부터 운영하고, 인구교육전문가 저변확대와 함께 박사과정의 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 한 이유이다. 또한, 학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할 경우 공신력 있는 자격증(여기서는 학위)을 수여할 수 있을 때 우수인력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구교육 전문가 과정을 이수할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상 교육학석사 학위³⁸⁾를 받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교육과정은 크게 세 분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교육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학 영역의 교과목 이수가 필요하고, 현장 교육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인구관련분야의 교과교육영역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융합 학문인 인구교육의 학문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교과내용학 영역의 교과목 이수가 필요하다.

위에서 나열한 세 영역, 즉 교육학,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영역의 학점을 이수하는 학위논문 준비를 필수로 한다. 때로는 현장연구나 활동을 하는데 학위논문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³⁹⁾도 있지만 인구교육 분야의 경우 사실상 최초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전문가의 경우 인구교육의 연구(교육과정 개발, 교수방법 연구 등)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연구영역을 필수로 하고, 논문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박사과정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전문가 양성이라는 점에서 석사과정과 특별 연구과정에 국한하였다.

38) 인구교육 전공 석사학위과정 개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인구교육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공식 인정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2)추후 인구교육 박사학위과정 신설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3)융합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인구교육전문가 양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4)학교 및 사회교육 현장에서 인구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9) 우리나라 대학교에 부설된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위 취득요건으로 일정의 교과목 이수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현장 활동을 중요시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논문의 수준과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내재하고 있다.

나. 학문 영역별 주요내용

인구교육의 석사과정에서 교육과정의 기본은 교육학,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각 영역별 교육내용과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학 영역

교육학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학 전반에 관한 이론부터 교육 분야별 이론들(교육과정론, 교육심리와 상담론, 교육연구법, 교수-학습론, 교육공학, 교육평가론, 교육통계론 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교육학 영역은 특정 교과에 관한 교육이론이기보다는 교육학 일반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구교육학 전공에서는 교육학 영역 중에서 주로 교육연구법 내지 교육통계학 강좌를 필수로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과교육학 영역

교과교육학 영역은 일반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을 연계하여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따라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 평가, 교재, 교사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 영역이다.

교과내용학이 구슬이라면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꿰매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과교육학이다. 대상에 맞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만들어지려면 좋은 구슬도 있어야 하지만, 이를 잘 디자인하여 튼튼하고 세련된 목걸이로 만들어 내는 기술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교

육학과 교과내용학은 서로 대치되거나 상반된 학문 영역이 아니라 상보적이며 서로 필요로 되는 학문영역인 것이다.

• 인구교육론

- 인구교육의 배경 학문들을 탐색하고, 학제적 접근을 위한 기초를 학습한다. 인구학, 교육학, 가정학(가족학, 윤리학, 복지학, 노인학 등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차원에서 논의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인구교육이란?”부터 시작하여 인구교육의 개념, 목표, 내용, 범위, 방법,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구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토픽별로 정리하여 발표·토론함으로써 인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익힌다.

• 인구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

- 인구교육의 특성과 다양성을 일반 교수-학습이론에 접목하여 학생의 수준과 발달 단계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인구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방향이 인구교육 활성화와 적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인구교육 교재연구

- 우리 주변에 인구관련 자료는 많지만 이를 수요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고, 이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 교육 자료는 흔치 않다. 이 교과목에서는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다양한 교육 자료(전자책 포함) 개발·활용 연구를 수행한다.

• 인구교육세미나

- 인구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구관련 가치와 태도형성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인구교육 방법을 위해 수강생 각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현장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장래 인구교육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인구교육연구법

-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통합 연구 방법 등 인구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혀서 우리 사회의 인구교육 현상을 실제로 연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연구 방법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 전통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연구 설계, 연구 진행, 연구 결과의 정리,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도록 한다.

3) 교과내용학 영역

인구교육의 간 학문적 성격을 고려하면 크게 인구학,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인구변동이 영향을 주는 학문의 종류는 정치학, 경제학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지만 제한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문 네 분야로 정하고, 각각의 학문분야별 인구교육목표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 배경별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때 인구학, 윤리학, 가족학, 노인복지학을 인구교육의 학문적 배경으로 하되, 이론 중심보다는 경험위주의 방법 전환이 필요하다. 학문적 배경은 인구교육으로서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인구교육의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적 배경으로서 단순 병합인 가법(加法)적 융합을 지양하고, 학문 간 공통된 원리가 작용하는 승법(乘法)적 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구교

육 전문과정에서 각 교과목별 교육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인근 학문 분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인구학 영역

- “인구와 자원의 관계, 연령 및 성비에 따른 인구 구조, 결혼·출생·사망, 인구 이동·지역에 따른 인구 증감 등에 따른 인구 양태나 장래 추이가 개인과 가정, 국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킴으로써 자신의 생활 맥락 속에서 인구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활동이다.”
- 인구의 기초개념(인구 및 인구학, 인구자료, 인구성장, 적정인구)
- 성·연령별 인구구조(성비, 연령별 인구구성, 부양비, 인구피라미드)
- 인구변동(혼인, 출산, 사망, 이동)
- 장래인구변화(장래인구추정의 기초, 장래인구의 특성, 저출산과 고령화의 관계 등)
-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의 관계(경제성장, 노동력 공급, 사회 복지 부담, 학령인구 및 교사수급, 주택공급 및 가격, 혼인 및 노동력 이민 등)

● 윤리학 영역

-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반편견과 상생(相生), 생명 존중, 양성 평등 및 세대 공동체의식 형성 등의 가치·태도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기(易地思之), 소수자의 보호와 배려 등을 통해 상생(相生)을 추구
- 친가족적 가치 형성에 대해 의무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치 그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가치에 대해 토의하고 숙고해 봄으로써 가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치화 과정(valuing process)을 중시함
- 정의(justice) 윤리뿐만 아니라 배려(caring) 윤리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
- 인구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개인 윤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족학 영역

- “결혼관과 출산·자녀관, 부모됨과 파더링(Fathering) 등에 따른 개인의 가족적 친화적 가치관 형성 및 가정·직장·사회·국가 차원에서의 친가족적 문화 형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 여성학적 배경(성평등 가치 등) 포함
- 결혼의 의미와 가치 인식
- 가족의 개념 확대와 현대 가족의 다양성 인식
- ‘부모됨’의 의미와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 정립

● 복지학 영역

- “인구 현상과 인구 변동 등이 자신의 노후 생활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각 생애 단계별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활동이다.”
- 생애발달과 노화 이해
- 노년기 및 노인 이해
-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이해
- 사회통합 및 세대 화합
- 노인복지와 서비스

다.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은 석사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경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연계운영⁴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총 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과목별 학점을 3학점으로 편성한다면 논문연구과정을 포함하여 10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특별연구과정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수 과목 수는 3과목 내지 6과목으로 석사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표 5-4 참조).

〈표 5-4〉 과정별 교과학점 기본이수내역

전문과정	교과학점 기본이수 영역				자유선택	계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연구(논문)		
석사	3	6	9	3	9	30
특별연구	3	6	9	-	-	18

석사과정에서 이수해야할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수로 교육학 3학점, 교과교육학 6학점 및 교과내용학 9학점으로 하고,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학점 3학점을 부여한다. 이상의 7과목 21학점은 수강생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9학점은 영역별 자유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연구과정은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석사과정의 영역별 최

40) 대학원 과정은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사과정 이전단계로서 석사과정을 운영하며, 박사과정에서는 동일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보다 심화단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인구교육전문가양성과정과 같이 전공개설 초기에는 석사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박사과정 개설과 운영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 이수학점에서 연구학점(3)을 제외한 18학점(6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 된다.

라. 영역별 교과목의 구성

영역별 과목 수는 영역별로 이수해야 하는 최소 학점수(과목)에 자유선택 학점수(3과목, 9학점)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과목 수를 정한다. 그러면 교육학은 4과목(12학점) 이상이 되고, 교과교육학의 경우는 5과목(15학점) 이상이며,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최소한 6과목(18학점)을 개설한다. 각 영역별 교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교과목별 개요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1) 교육학(4과목)

교육학 영역의 교과목 중에서 인구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주요 과목 4과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이 중 “상담심리”를 필수와 같이 운영하여 인구교육 전공자 모두 이수하여야 할 교육학 영역의 과목으로 한다. 특별 연구과정 수강생도 교육학 영역에서 “상담심리”를 수강하면 된다.

- 교육평가
- 상담심리
- 교육사회
- 교육공학

2) 교과교육학(5과목)

교과교육학 영역에서는 5과목을 개설하고 “인구교육론”과 “인구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를 기본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권고한다. 특별 연구 과정을 위해서는 이 두 기본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 인구교육론
- 인구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
- 인구교육 교재연구
- 인구교육 세미나
- 인구교육 연구방법

3) 교과내용학(10과목)

교과내용학에 포함되는 학문분야는 크게 인구학, 윤리학, 가족학 및 복지학으로 구분된다. 각 분야의 주요 과목을 각각 2개씩 균형을 살려 개설하고, 공통과목인 실습과 사례연구 과목은 세 분야의 어디에나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내용학 영역에는 공통과목 2개와 세 가지의 학문분야별로 2과목씩을 포함하므로 교과내용학 영역을 총 10과목으로 구성하였다. 학문분야별 특성이 있으므로 분야별 기본교과목으로 “인구변동 및 인구정책”, “생명윤리와 반편견교육”, “인구와 가족가치”, “고령사회와 복지”, “현장 조사와 참여(실습)” 등 5개 과목을 지정하였다. 석사과정의 필수 이수학점(3과목 9학점)과 자유선택(3과목 9학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위의 기본 이수과목(5과목 15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 연

구과정의 경우 배정된 학점수(3과목 9학점)는 이들 5개 과목 중에서 수강生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구변동 및 인구정책
- 인구이론과 통계
- 생명윤리와 반편견교육
- 세대공동체론
- 인구와 가족가치
- 가족과 생애
- 고령사회와 복지
- 고령사회 심리학
- 현장조사와 참여(실습)
- 저출산·고령사회 사례연구

2. 인구교육 표준강의안 개발(사례)

과목별 표준 강의안은 분야별 교육내용과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강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교육은 어느 한 분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과목이 아니라 다방면에 영향을 주고 받는 과목이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의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이론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교육전문가양성과정의 석사과정의 교과목은 세 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 교과목 중에서 학생들의 교육진도에 맞춰 개설과목과 과목수를 결정한다. 한 학기에 이수할 학점수는 9학점이므로 통상 세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영역별 교과목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거나 다른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선수과목의 성격이 강한 과목을 3개 택하여 상세 강의계획을 작성하였다. 다만, 교육학영역의 경우는 이미 학문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어떤 과목이던 적합한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므로 상세 실라버스 개발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대학의 한 학기가 통상 15주간이므로 여기에서도 15주년을 기준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개별 과목의 상세 강의계획은 누가 강의를 담당하더라도 표준강의계획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서에서는 과목의 강의목적 및 개요, 수업(교수)방법, 평가방법, 교재 및 참고문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해당 과목의 내용과 운영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5주간의 주별 강의내용과 교재 및 참고자료와 연구과제를 제시하여 가장 합리적인 교과목이 되도록 하였다.

표준 강의안으로 개발한 과목은 교과교육학의 기본과목인 “인구교육론”과 교과내용학에서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및 “생명윤리와 반 편견교육” 등 세 과목(영역)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였다(부록 2 참조)

- 인구교육론(교과교육학 영역)
- 인구변동과 인구정책(교과내용학 영역)
- 생명윤리와 반편견교육(교과내용학 영역)

강의계획서의 구성은 크게 강좌개요와 강의계획(총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강좌개요에는 강의시간, 강의기간, 강좌유형 및 평가유형의 기본을 정하였다. 강의시간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을 기준으로 주당 3시간의 강의로 시간당 5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학습이나 별도 사례연구는 예외로 운영한다. 강의기간은

학기당 15주를 기준으로 한다. 대학에 따라서는 16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15주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강사와 수강생들이 필요할 경우 강좌의 성격에 따라 16주로 운영이 가능하다. 강의유형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강의, 연구발표 및 현장체험활동을 강의목적에 맞게 적절히 구성하도록 한다. 끝으로 수강생들이 큰 관심을 갖는 평가유형인데 여기에는 이론시험, 연구활동, 발표와 토론, 출석 등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요소별 배점은 담당강사가 절절히 구성하여 시행하고,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강의계획(총괄)인데 사실상 전체적인 강좌운영내용은 여기에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강의계획이 명확하고, 상세할수록 강좌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전공 전체의 교육과정운영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강의목적 및 개요, 수업(교수)방법, 평가방법, 교재 및 참고문헌, 주별 수업내용 및 진행방법(과제 및 참고자료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

- 1) “강의목적 및 개요”에는 이 강좌의 내용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강생들이 이 강좌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다.
- 2) “수업(교수)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강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강좌의 특성에 맞게 선별한다. 수강생들은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수업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 3) “평가방법”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종류와 비중을 명확하게 하여 수강생들이 자신의 성적관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 4) “교재 및 참고문헌”에는 이 강좌에서 사용할 주 교재와 주요참고문

헌을 명시하게 되는데, 교재와 참고문헌의 목록을 보고,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이 강좌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과정이므로 주 교재의 경우도 교과서와 같은 단일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학문의 성격상 대부분의 경우 주요 단행본이나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참고문헌은 앞으로 주별 수업이 진행되면서 주제에 필요한 단행본이나 논문 및 각종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면서 이 강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5) “주별 수업내용 및 진행방법(과제 및 참고문헌 포함)”에서는 한 학기 15주 동안 이루어질 강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주당 3시간으로 이루어진 강좌에서 매주 이루어질 강좌의 내용을 강의내용, 교재 및 참고자료,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주에 이루어질 수업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수강생 개별 연구활동을 위한 과제의 부여, 발표 및 토론의 진행, 현장학습활동의 기회 부여 등과 같은 교과목의 특성을 살리고, 강사의 강좌운영의 묘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IV. 요약 및 건의

1.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초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머지않은 미래 사회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반하여 낮은 출산력과 인구 고령화가 왜 우

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그것은 양육과 보육 그리고 가사노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역할 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많은 부분 일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의 심각한 인구 상황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는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바 없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경제위기나 높은 청년실업 등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로 인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한다면 아무리 구조와 환경적인 조건들이 다시 정상화 되더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현재 인구와 관련된 사실들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에 투입되고 있는 사회적 자원의 양과 비중이 적지 않다. 물론 우리와 같이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그 양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실질적인 환경의 변화를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이 실제 저출산 현상

을 극복하고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이와 함께 하는 개인의 새로운 행복을 위한 가치관과 인식개선은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는데 인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친가족 사회문화의 조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해 필요한 학교와 사회 인구교육 현장에서 실제 ‘인구교육’을 전담할 전문가가 절대 부족하여 조속히 양질의 교육전담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두 1~5일 과정의 단기이고,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제한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의 운영이 어려우므로 인구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의 양성마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인구교육 조항(제7조의2)의 신설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 인구교육 확산에 앞서 전문강사의 양성이 필요하지만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표준교육과정 없이 인구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국가 수준의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은 인구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인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의 범위를 넘어 인구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적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전문가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사회의 인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표준교육과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석사과정 또는 특별 연구과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교과목을 선택하여 표준강의안을 개발함으로써 앞으

로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효과적인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별 특징을 상세화하였다. (2) 인구교육의 목표를 총괄목표와 하위목표(가치영역별 목표, 학문배경별 목표 등)로 구분하였다. (3) 인구교육의 동향을 통해 인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4) 인구교육 전문가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구상하고, 2개(교과내용학1, 교과교육학1)의 인구교육 표준강의안을 샘플로 개발하였다. (5) 인구교육 석사과정 전공 교육과정을 영역별(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로 2개의 교과목을 해설하였다.

인구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우수한 인구교육 전문가양성과 가르치고 학습하기 좋은 맞춤형 인구교재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교육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동안 일부 있었지만, 그것은 단기 연수 과정 수준으로 전문가 양성에는 한계가 많았다. 2014학년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어느 정도 타 영역의 수준과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연구는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이런 노력과 준비가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어 학문적 기반을 튼튼히 할 때 인구교육 전문가양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문제는 제도 개선과 문화 변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며, 그 중심에는 인구 및 인구교육정책 리더양성을 위한 인구교육전문가양성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건의

가. 전문가양성과정의 개설과 운영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으로 요약되는 사회와 국가의 노력과 개인의 가족관련 가치관의 회복이 양대 축으로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사회와 학교인구교육은 출산력 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율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저출산 가치의 확산과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가치가 성인에 못지않은 부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미래의 출산율 회복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한 노력은 개인이나 단일기관에 의존하는 행태로서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수행에도 큰 제약일 수밖에 없다. 인구교육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의 제정이나 개정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양성을 위한 행·재정 양면의 직접적인 지원은 국가의 과제이다.

나. 전문가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 정부의 공식적 자격 인정

인구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위과정은 “교육학 석사”가 되고, 특별연구과정은 “인구교육 이수증”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양성제도에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인구교육전문가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을 교원양성기관과 동일한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영역을 이수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수강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더욱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전문과정 수강생일 경우 석사과정을 거치면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서 성공적인 인구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석사과정 이수자를 포함하여 특별연구과정(1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정부의 “인구교육전문강사” 자격증을 수여하여 인구교육을 위한 현장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 김태현(2008).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인구교육, 1(1). pp. 1~20.
- 김태현 외(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교원대학교.
- 김태현·유종열·김혜환(2012). '청소년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 인구교육. 5(1).
- 윤인경 외(2006).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원대학교 공동세미나.
- 이삼식 외(2005). 인구관련 교과내용실태와 개선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6a).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6b).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차우규 외(2008).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초등학교 인구교육 교재). 보건복지가족부.
- 차우규 외(2009).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중·고등학교 인구교육 교재). 보건복지가족부.
- 차우규 외(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부록1. 인구교육전공 교육과정의

영역별 교과목 해설 <<

1. 교육학 영역(4과목)

1)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

(개요) 학습자의 행동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교육평가는 의사결정의 성질에 따라 학생평가와 교육과정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평가는 학생이 설정된 교수목표를 적절히 성취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과정평가는 교육과정·학습과제·교수방법의 효과를 학습자·환경·교육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2) 상담심리(consulting psychology)

(개요) 교육심리학(educational)은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그 원리를 정립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학문이다. 그 중 상담심리학은, 임상심리학이 정신질환이나 심한 행동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비교적 가벼운 성격장애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부적응 문제, 진로, 이성문제, 성문제, 고충처리 등을 다룬다.

3) 교육사회학(educational sociology)

(개요) 교육사회학은 교육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교육을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다. 따라서

교육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탐구한다. ㄱ)교육은 개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준비와 과정을 마련해 주며 사회는 교육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ㄴ)교육의 성격에 따라 사회의 성격이 좌우되며 사회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한다. ㄷ)제도교육의 교육방식은 사회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ㄹ)교육과정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회적 필요를 포함한다. ㅁ)교육제도, 내용, 방법은 사회변화와 문화에 따라 변한다.

4)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개요) 교육 공학은 교육학의 한 분야로서, 교육 현장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설계, 개발, 평가하는 학문이다. 교육공학은 교육심리학 분야를 그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심리학에서의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를 기초로 하여 교수학습이론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은 교수설계를 하는 바탕이 된다.

2. 교과교육학(5과목)

1) 인구교육론(Introduction to Population Education)

(개요) “인구교육이란?”부터 시작하여 인구교육의 개념, 범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구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토픽별로 정리하여 발표, 토론함으로써 인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방법을 익힌다.

2) 인구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in Population Education)

(개요) 인구교육의 특성과 다양성을 일반 교수-학습이론에 접목하여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인구관련 가치와 태도형성을 위한 이론을 연구한다. 또한, 교수-학습효과를 측정하여 재투입하는 일련의 참여활동을 병행한다.

3) 인구교육교재연구(Educational Materials for Population Education)

(개요) 인구관련 자료는 많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고,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교과목에서 다양한 교육자료를 교실현장에 접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4) 인구교육세미나(Seminar on Academic Writing in Population Education)

(개요) 인구교육은 인구와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이것을 학교현장에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구관련 가치와 태도형성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인구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축적하기 위하여 수강생 각자가 현장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장래 인구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5) 인구교육연구방법(Research Methods for Population Education)

(개요) 인구교육을 소재로 연구논문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연구의 기획, 자료의 수집과 정리방법, 자료의 통계처리와 자료의 분석결과 기술방법을 익힌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저변확대를 위한 기초강좌이다.

3. 교과교육학(10과목)

1) 인구변동 및 인구정책(Population Changes and Population Policies)

(개요) 사회의 기초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이다. 인구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이론과 변천 및 성과를 분석한다.

2) 인구이론과 통계(Population Theory and Statistical data)

(개요) 인구학의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인구학은 다양한 사회경제분야는 물론 자연과학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응용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과목으로서의 인구이론을 이해하도록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등 주요 인구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기법 및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생명윤리와 반편견교육(Bio-Ethics and Anti-Bias Education)

(개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생명에 대한 인식과 존중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생명윤리를 통해 태아뿐 아니라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그리고 반편견교육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소수자에 대한 배척이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치교육이 중요하게 다룬다.

4) 세대공동체론

(개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세대 간 단절과 세대 간 갈등 등을 탐구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를 예상한다. 노인 부양이 가족망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대 간 책임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조부모들도 손자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대공동체의 형성은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건이 될 것이다.

5) 인구와 가족가치(Population and Family Values)

(개요)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으로 결정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이 결혼과 부모됨을 선택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클 때이다. 이 과목에서는 새로운 행복을 위하여 결혼과 부모됨을 선택하고, 진정한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찾기 위한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6) 가족과 생애(Family and Life Course)

(개요)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빈둥우리 단계에서 고령의 삶을 살고 떠나게 된다. 과거에는 가족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개인중심의 생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개인의 생애과정의 변화를 연구하고,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7) 고령사회와 복지(Aged Society and Welfare)

(개요)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르다. 또한, 2050년대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다.

고령화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 중에서도 사회의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개인의 복지수준이 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분석하고, 개인의 복지행상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역할을 연구한다.

8) 현장조사와 참여(실습)(Participant Observation on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개요) 저출산·고령사회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수강생이 직접 체험하는 교과목이다. 예를 들면, 저출산의 실태를 농촌, 병원, 학교(보육원) 등에서 직접 확인하고, 고령화의 실태를 농촌, 도시의 공원, 병의원, 요양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고, 구성원들과 대화와 관찰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실태를 이해하고 고민한다.

9) 저출산·고령사회 사례연구(A Case Study on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개요) 저출산·고령사회가 지속되면 사회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은 사회의 한 분야를 택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부록2. 주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

1) 인구교육론(Population Education Theory)

<강좌 개요>

1. 강의시간 : 주당 강의 3시간, 시간당 50분 씩.
2. 강의기간 : 학기당 15주
3. 강좌유형 : 강의, 연구발표 및 토론 병행
4. 평가유형 : 이론시험, 연구활동, 발표·토론활동을 종합하는 복합형

<강의 계획(총괄)>

1. 강의 목적 및 개요

“인구교육이란?”부터 시작하여 인구교육의 개념, 범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구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토픽별로 정리하고 인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방법을 익힌다. 인구교육의 학적 배경으로서 인구학,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경제학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교과교육학으로서의 인구교육론의 융합학문적 성격과 학문적 독자성을 탐구한다.

2. 수업(교수)방법

수업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업내용에 따라 수업방

법에 차이가 있다. 우선, 인구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 교재, 교사 및 강사의 역할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인구교육과정론이 있으며, 이것은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때, 강의는 주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관련 논문이나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다음은 인구교육의 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학,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경제학 등의 핵심 내용을 탐구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3. 평가방법

강좌의 평가는 다음의 네 가지(이론시험, 연구보고서, 발표와 토론, 출석)의 평가결과를 합하여 결정한다. 단,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했을 때 평가대상이 된다.

- 가. 시험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실시하며, 총평가의 30%를 반영한다.
- 나. 연구보고서는 총1회에 불과하다. 첫 번째 연구보고는 현재의 인구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인구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총평가의 30%를 반영한다.
- 다. 위에서 부과한 두 차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내용과 참여하는 태도에 총 10%를 반영한다. 끝으로, 출석성적을 총점의 10%로 한다.

4. 교재 및 참고문헌

이 강좌에서는 주 교재를 활용한다. 인구교육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차우규 외(2013)의 <인구교육 교육과정>과 김태현(2012)의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이고, 그 외에 인구교육 관련 논문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4-1. 교재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4-2. 참고문헌

권태환, 김태헌,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김승권 외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헌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김태헌·차우규 외 (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교원대학교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이삼식 외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인경 외 (2008), <교사대상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구문제연구소.

한국인구학회 편 (1997), <인구변화와 삶의 질>, 서울: 일신사.

5. 주별 수업내용 및 진행방법(과제 및 참고자료 포함)

<제1주> 인구교육의 개념

1) 강의 내용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즉, 인구교육 개념 정의와 개념 구성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논의를 통해 학교 및 인구교육의 혼선을 막는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의 개념 정의
- 인구교육의 구성요소
- 인구정책·홍보와의 관련성 및 차별성

<제2주> 인구교육의 성격

1) 강의 내용

인구교육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인구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적 차원에서 접근
-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인구교육 실시
- 개별 학문들과는 차별화된 학제적(interdisciplinary) 혹은 융합 학문적 성격
-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 내용의 연계
- 가족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결과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정부 정책 홍보 내용보다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의 적절성 반영
- 학습자의 생애 주기와 전체 사회의 맥락 속에서 현재 자신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다룸
- 인지 접근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정서 변화와 실천을 담보하는 통합적 접근 추구

〈제3주〉 인구교육의 학적 배경

1) 강의 내용

인구교육의 개념이 흔들리지 않고 이론적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인구교육의 학적 배경을 체계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학을 포함해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개별 학문들과는 차별화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학문 성격을 띠
- 인구교육의 체계화 및 여러 학문분야들 간의 진정한 융합을 위해서는 여러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의 견고한 학문 간의 높은 벽을 허물고 상호 협동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함
- 기존의 인구학(사회학), 윤리학, 가족학, 복지학 외에도 향후 경제학, 보건학, 교육학 등이 인구교육의 학적 배경에 새롭게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 인구교육에 있어서는 인구와 경제, 인구와 건강 등을 연계시켜 설명할 때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효과가 제고됨
- 일본의 경우, 소자화(少子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학교 인구교육 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만혼의 원인 중의 하나인 청년실업 문제가 청소년 대상의 진로 및 직업지도의 미흡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제4주〉 인구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1) 강의 내용

일반 국민들은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필요하다고 말하나,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저출산의 지속과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구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의 필요성(인구정책에는 장래 사회발전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인구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청소년 대상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인구관련 가치(결혼, 출산 등)는 성년 미혼남녀보다도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학생을 포함해 국민들의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 형성을 돕는 것
-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발전” 도모
-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에는 생명존중의식, 양성평등의식, 세대공동체의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혼·양육관, 부모됨의 가치 느끼기, 생애별 진로탐색 능력 등의 영역이 있음

<제5주> 인구교육의 범위와 한계

1) 강의 내용

최근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어 가고 있지만,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범위가 다소 불명료하고 포괄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 인식을 토대로 인구교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학교 인구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부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요구됨
- 인구 문제는 공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
- 합리성의 개념은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과 가치 합리성(value ration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적정인구를 계산하여 가치 합리성을 충족하는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 합리성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교육 외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모든 인구 문제가 인구교육에 의해 해결되기는 어려움

〈제6주〉 인구교육의 목표

1) 강의 내용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명료하고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 교육효과가 클 것이다. 목표가 분명해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이 적절히 선정되고, 지도방법과 평가도 적절한 방향성을 찾을 것이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의 목표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음
- 총괄목표
- 하위목표(가치영역별 목표, 학문배경별 목표 등)
- 성취기준식 진술
- 학문배경별 목표 진술시(학문 배경으로서의 단순 병합인 가법(加法)적 융합을 지양하고, 학문 간 공통 원리가 작용하는 승법(乘法)적 융합이 되도록 해야 함)

<제7주> 인구교육의 내용체계

1) 강의 내용

교육의 3주체로 우리는 흔히 교사, 학생, 교재를 든다. 그 만큼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내용은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추어 선정·조직되어야 한다. 단 인구교육의 내용 영역이 대상별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핵심 내용 영역들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학교와 사회 인구교육 내용체계의 연계성과 차별성
- 대상별에 따른 인구학, 윤리학과 가족학, 복지학 , 경제학 등의 비중 조절
- 주제별 성취기준 진술 및 하위 내용 요소 탐색
- 학교 인구교육의 경우 교과와의 연계,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과의 연계방안 탐색
- 인구교육 내용 체계 구성 시 유의사항

<제8주> 중간고사

<제9주> 인구교육의 지도 방법

1) 강의 내용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석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내용체계를 구축해도 교사(강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인구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에 맞는 다양한 지도(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융합적 접근을 취해야 함
-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과 관련하여 지식과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 민감성과 열정성 같은 정의적 측면, 그리고 실행력 및 습관과 같은 행동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길러지도록 지도함
-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
- 인구학적 내용은 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윤리학이나 가족학 영역은 인지적 접근과 정서적 접근, 공동체주의적 접근을 균형 있게 적용함
- 인구교육에서 가치교육은 가치를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체험하면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음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공동체를 연계하여 인구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국가 인구 정책 및 시의성, 학생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함

<제10주> 인구교육의 평가 방법

1) 강의 내용

인구교육 평가방법은 다양한 인구교육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구교육 활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 준다. 평가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는 방

법으로도 활용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 주제별 평가기준 마련 필요
- 인구교육 주제별 성취기준과의 연계성
- 평가를 통한 학습자 지도 및 수업 개선
-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제11주〉 인구교육 교재의 개발과 활용

1) 강의 내용

인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교재가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며, 교사나 강사들을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인구교육 교재는 인쇄용이 그동안 많이 보급되었지만, 향후에는 전자책 형태로 개발된 교재가 많이 개발되고 활용될 것이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 교재의 다양한 형태
- 인구교육 교재의 성격
-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교재의 개발
- 학습용과 지도자료용이 함께 포함된 패키지 형태의 교재

〈제12주〉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례

1) 강의 내용

인구교육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례를 관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활동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체험학습의 형태로 인구교육 시범학교를 방문해 인구교육 활동들의 장단점을 찾아보고, 우수 사례를 추출해낸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 센터.

차우규 외 (2013), 〈학교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지원 사업〉,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설계와 실제
- 인구교육 시범학교별 특색 알아보기
- 인구교육 시범학교별 운영상의 장단점 찾기

-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우수 사례 찾기

〈제13주〉 인구교육 전문가양성과정 운영 사례

1) 강의 내용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교육의 성패에는 우수한 교사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어떤 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 보는 것은 인구교육 전문가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 차우규 외 (2011), 〈초, 중등 교원양성기관 인구교육 강의용 교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 윤인경 외 (2008), 〈교사 대상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구문제연구소.
-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기관 및 단체
-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종류 및 특징
-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장단점 찾기
-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의 운영 방향

〈제14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인구교육

1) 강의 내용

인구교육은 친가족적 가치 태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정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교육은 생활 맥락 속에서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크다. 그래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실천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지기 때문이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차우규 외 (2011), 〈초, 중등 교원양성기관 인구교육 강의용 교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윤인경 외 (2008), 〈교사 대상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구문제연구소.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인구교육 활동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인구교육 활동
- 기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인구교육 활동
- 인구교육 우수 토론대회, 논술대회 등 관찰 및 시청

〈제15주〉 인구교육 전문지도사의 자격 조건

1) 강의 내용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교육의 성

패에는 우수한 전문지도사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인구교육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서는 그 자격과 조건이 분명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식적인 인증과 자격 부여가 필요하다. 인구교육 전문지도사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고, 이를 인증해주는 절차는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색 또한 필요하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 차우규 외 (2013), <인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 차우규 외 (2011), <초, 중등 교원양성기관 인구교육 강의용 교재>,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 윤인경 외 (2008), <교사 대상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구문제연구소.
- 인구보건복지협회(2013),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동영상 자료>.
- 차우규 외 (2009),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교사용>, 보건복지부.

3) 연구과제

- 인구교육 전문지도사의 자격조건
- 인구교육 전문지도사의 역할과 활용방안
- 인구교육 전문지도사 자격의 인증제도
- 인구교육 전문지도사와 석박사 학위과정

<제16주> 기말고사

2)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Population Changes and Population Policies)

〈강좌 개요〉

1. 강의시간 : 주당 강의 3시간, 시간당 50분씩.
2. 강의기간 : 학기당 15주
3. 강좌유형 : 강의, 연구발표 및 현장체험 병행
4. 평가유형 : 이론시험, 연구활동, 발표·토론활동을 종합하는 복합형

〈강의 계획(총괄)〉

1. 강의 목적 및 개요

1960년 이후 우리의 사회는 빠르고,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가치와 문화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 속에서 우리는 풍요로움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성장,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등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을 결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이다.

인구의 규모, 구조, 분포가 그 사회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구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식량부족이나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출산과 사망수준의 변화와 이동은 인구의 규모, 구조, 분포를 결정하고, 다시 사회의 변동을 촉진한다.

우리는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높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983년

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으로 낮아졌고, 그 후 계속 낮아져서 1996년에 인구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인구자질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서 2001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인구 자체의 상태나 변화를 관측하고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과 연계한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다양한 사회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 강좌에서는 다음 사항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현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른다.

가. 인구현상의 현 실태와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인구의 규모, 구조, 분포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나. 인구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요인들(출생, 사망, 이동)이 장래 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론적 분석방법을 익힌다. 인구현상의 실태, 변화의 요인과 사회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인구변동(고령화)이 미치는 미래사회의 문제를 현장체험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토론한다. 미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인구현상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개인과 사회의 가

차관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발전과 개인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2. 수업(교수)방법

수업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업내용에 따라 수업방법에 차이가 있다. 우선, 인구의 변동과 인구와 사회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구변천, 인구통계, 인구분석과 같은 이론이 있으며, 이것은 강의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때, 강의는 주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관련 논문이나 필요한 자료(통계, 그래프, video 등)를 수시로 활용할 것이다.

다음은 기존의 인구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수강생들은 인구자료를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여 인구의 특성을 밝히도록 한다. 또한,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수강생들은 실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사회문제)을 인구현상과 그 변화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연구과정을 밟게 된다.

끝으로, 수강생들은 현장에서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수집하여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신념을 기른다.

3. 평가방법

강좌의 평가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론시험, 현장활동, 연구보고서, 발표와 토론, 출석)의 평가결과를 합하여 결정한다. 단,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했을 때 평가대상이 된다.

- 가. 이론시험의 범위는 인구이론, 인구변동, 인구와 사회의 관계 등의 이론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서술형 주관식으로 실시하며, 총평가의 30%를 반영한다.
- 나. 연구보고는 총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첫 번째 연구보고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사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총평가의 20%를 반영한다. 두 번째 연구보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현장을 확인하고, 인구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인구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총평가의 30%를 반영한다.
- 다. 위에서 부과한 두 차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내용과 참여하는 태도에 총 10%를 반영한다. 끝으로, 출석성적을 총점의 10%로 한다.

4. 교재 및 참고문헌

이 강좌에서는 네 가지의 교재를 활용한다. 인구학 개론서인 권태환·김두섭의 〈인구의 이해〉와 Weeks의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로 인구이론의 기초를 익힌다. 김태현의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은 인구변동과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의 개론서이고, 한국인구학회 편 〈인구대사전〉은 인구이론부터 인구정책까지 모든 분야의 주제에 대한 아티클이 수록된 종합교재 겸 참고서이다.

그 외 다양한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그러므로, 수강생들은 각자 네 가지의 교재(인구대사전은 파일로 제공)를 준비하여야 하고,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통계청의 KOSIS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자료 DB와 각급 도서관에 비치된 통계자료와 참고문헌,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부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4-1. 교재

-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국고.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개정판), 서울대 출판부.
- 한국인구학회 편(김태현·전광희·이윤석·조영태) (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 Weeks, J. R. (2005),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Nin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4-2. 참고문헌

-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 권태환, 김태현 외 (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김민경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글로벌.
-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1 & 2〉, 통계청.
- 김승권 외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김태현·차우규 외 (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교원대학교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 이삼식 외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외 (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생명표〉, 통계청.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 통계청.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2012〉, 통계청.

한국인구학회 (각 연도),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회 편 (1997), 〈인구변화와 삶의 질〉, 서울: 일신사.

日本内閣府 (2008), 〈2008 少子化社會白書〉 (신윤정 · 남은우 · 이난희 공역), 보
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ulatao, R. A. and J. B. Casterline (eds.) (2001), 〈Global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Council.

KIHS (2010), 〈Population Prospects and Policy Respons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m, T. H. (1990), 〈Mortality Transiton in Korea, 1960-1980〉,
PDSC,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 L. & D. S. Kim (2013), 〈Korean Population at 23 Grances〉,
Statistics Korea.

Seigel, J. S. & D. A. Swanson (2004),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2nd Ed.) London: Elsevier Academic Press.

5. 주별 수업내용 및 진행방법(과제 및 참고자료 포함)

〈제1주〉 인구, 인구학, 인구자료, 인구교육

1) 강의 내용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즉, 인구의
개념과 인구연구의 범위, 방법과 내용, 그리고, 인구학과 인구교육을 연
구하는데 필요한 인구통계자료의 종류, 내용, 특성 등을 익힌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 · 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6장.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제1장.

한국인구학회 편(김태헌·전광희·이윤석·조영태) (2006), 〈인구대사전〉, ‘인구학’, ‘인구학과 사회과학’, ‘센서스’, ‘인구통계’ 외.

Weeks, J. R. (2005),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s 1 & 4.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1 & 2〉, 제1장.

김민경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김태헌 (1997), ‘인구총조사의 방법과 평가’, 〈한국인구학〉 20(1): 27-46.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Video 및 조사표(전수 및 표본).

3) 연구과제

- 인구, 인구학, 인구교육 등의 정의
- 인구와 사회의 관계와 인구학의 중요성
- 인구연구방법으로서의 기간접근법과 코호트접근법
- 인구총조사와 동태통계의 관계

〈제2주〉 인구이론

1) 강의 내용

인구학이 독립학문으로 발전한 것은 맬서스의 ‘인구론’이 발표된 이후이다. 그러므로, 맬서스의 ‘인구론’의 이론과 배경, 그리고 이 이론을 비판함으로써 인구학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인구학의 대표적인 이론인인구의 제1, 2차 변천을 중심으로 인구변동을 이해한다. 끝으로,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인구규모와 구조를 연구하는 적정인구의 개념을 익힌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제2장.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인구사상: 맬서스 이후’, ‘인구변천

이론', '땡서스' 및 '적정인구'.

Weeks, J. R. (199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s 2 and 3.

3) 연구과제

- 땡서스의 “인구론”과 이에 대한 논쟁과 비판
- 제1, 2차 인구변천이론에 비추어본 과거와 미래의 인구변동
- 적정인구의 개념과 논의

〈제3주〉 인구성장과 인구구조

1) 강의 내용

인구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와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분석 기법을 익힌다. 인구성장의 속도를 측정하고, 인구의 구조와 특성을 기초로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른다. 수강생 각자는 인구 피라미드를 직접 그리고, 특성과 변화를 설명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1장.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제3장.

한국인구학회 편(김태현·전광희·이윤석·조영태) (2006), 〈인구대사전〉, ‘인구학적 추정방법’, ‘인구변동’, ‘인구변동’, ‘코호트분석’ 등.

Weeks, J. R. (199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 8.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1 & 2〉, 제12장.

김태현 (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8(2): 1-23.

Lee, S. L. & D. S. Kim (2013), 〈Korean Population at 23 Grances〉,

Statistics Korea,

3) 연구과제

- 인구성장의 속도와 성장요인
- 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특성과 불균형의 심화(인구피라미드 활용)
-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변동(노령화, 가족의 변화 등)

4) (과제 I)

수강생들은 우리사회에서 인구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분야들(예, 복지, 교육, 경제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직간접 영향을 분석한다.

- 사회분야의 선택은 자유이며, 수강생 간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그러므로 연구주제는 “저출산·고령화가 000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임
- 우리나라 인구의 저출산·고령화가 선택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량은 A4 용지 10쪽 내외이며, 통계자료의 출처와 참고문헌을 명시
- 제7주까지 제출하며, 제8주에 발표와 토론을 함

〈제4주〉 혼인과 출산

1) 강의 내용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형성되고, 출산이 이루어진다. 혼인이 늦어지거나 줄어들면 가족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출산수준도 낮아진다. 출산은 인구변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혼인과 출산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혼인과 출산의 변화와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사회경제적 원인들을 정리하고, 사회변동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출산수준의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3장 및 제4장.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제4장 및 제9장.
- 한국인구학회 편(김태현·전광희·이윤석·조영태) (2006), <인구대사전>, '혼인력의 지표와 측정', '출산력의 지표와 측정', '출산력 변천' 외.
- Weeks, J. R. (2005),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s 10.
-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제3부.
- 권태환, 김태현 외 (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제1장, 제2장 및 제3장.
-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1 & 2>, 제3장 및 제7장.
- 김승권 외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제2장.
- 이삼식 외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학회 편 (1997), <인구변화와 삶의 질> 제6장.

3) 연구과제

- 혼인과 출산의 지표를 계산하고, 변화를 이해
- 혼인 및 출산변천과 그 배경
- 혼인과 가족, 혼인과 출산의 관계
- 혼인 및 출산의 변동과 사회변동의 관계(차별출산력과 차별혼인력)

<제5주> 사망과 이동

1) 강의 내용

인구변천은 사망률의 감소부터 나타났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증대시켰고, 출산의 감소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망력의 지표와 생명표를 이해하고, 사망변천과 사망력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 인구학적 요인은 사망, 출생, 이동이며, 이동은 인구규모나 구조만이 아니라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론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인구이동과 사회변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 김태헌 (2012), 〈저출산 · 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2장.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제5장 및 6장.
- 한국인구학회 편(김태헌 · 전광희 · 이윤석 · 조영태) (2006), 〈인구대사전〉, ‘인구 이동의 측정’, ‘사망력의 측정’, ‘차별사망력’ 외.
- Weeks, J. R. (2005),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s 5 & 11.
-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1 & 2〉, 제4장 및 제13장.
- 권태환, 김태헌 (1995), 〈한국인의 생명표〉.
- 권태환, 김태헌,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제2부.
- 김태헌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5-40.
- 통계청 (각 연도), 〈생명표〉.
-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 한국인구학회 편 (1997), 〈인구변화와 삶의 질〉 제3장 및 제4장.
- Kim, T. H. (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PDSC Seoul National University.

3) 연구과제

- 사망력 변천과 그 배경

- 사망과 이동의 지표를 계산하고, 그 유형과 변화를 이해.
- 생명표의 작성방법과 용도를 이해
- 인구 및 사회특성별 차별 사망력과 이동력을 분석

〈제6주〉 장래인구추계와 고령화

1) 강의내용

인구의 규모나 구조의 변화는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초저출산수준이 지속되는 지금도 인구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인구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여도 인구의 감소는 한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의 인구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필요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구변동에 대처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추정을 장래인구추계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방법을 이해하고, 미래인구의 고령화를 예측하고, 다른 사회와 비교하여 우리 인구변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1장 및 제5장.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제8장.

한국인구학회 편(김태현·전광희·이윤석·조영태) (2006), 〈인구대사전〉, ‘장래인구추계’, ‘고령화와 상수의 생물학’ 외.

Weeks, J. R. (2005),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s 8.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1 & 2〉, 제18장.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제1부.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 편 (1997), 〈인구변화와 삶의 질〉 제1장.

3) 연구과제

- 인구추정과 장래인구추계의 정의
- 장래인구추계의 방법(출산, 성비, 사망, 이동의 가정과 코호트 요인법)
- 장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동
- 주요국의 인구변동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정도 이해

4) (과제 II)

수강생들은 (과제 1)에서 선택한 어떤 분야에 대한 저출산·고령화의 직간접 영향을 완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현 정부나 사회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현장을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2)는 (과제 1)의 내용에 이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최종 레포트를 마련하는 것이다.

- (과제 1)의 연구내용에 이어서 최종 레포트를 마련하는 것임
-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구상
- 분량은 A4 용지 10쪽 내외(과제 1과 합하여 20쪽 내외)이며, 통계자료의 출처와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명시
- 제13주까지 제출하며, 제15주에 발표와 토론을 함

〈제7주〉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1) 강의내용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50년대에는 60세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80세를 상회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

입합에 따라 고령인구는 급증한다. 더욱이 2001년 이래 초저출산수준(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의 정도와 속도는 사회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고령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왜 미래사회를 위한 지금의 인구정책이 필요한지를 이해한다.

2)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4장.

한국인구학회 편(김태현·전광희·이윤석·조영태) (2006), <인구대사전>, ‘인구 정책: 한국’,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사회적 특성’ 외.

Weeks, J. R. (2005),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s 8 & 9.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제1부.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 편 (1997), <인구변화와 삶의 질> 제3장 및 제4장.

3) 연구과제

- 고령화의 원인: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 저출산의 원인(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
- 고령화의 정도(수준 및 속도)와 국제적 비교
-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비교)
-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생각하기

<제8주> 과제 I의 발표 및 토론

제3주에 부과한 과제 I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수강생 각자가 발표하면 지정토론과 일반토론 및 종합조언(교수)이 있고, 이 내용을 보완한 파일을 제9주 말까지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9주〉 이론 시험

이론시험의 배점은 30점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주관식 논술형이며, 제한시간은 2시간임
- 논술식 답안을 요하는 문제 하나와 간단한 설명을 요하는 인구학 이론관련 4~5문항을 출제하며 모두 응답하여야 함

〈제10주〉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1) 강의 내용

인구변동은 사회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인구, 즉, 질이 높은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경험한 인구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역사와 그 성과를 시대별로 탐색한다. 즉, 1962년부터 도입한 출산억제정책의 필요성과 그 내용, 성과 및 평가를 포함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인구정책을 조사해보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구정책을 구상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제11장.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10장 제11장 및 제12장.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인구정책’, pp.434-491.

Weeks, J. R. (2005),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hapters 13.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김승권 외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헌 (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8(2): 1-23.
- 김태헌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 김태헌, 장영식 (1994), '우리 나라의 장래인구전망과 「0」 성장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지> 17(1): 1-16.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 이삼식 외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외 (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해>
- 통계청 (2011b), <장래인구추계>.
- 日本内閣府 (2008), <2008 少子化社會白書> (신윤정·남은우·이난희 공역).
- KIHS (2010), <Population Prospects and Policy Responses>.

3) 연구 과제

- 인구정책의 의미와 목적
- 과거 인구정책의 의미, 방법, 효과
- 선진사회의 인구정책 사례조사 및 이해
- 과거와 현재의 인구변동과 정책을 비교하고, 미래 인구현상에 대한 정책 강구

<제11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 강의 내용

우리나라에서 출산억제정책은 1996년에 전면 폐기되고,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되었으나 2000년대에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미래사회의 고령화가 사회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제2

차 기본계획(2011~2015)을 수행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조사한다. 현행 제2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의 효과를 파악(제12주부터 3주간)하고,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 자료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인구정책’, pp.434-491.

김승권 외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현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김태현, 장영식 (1994), ‘우리 나라의 장래인구전망과 「0」 성장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지> 17(1): 1-16.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이삼식 외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외 (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해>.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3) 연구 과제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성과 및 한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기대효과
-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교하고, 미래 인구현상에 대한 발전적 인구정책 강구
-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논의
- 인구변동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정책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새로운 정책

〈제12주〉 저출산대책의 실제

1) 강의 내용

앞에서 파악한 현재의 인구정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인구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현장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 현장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주에 저출산대책의 현장을 찾아서 저출산 대응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저출산대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음 두 주에는 고령사회대책과 인구교육을 위한 현장 확인과 경험을 진행한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자료

-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10장 및 제11장.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인구정책’, pp.434-491.
김승권 외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현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김태현, 장영식 (1994), ‘우리 나라의 장래인구전망과 「0」 성장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지〉 17(1): 1-16.
김태현·차우규 외 (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교원대학교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이삼식 외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외 (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해〉.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3) 연구과제

- 저출산대책을 위한 개별 정책 숙지
- 저출산대책 수행 기관, 단체 또는 사업체 방문 및 참여활동
- 현행 저출산대책의 문제 또는 한계 파악
- 효율적인 저출산대책을 위한 방안 강구

〈제13주〉 고령사회대책의 실제

1) 강의 내용

앞에서 파악한 현재의 인구정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인구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현장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총 3주간에 걸친 현장체험활동 중 두 번째 주로 고령사회 대책의 현장을 찾아보고, 고령사회 대응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고령사회 대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자료

김태헌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10장 및 제11장.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인구정책’, pp.434-491.

김태헌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김태헌, 장영식 (1994), ‘우리 나라의 장래인구전망과 「0」 성장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지〉 17(1): 1-16.

김태헌·차유규 외 (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교원대학교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조남훈 외 (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해〉.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3) 연구과제

- 고령사회대책을 위한 개별 정책 숙지
- 고령사회대책 수행 기관, 단체 또는 사업체 방문 및 체험활동
- 현행 고령사회대책의 문제 또는 한계 파악
- 효율적인 고령사회대책을 위한 방안 강구

〈제14주〉 인구교육의 현황과 역할

1) 강의 내용

앞에서 파악한 현재의 인구정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인구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현장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총 3주간 중 셋째 주의 현장참여활동으로 인구교육의 현장을 찾아보고, 그 활동을 파악, 경험함으로써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경험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인구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그러자면 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필요에 접근해야 하므로 사회(또는 국가)는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선택이 쉽도록 노력하고,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교와 사회의 인구교육 몫이라고 할 수 있다.

2) 강의 교재 및 참고자료

김태현 (2012),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제2부.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인구정책’, pp.434-491.

김승권 외 (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현 (1995),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김태헌·차우규 외 (2011),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교원대학교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이삼식 외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3) 연구과제

- 인구교육의 정의, 내용, 범위, 방법 등을 이해
-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선택과 인구교육의 관계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인구교육의 중요성 이해
- 현행 인구교육의 문제 또는 한계 파악
- 효율적인 인구교육을 위한 방안 강구

〈제15주〉 (과제 II)의 발표 및 토론

제6주에 부과한 (과제 II)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과제 I)의 발표와 같이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일반토론 및 종합조언(교수)이 있다. 이들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 레포트를 학기 말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 때, 프린트한 보고서 한 부를 제출하고, 원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특히, 논문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참고문헌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인구와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앞으로 인구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연구와 현장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